

이·미용업 등의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Hygiene Guideline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Based on the Current Regulations

정기혜 윤시몬 조주연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이·미용업 등의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1. 09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책임자 : 정 기 혜

연 구 원 : 윤 시 문

연 구 원 : 조 주 연



머리말

공중위생분야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업종을 관리하는 분야이다.

최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공중위생업소의 고급화,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새로운 업소가 출현하고 있다. 물론 서비스 개방화에 따라 외국계 업소들의 우리나라 시장진출 및 시장세 확산은 우리나라 영세업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명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한 경쟁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종별 안전관리 수준의 제고이다. 특히 이·미용분야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종사자 모두의 건강관리를 위해 위생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시대적 요구사항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미용분야의 기존 위생지침에 대한 개정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업종별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National Agenda를 개발하는 등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2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SUMMARY	1
요약.....	5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7
제2절 연구목적	20
제3절 연구내용	20
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22
제5절 연구수행 체계	25
제6절 선행연구 고찰	26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시장 및 관리 현황	29
제1절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31
제2절 지역별 현황	34
제2절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 연도별 현황	42
제3절 공중위생서비스분야 가계소비 지출현황	53
제4절 외국의 공중위생분야 관리현황	55
제3장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	79
제1절 조사계획	81
제2절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85
제3절 공중위생 업무 만족도 등 인식조사 결과	103
제4절 시사점	117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 방향.....	119
제1절 공중위생분야 현안	121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향	130
제5장 이·미용 위생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139
제1절 이·미용분야 위생관리규정 등 평가.....	141
제2절 이·미용 위생지침 국제비교	151
제3절 이·미용 위생지침 등 개정안	160
제6장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 및 National Agenda 도출.....	167
제1절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안.....	169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171
제3절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175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1
제1절 결론	183
제2절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87
부록	191
부록 1.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광역자치단체)	193
부록 2.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기초자치단체)	198
부록 3.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 조사표 (공무원용)	203
부록 4. 지역별 공중위생관련업 연도별 현황	209

표 목차

〈표 1- 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계획	23
〈표 1- 2〉	미용업 및 네일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27
〈표 2- 1〉	공중위생관련 업소 현황(2002-2011)	31
〈표 2- 2〉	연도별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32
〈표 2- 3〉	연도별 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 현황	33
〈표 2- 4〉	전국의 공중위생업 등 총괄현황 (2011년말 기준)	34
〈표 2- 5〉	생활숙박업 현황 (2012년 5월 기준)	36
〈표 2- 6〉	전국 이.미용업소 영업장면적 현황 (2012년 3월 기준)	37
〈표 2- 7〉	전국 미용사 면허발급 현황 (2011년말 기준)	38
〈표 2- 8〉	전국 이용사 면허발급 현황 (2011년말 기준)	40
〈표 2- 9〉	세탁기능사 현황	41
〈표 2-10〉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의 연도별 현황	42
〈표 2-11〉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소 등의 연도별 총괄 현황	48
〈표 2-12〉	각 지역별 공중이용시설의 연도별 총괄현황	52
〈표 2-13〉	공중위생서비스 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53
〈표 2-14〉	외식비 등 식품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54
〈표 2-15〉	일본의 숙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55
〈표 2-16〉	일본의 목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57
〈표 2-17〉	일본 세탁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58
〈표 2-18〉	일본의 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2
〈표 2-19〉	일본의 이.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4
〈표 2-20〉	일본의 네일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68
〈표 2-21〉	일본의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72
〈표 2-22〉	호주의 유해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	74
〈표 2-23〉	호주의 이.미용업의 위생분야 관리 지침	75

〈표 2-24〉 호주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76
〈표 2-25〉 미국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77
〈표 3- 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대상	82
〈표 3- 2〉 조사대상 행정구역	82
〈표 3- 3〉 공중위생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등 인식도 조사개요	83
〈표 3- 4〉 기초(시·군·구) 공중위생 인프라 실태조사 응답현황	84
〈표 3- 5〉 광역 지자체의 인구, 면적 및 업소 현황	85
〈표 3- 6〉 광역지자체의 인력, 조직 등 현황	87
〈표 3- 7〉 광역지자체의 예산 세부현황	88
〈표 3- 8〉 광역지자체의 인력 세부현황	89
〈표 3- 9〉 광역지자체의 행정점검 현황	91
〈표 3-10〉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92
〈표 3-11〉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 세부현황	92
〈표 3-12〉 광역지자체의 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94
〈표 3-13〉 기초 지자체 인구 및 업소수	95
〈표 3-14〉 기초 지자체 인력, 조직, 예산 현황	96
〈표 3-15〉 기초 지자체 예산 세부현황	97
〈표 3-16〉 기초 지자체 세부인력 현황	98
〈표 3-17〉 기초지자체 행정점검 현황	100
〈표 3-18〉 기초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101
〈표 3-19〉 기초지자체의 자격증 소지 현황	102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103
〈표 3-21〉 기초자치단체 소속부서 유형(기타부서의 분류 포함)	107
〈표 3-22〉 관련법규 이해도	108
〈표 3-23〉 공중위생분야 업무 과중 정도	109
〈표 3-24〉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109

〈표 3-25〉	공중위생분야 업무 불만사항	110
〈표 3-26〉	공중위생분야 업무 발전가능성	111
〈표 3-27〉	공중위생분야 업무 관리 필요성	111
〈표 3-28〉	관리대상 업종	112
〈표 3-29〉	공중위생업종 향후 지속관리 필요, 불필요 이유	113
〈표 3-30〉	신종 관리대상 업종	113
〈표 3-31〉	공중위생업종별 민원	114
〈표 3-32〉	공중위생분야 현안	115
〈표 3-33〉	공중위생분야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	115
〈표 3-34〉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116
〈표 4- 1〉	전국 면적별 이.미용업소 현황	122
〈표 4- 2〉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3
〈표 4- 3〉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24
〈표 4- 4〉	생활숙박업 등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26
〈표 4- 5〉	이.미용사 자격 및 면허 취득현황	127
〈표 4- 6〉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27
〈표 4- 7〉	2012년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현황	128
〈표 4- 8〉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129
〈표 4- 9〉	공중위생 단체별 의견수렴 조사개요	130
〈표 4-10〉	숙박업 현안 및 개선방향	131
〈표 4-11〉	이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2
〈표 4-12〉	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3
〈표 4-13〉	네일아트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5
〈표 4-14〉	메이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6
〈표 4-15〉	피부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7
〈표 4-16〉	세탁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8

〈표 4-17〉	공중이용시설의 현안 및 개선방향	138
〈표 5-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별표 1	141
〈표 5-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별표3	143
〈표 5- 3〉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제7조 관련) 별표 7	144
〈표 5- 4〉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147
〈표 5-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진단 규정	147
〈표 5- 6〉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3조 관련)	148
〈표 5- 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4조 관련)	148
〈표 5-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49
〈표 5- 9〉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51
〈표 5-10〉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52
〈표 5-11〉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153
〈표 5-12〉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154
〈표 5-13〉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156
〈표 5-14〉	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국제 비교	157
〈표 5-15〉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160
〈표 5-16〉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161
〈표 5-17〉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162
〈표 5-18〉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개정안	162
〈표 5-19〉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	164
〈표 5-20〉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의 개정안	165
〈표 6- 1〉	공중위생분야 각 업종별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향	171
〈표 6- 2〉	기본방향	172

그림 목차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24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25
[그림 2-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43
[그림 2-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44
[그림 2-3]	각 지역별 아.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45
[그림 2-4]	각 지역별 세탁업의 연도별 현황	46
[그림 2-5]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47
[그림 2-6]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49
[그림 2-7]	각 지역별 세척제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50
[그림 2-8]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51

부표 목차

〈부표 4-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209
〈부표 4-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210
〈부표 4-3〉	각 지역별 이용업의 연도별 현황	211
〈부표 4-4〉	각 지역별 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212
〈부표 4-5〉	각 지역별 세탁업의 연도별 현황	213
〈부표 4-6〉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214
〈부표 4-7〉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215
〈부표 4-8〉	각 지역별 세척제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216
〈부표 4-9〉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217



SUMMARY

Hygiene Guideline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Based on the Current Regulations

1. Goal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e future approach for development of hygiene regulations by identifying the status and problems of public hygiene which was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the public. In particular,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approach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infrastructure related to public hygiene by local authorit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xecution for public hygiene.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contribute on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health improvement of workers by specifying the hygiene guideline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The followings are the detailed purposes.

2. Scope

First, identify the status and scope of public hygiene market in Korea,
Second, analyze the infrastructure of public hygiene field by local authority,

Third, identify the current issues by public hygiene business and propose the approach to improve,

Fourth, prepare the approach to improve hygiene regulation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Fifth, identify the approach to development by public hygiene business.

3. Major findings

☐ Revision of Hygiene Guideline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The current facilities, facility standards, sterilization method of tools and hygiene regulations are evaluated and the revision plan by referring to the current state in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 America and Australia is proposed.
- The provision to request the workers in skin care and cosmetology business to use disposable tools including spatula or cosmetic brush and to sterilize after every usage if disposable tools are not used.
- The hygiene guideline to prevent foreign substances including hair from sticking to the containers for keeping sterilized tools is proposed.
- The hygiene guideline for serving clients is proposed for barbers and beauticians, including cleaning hands whenever serving clients and providing service with a mask on a mouth.
- The individual sterilization methods for tools are proposed including wet sterilization and how to keep disinfectants.

□ Identification of National Agenda

- ① National Agenda to induce the internal change in public hygiene industry
 - Integration of licenses and certificates of beauticians and barbers.
 - Certificate test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Licenses required for owners or workers in all kinds of public hygiene businesses.
 - Intensification of hygiene education.
 - In-depth review and follow-up ac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works for barbers and beauticians.
- ② National Agenda to induce the external change in public hygiene industry
 - Intensification of infrastructure in public hygiene field by local authority
 - Preparation of the approach to manage new businesses.
 - Integration of certification for public hygiene businesses.
 -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state by implementing the standard system to execute the actual condition survey by business category.
 - Preparation of the approach to manage the similar businesses which are not registered.
 - Coordination of the scope of works with other fields including medicine.

4. Policy suggestions

- Basic planning for implementation of National Agenda.
- Implementation of standard survey system and execution of current condition survey for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per public hygiene business category.
- Improvement of hygiene guideline per public hygiene business category.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도하아젠다 발표 후 서비스업분야도 국제교육의 자유화, 개방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특히 업종이 영세한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는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위생관리 강화 등 내실있는 업종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국민들의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신종업소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 정부의 업종관리 적정화가 필요함.
- 공중위생업무도 집행업무는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공중위생업무 관련 인프라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으로 이의 확충이 필요한바 인프라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이·미용업을 위시하여 공중위생업종별 현안과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그리고 업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및 추진은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임.
- 업소가 증가추세에 있는 미용업의 경우 시장제는 증가하지만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 기구의 소독 방법 및 위생관리 지침 내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이의 개선을 위한 평가 및 법 제정안 마련은 시급한 과제임.

□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공중위생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공중위생 집행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를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우선 이·미용업의 위생관리지침을 구체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의 시장현황, 규모 등 파악
- 둘째, 각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분석
- 셋째,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넷째, 이·미용업종의 위생관리지침 개선방안 마련
- 다섯째, 각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모색

□ 연구내용

1. 공중위생업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각 업종별 시장 규모
- 각 업종별 현안 도출
 - 세탁 기능사 비활용
 - 미용사 자격, 면허 관리 방안
 - 목욕장업 수질기준 등
-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 지자체의 공중위생업 관리 인프라 분석

-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자체별 인력, 예산, 겸직여부 등
 - 각 지자체별 근무인력의 자격증 소지 현황
-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담당자 인식 파악
 - 근무 조건 및 업무 만족도
 - 공중위생업종 향후 발전 가능성
 - 공중위생업종별 문제점 및 발전 방안
 - 현 공중위생업종 평가에 대한 의견 취합 등

3. 이·미용업 등의 위생관리 지침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이·미용업의 현안 도출
- 우리나라 아·미용 시설기준, 위생관리지침 등 현황 파악
- 현 이·미용 위생관리조항의 국제 비교 분석
- 일부 이·미용 위생지침 구체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

4. 공중위생분야의 향후 발전방안 도출

- 각 업종별 현안 정리 및 현안별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도출
- 각 업종별 향후 National Agenda 제시
- 단기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중앙 및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확충 방안 모색

□ 연구 및 분석 방법

1. 연구방법

가. 기존 문헌, 자료 등 분석 및 고찰

- 기존 국내외 연구 문헌 고찰
- 주요 선진국 등의 공중위생분야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각 업종별 시장규모, 현안, 법규정 및 타법 적용현황 등 조사

나. 외국의 관리 현황 파악

-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공중위생분야 최근 관리 동향 분석 및 위생지침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 이·미용 등 위생지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다. 각 업종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

- 각 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의견 수렴

라. 실태 조사

- 공중위생담당자 업무 인식도 조사
-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관리 인프라 현황 조사

〈표 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계획

구분		조사 대상	조사목표
인프라	광역(시도)	시·도 담당자 대표 1인	시·도 담당자 각 1인 (16명)
	기초(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대표 1인	시·군·구 담당자 각 1인 (약 263명)
만족도 및 인식조사		시·도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시·군·구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상동

마. 회의 개최

- 자치구 담당자,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간담회의
- 연구진 정례회의(월1회)
- 업종별 관련자 회의

바.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유관단체 대표, 전문가 등 참여
- 현안별 검토 및 의견 수렴
- 워크숍(분임토의 등) 1회 개최
- 각 업종별 발전방향 및 공중위생업분야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 분석방법

가. 자료분석

-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4.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사결과 집계표를 제시함.

- 필요시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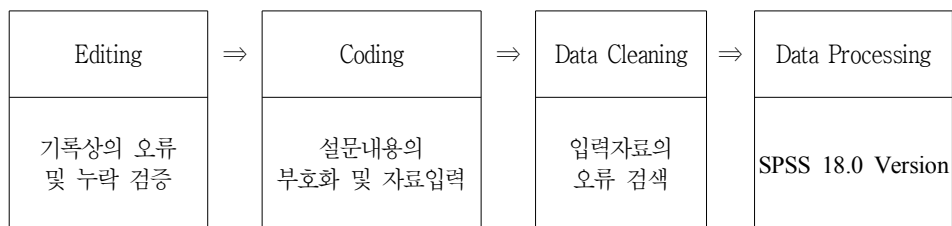
나.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함.
 - p value는 0.01, 0.05%로 유의성을 검증함
- 조사결과의 통계학적 의미를 검증함.

다. 자료 처리

- 조사된 자료는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함.

[그림 1] 자료처리 과정



II. 주요 연구결과

□ 공중위생업종별 시장 동향

- 2011년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업소수는 전체 201,180개소임.
- 공중위생 관련 업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가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업소 수는 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대부분 담보상태를 보인 반면 이용업만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도 이런 경향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전체 공중위생업소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인프라 및 담당공무원 인식조사

-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기초 지자체의 응답률이 낮아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중위생 인프라 현황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총 237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 향후 사기진작이 필요함.
-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예산, 인력 등 인프라가 타 분야에 비해 열악하므로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데 광역은 인력, 기초는 예산 부족을 최우선 해결사항으로 지적
- 공중위생업무 과중정도, 만족도, 향후 발전가능성에 있어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광역지자체 공무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특히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조사대상 공무원의 자격증 소지는 결국 공무원의 전문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 중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향후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
- 대부분의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담당자는 고유 업무 외에 식품위생, 산불관리 등 기타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향후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안

- 숙박업의 경우 유사업소 관리, 성매매 단속, 대실위주의 영업 행태 만연 등으로 나타났고,
- 목욕장업은 수질기준 현실화, 대형 찜질방의 관리(청소년 심야 출입, 주류 판매 등) 등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조사되었음.
- 이용업은 사양 업종화 하고 있어 이·미용업 통폐합 등 관리 방안 마련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 미용업은 향후 메이크업 등 업종 세분화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 현재 미용분야는 자격과 면허가 공존하므로 피부미용 면허가 신설되어야 함.
- 위생처리업, 건물위생관리용역업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타 법과 함께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미용 위생관리내용 개정안 마련

- 이·미용분야의 현 시설 및 설비기준, 기구소독 방법, 그리고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평가 및 미국, 일본, 호주 등 외국의 현황을 참고하여 개정안 제시
- 피부미용업에서 스파츨러, 화장용 브러시 등도 가능한 1회용으로 사용하고, 아니할시 1인 사용 후마다 소독을 해서 사용토록 하는 규정 추가
- 소독된 기구의 보관용기 위생까지 머리카락 등이 붙어있지 않게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 제시
- 이·미용사의 손님 접대 위생관리 지침도 제시, 즉, 손님 접대시 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시 마스크 착용 후 서비스 제공 등임
- 습식소독 등 방법과 소독약 보관관리 방법 등 이·미용 기구의 개별 소독 방법 제시

□ National Agenda 도출

1. 공중위생업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 미용, 피부미용분야 자격 및 면허 통합
- 미용, 피부미용 자격시험 실시
- 모든 공중위생업 업주 혹은 종사자 해당 자격증 소지
- 위생교육 내실화
- 이·미용업 업무 범위 통합 여부 심층 검토 및 사후조치

2. 공중위생업 외부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강화
- 새로운 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공중위생업소 인증 통합
- 정형화된 각 업종별 실태조사 실시 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 유사 미신고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의료 등 타 분야와 업무범위 조정

III. 정책제언

1. National Agenda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공중위생업종별 발전을 위해 제시된 총 11종의 National Agenda를 과제별 추진 시기 등이 단기, 중장기과제로 제시된 National Agenda 추진 및 달성을 위해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 등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2. 공중위생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 구축 및 실태 조사 실시

일본처럼 각 공중위생업종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해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런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근거중심적인 정책수립, 집행이 가능할 것임.

3.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지침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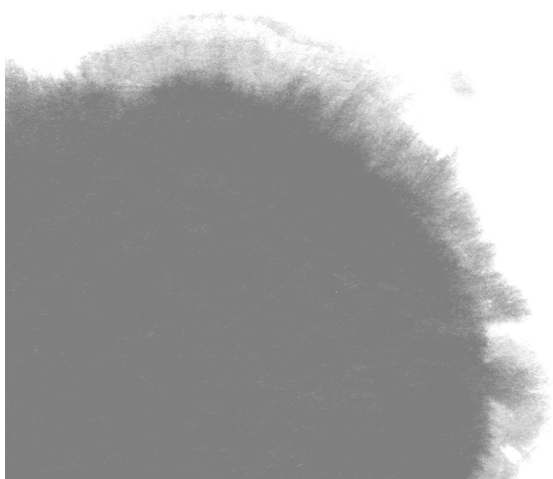
올해 이·미용 분야의 위생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검토와 안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각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지침은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법 적용상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미용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위생 관리 지침 마련과 더불어 기존 위생관리지침의 시의성있는 개정이 필요함.

*주요용어: 공중위생, 이·미용위생가이드라인

1장

KI
H
S
A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1. 연구 필요성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국제교육은 자유화, 개방화로 방향이 전환되었고, 특히 도하아젠다 개발 발표 후에 서비스업 분야도 이런 국제적인 여건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발전 및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산업구조 분석은 이미 확인된 국가 전략으로 특히 서비스업은 요즈음 문제가 되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공중위생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공중위생분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행정으로 규제합리화에 의한 건전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공중위생분야는 1999년에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법적 근간이 되고 있다. 규제정책 개선 시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현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분야는 사회규제로 식품, 환경, 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철저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공중위생업소의 발전과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규제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최근 다양한 공중위생관련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위생업소와 종사 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관련 법규상의 인터넷 교육 추가 등 위생교육 등의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즉,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고려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공중위생분야중 이·미용 분야는 화학제품을 직접 시술하기 때문에 특히 소비자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 제공자 측면에서 보면 이·미용시술시 장갑은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마스크는 잘 착용하지 않아 화학제품 독성을 호흡기로 흡입 할 수 있고 화학제품용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상대적으로 화학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일업에서 국소환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국소환기구가 설치된 업소는 적은 실정이다. 네일업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측정 결과 평균 $117.31\mu\text{g}/\text{m}^3$ 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10\mu\text{g}/\text{m}^3$ 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일반세균수 검사 결과를 보면 네일업에 사용되고 있는 리퍼에서는 $0\sim 290(\text{cfu}/10\text{cm})$ 가 검출되었고 푸셔에서는 $0\sim 110(\text{cfu}/10\text{cm})$ 검출되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피부미용업 물품 중 침대보, 베개보, 이불보, 마사지용 가운, 터번과 같은 물품의 소독을 단순히 세탁만 하는 곳이 많고 물품사용 후 전혀 교체를 하지 않는 업소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세부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수 검사 결과 피부미용업의 가운은 $100\sim 1,100,000(\text{cfu}/10\text{cm})$ 가 검출되었고, 침대는 $490\sim 900,000(\text{cfu}/10\text{cm})$ 가 검출되었다.

이·미용기구를 항시 소독하는 업소는 적고 소독방법으로 자외선 소독, 건열멸균소독과 크레졸소독 등이 있으나 어느 정도 살균력이 있는지, 소독시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일예로 일반세균수 검사 결과 미용업의 가위는 $50\sim 850,000(\text{cfu}/10\text{cm})$ 가 검출되었고 빗은 $75\sim 1,200,000(\text{cfu}/10\text{cm})$ 가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위생관리 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미용·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고유 업무별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이·미용기구의 청결 유지를 위한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라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영업장별 청결, 환기, 주명, 기구관리 등 쾌적한 환경조성 및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공중위생업소는 국민의 신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고 기존 이·미용업의 위생관리 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규업종 즉 스파, 업종간 복합형태(피부미용업소내 욕조 등 설치) 업소에 대한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도 향후 마련하여야 사각지대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을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안이 바로 지자체의 인프라이다. 즉, 현장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인프라와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의식은 공중위생업 분야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현 지자체별 인프라 분석에 의한 인프라 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보고서 구성

이 보고서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필요성 및 배경, 목적, 연구내용, 연구 및 분석방법과 연구추진체계가 기술되어있고, 제2장은 국내외 공중위생업종의 시장현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제3장은 공중위생업종별 현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각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은 이·미용업의 위생관리 지침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제6장은 향후 공중위생업종의 발전방안이 정리되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장은 결론과 정책제언이 개진되어있다.

제2절 연구목적

이 연구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있는 공중위생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공중위생 집행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를 분석,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우선 이·미용업의 위생관리지침을 구체화하여 종사자의 건강증진 및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공중위생분야의 시장현황, 규모 등 파악
- 둘째, 각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분석
- 셋째,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넷째, 이·미용업종의 위생관리지침 개선방안 마련
- 다섯째, 각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모색

제3절 연구내용

1. 공중위생업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각 업종별 시장 규모
- 각 업종별 현안 도출
 - 세탁 기능사 비활용
 - 미용사 자격, 면허 관리 방안
 - 목욕장업 수질기준 등
-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 지자체의 공중위생업 관리 인프라 분석

- 지자체별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자체별 인력, 예산, 겸직여부 등
 - 각 지자체별 근무인력의 자격증 소지 현황
-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담당자 인식 파악
 - 근무 조건 및 업무 만족도
 - 공중위생업종 향후 발전 가능성
 - 공중위생업종별 문제점 및 발전 방안
 - 현 공중위생업종 평가에 대한 의견 취합 등

3. 이·미용업 등의 위생관리 지침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이·미용업의 현안 도출
- 우리나라 아·미용 시설기준, 위생관리지침 등 현황 파악
- 현 아·미용 위생관리조항의 국제 비교 분석
- 일부 이·미용 위생지침 구체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

4. 공중위생분야의 향후 발전방안 도출

- 각 업종별 현안 정리 및 현안별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도출
- 각 업종별 향후 National Agenda 제시
- 단기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 중앙 및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확충 방안 모색

제4절 연구 및 분석 방법

1. 연구방법

가. 기존 문헌, 자료 등 분석 및 고찰

- 기존 국내외 연구 문헌 고찰
- 주요 선진국 등의 공중위생분야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시사점 도출
- 각 업종별 시장규모, 현안, 법규정 및 타법 적용현황 등 조사

나. 외국의 관리 현황 파악

-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공중위생분야 최근 관리 동향 분석 및 위생지침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 이·미용 등 위생지침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다. 각 업종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용

- 각 관련단체, 산업계, 학계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각 업종별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이·미용업소 위생서비스평가를 시행하는 지자체 공무원 의견 수렴

라. 실태 조사

- 공중위생담당자 업무 인식도 조사
-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관리 인프라 현황 조사

〈표 1-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계획

구분		조사 대상	조사목표
인프라	광역(시도)	시·도 담당자 대표 1인	시·도 담당자 각 1인 (16명)
	기초(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대표 1인	시·군·구 담당자 각 1인 (약 263명)
만족도 및 인식조사		시·도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시·군·구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상동

마. 회의 개최

- 자치구 담당자,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간담회의
- 연구진 정례회의(월1회)
- 업종별 관련자 회의

바.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유관단체 대표, 전문가 등 참여
- 현안별 검토 및 의견 수렴
- 워크숍(분임토의 등) 1회 개최
- 각 업종별 발전방향 및 공중위생업분야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2. 분석방법

가. 자료분석

- 수집된 설문지는 Coding, Editing 등의 과정을 거쳐 SPSS 14.0 Version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기본적인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조

사결과 집계표를 제시함.

- 필요시 문항과 문항간의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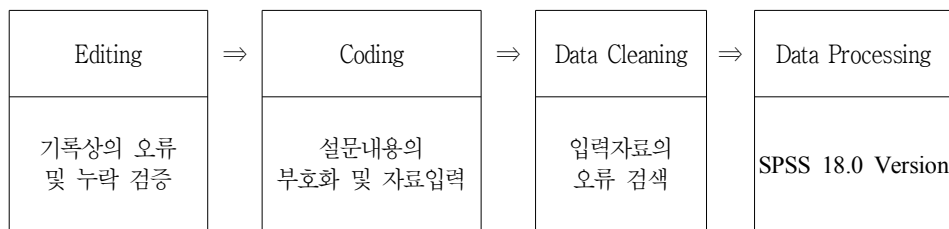
나. 조사결과의 유의성 검증

- 조사내용별 차이 확인 등 조사자료의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변수간, 집단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함.
 - p value는 0.01, 0.05%로 유의성을 검증함
- 조사결과의 통계학적 의미를 검증함.

다. 자료 처리

- 조사된 자료는 [그림 1-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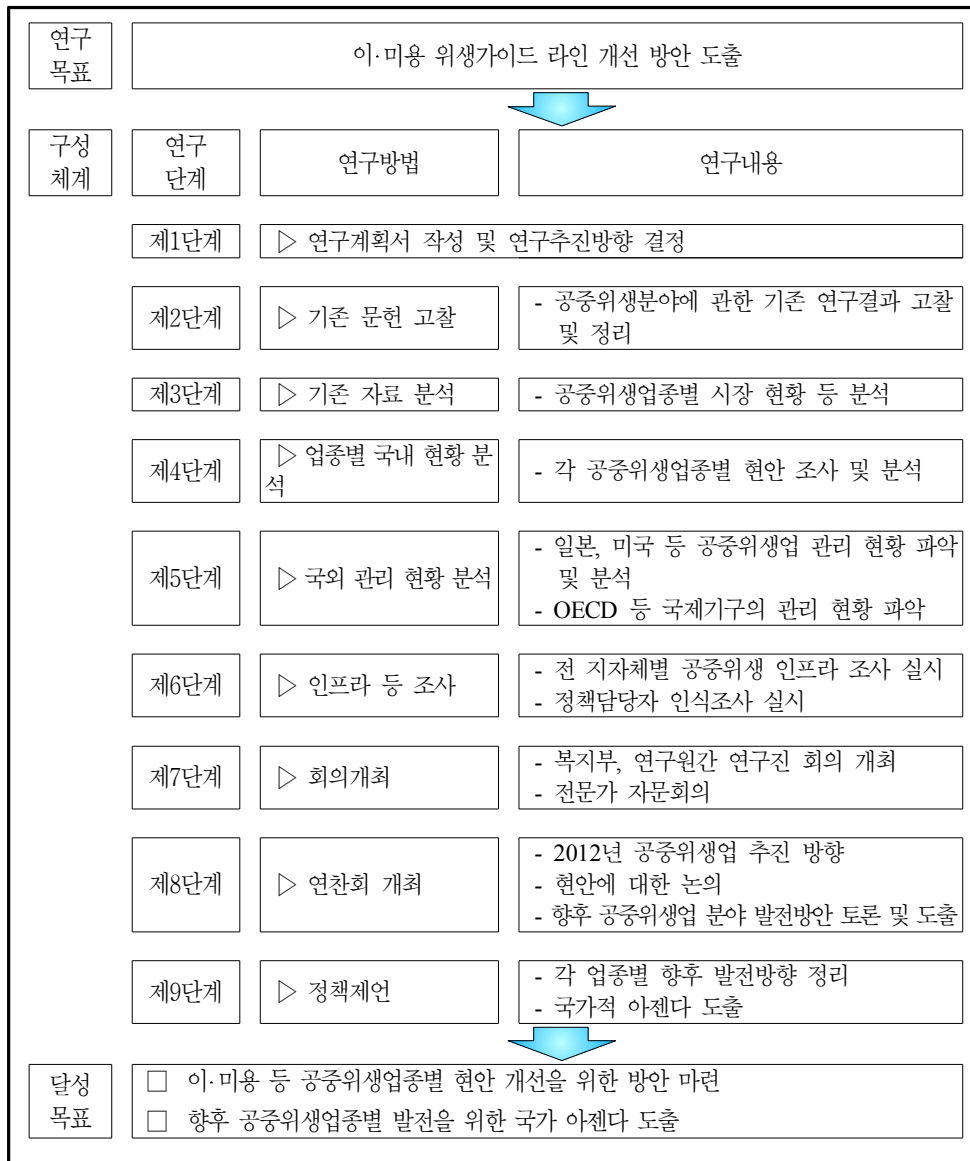
[그림 1-1] 자료처리 과정



제5절 연구수행 체계

이 연구의 수행 체계는 [그림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2] 연구수행 체계



제6절 선행연구 고찰

이·미용업 등 위생가이드 마련을 위한 기존 연구등의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일반적인 공중위생업 관련 정책연구에 제한된 연구가 최근 몇차례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미용업의 위생가이드 및 위생기준 마련에 관한 학계들의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여 아래 제시된 문헌정도였다.

1. 공중위생 수준제고에 관한 주요 연구 현황

- 공중위생 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2010.
-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평가(숙박·이용업 등 관련 업종), 2008~2010.
-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시범평가 및 추진체계 개선 연구, 2009.
- 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추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2009.

2. 이·미용 분야 정책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현황

- 이·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면허제도 통합방안 연구, 2008.
- 소비자 이용량에 근거한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2007.

3. 이·미용 분야 위생관리기준 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 동향

- 유숙희, 네일살롱의 안전·위생 인식 실태 및 네일 도구의 오염 미생물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2011.
- 채용곤, 대구시내 미용실의 보건위생 실태, 대한위생학회지 제16권 제4호, pp.9-20, 2001.

이 외에 최근 몇 년간의 미용업 및 네일과 관련된 선행연구 동향을 <표 1-2>에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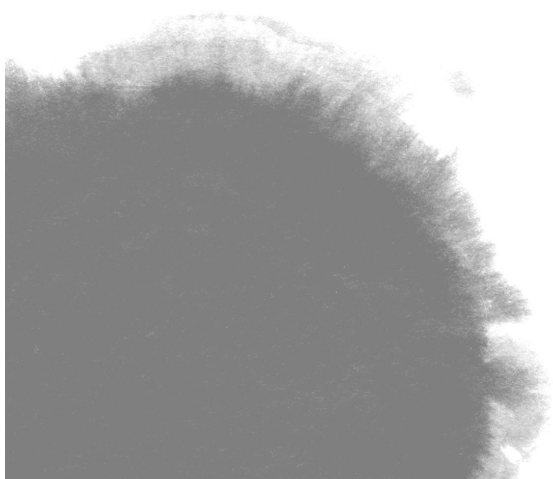
<표 1-2> 미용업 및 네일 관련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구 분	내 용
네일살롱의 안전위생 인식 실태 및 네일 도구의 오염 미생물 분석 (유숙희,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살롱 종사자와 고객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 네일관리시 사용되는 도구와 기구의 세균오염도를 조사/오염된 미생물 종을 분석하는 실험연구 ○ 네일 관리 시 사용되는 6가지 도구와 기구의 오염도와 오염된 미생물 종 분석 결과 각 네일도구에서 검출된 세균 종은 패디스파에서 가장 많은 22 종의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푸셔, 샌딩블럭, 니퍼에서 검출된 세균 종은 12 종으로 동일하였다. 핑거볼에서 검출된 세균 종은 16 종, 파일에서는 15 종의 세균검출 ○ 네일살롱 종사자의 시술테이블 소독 여부가 62.7%, 고객관리 전 손 소독제 이용여부는 90.6%로 높게 나타남. ○ 네일 도구는 종사자와 고객의 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세균의 오염도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와 고객이 모두 손을 세척하고 소독한 도구를 사용한다면 세균의 오염 가능성은 크게 감소할 수 있음.
네일숍 종사자들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실태 및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양진희,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숍 공기 중 모니터링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6개, 경기지역 3개 네일숍, 종사자 18명 조사 ·네일숍 9곳의 공기 중 유해화학물질 측정 결과 총 15가지의 물질이 검출 ○ 작업환경 실태 및 안전의식 관련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네일숍 종사자들 270명 조사 ·대상 네일숍에서 환기팬을 작동 시키는 경우가 46.5%, 현관문을 열어 환기 시키는 경우가 22.5%,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10.8%,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는 경우가 7.8% ·네일 제품의 화학물질 인지 여부 조사 결과,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네일 제품의 화학물질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60.0%가 인지)
미용업 종사자들의 화학적 노출과 호흡기 자각증상과의 관련요인(이계숙,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미용실 30개 업소 미용사 260명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실의 환기형태는 창문을 이용하는 자연환기가 18개 업소 (60.0%), 인공환기가 12개 업소(40.0%) - 대상 미용실 업소 유기화합물인 MEK, n-초산부틸, TCE, 벤젠, MIBK 등을 분석 결과, 아세톤, 톨루엔, 크실렌 등이 검출

구 분	내 용
인조속눈썹의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화장품 매장 및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수거한 인조속눈썹 접착제 11종, 속눈썹 연장술용 글루 10종, 쌍꺼풀 풀 2종 - 속눈썹 연장술용 글루 10종 모두와 속눈썹접착제 11종 중 1종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으며, 쌍꺼풀 풀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트리부틸주석화합물, 납, 비소는 검출되지 않음
여성 미용사의 만성 유기용제 폭로에 의한 정신신경학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김상아 외 3명, 대한사업의학회지,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시 75개의 미용실업소, 143명의 여성 미용사 조사 - 환풍기와 공기정화기는 각각 87.4%, 2.8%로 응답 - 미용실에 환풍기는 있으나 공기정화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 - 미용사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64.6시간 (하루평균 휴식시간은 2.50시간) - 미용약품 노출정도의 조사 결과 - 염색은 주당 개인 손님 수가 16.2명, 파마는 21.5명, 커트는 30.2명, 세발은 18.67명 - 파마 소요시간은 62.8분으로 가장 길었음
일부 미용업 종사자들의 유해물질 노출 및 피부증상에 관한 연구 (고희정,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남주지역에 위치한 미용업소 20개소와 미용종사자 66명을 조사 - 환기장치가 가동되는 업소 50% - 미용업소내의 공기중 시료분석 - 암모니아와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에탄올, 에틸에테르, 에틸아세테이트, 부틸아세테이트, 이소부틸아세테이트 등이 검출
대구시내 미용실의 보건위생 실태 (채용곤, 대한위생학회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내 미용실의 보건위생적 문제점 등의 25개 항목의 조사를 통해서 관내미용실의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도모 ○ 정기적인 위생교육 실시업소는 18.75%에 불과 ○ 미용실 청결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92.86%, 세척대 88.39%, 화장실 74.11% 양호한 편임. - 진공청소기 사용 3.57%에 불과함. ○ 미용기구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업소 91.07%, 소독전후 분리관리 미흡 91.86%로 높음 - 자외선소독기 비치업소 비율 53.57%로 미흡 - 자외선소독실시 비율 2.67%에 불과 ○ 미용용품 세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시크린 및 세제세탁 82.14%로 대다수 차지 - 세제세탁 11.61% 정도 - 멸균고온살균세탁 3.57%에 불과 - 매일세탁업소 비율은 2.68%에 불과하였음.

주: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논문검색 NDSL시스템(<http://www.ndsl.kr/index.do>, 2012.11 접속)

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시장 및 관리 현황

제2장 국내외 공중위생분야 시장 및 관리 현황

제1 절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1. 총괄 현황

<표 2-1>에는 공중위생 관련업의 연도별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2-1〉 공중위생관련 업소 현황(2002-2011)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공중위생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시설
2002	213,641	202,409	875	10,357
2003	207,901	195,088	975	11,838
2004	206,450	192,685	1,045	12,720
2005	204,979	191,294	1,052	12,633
2006	204,577	189,944	1,083	13,550
2007	201,691	188,199	1,078	12,414
2008	203,834	187,538	1,101	15,195
2009	209,518	192,994	1,129	15,395
2010	215,703	198,164	1,169	16,370
2011	219,068	190,557	11,808	16,703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012. 재구성

공중위생 관련 업소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들은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위생처리업 등과 공중이용시설은 2007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연도별 현황

가. 공중위생업 분야

<표 2-2>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공중위생업종별 업소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2-2> 연도별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소계	숙박	목욕장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
2002	202,409	32,680	10,087	32,180	86,878	35,360	5,224
2003	195,088	33,270	9,997	29,845	82,896	33,998	5,082
2004	192,685	33,642	9,845	28,196	82,207	33,311	5,484
2005	191,294	33,031	9,502	26,904	81,663	34,279	5,915
2006	189,944	32,658	9,315	25,566	81,585	34,139	6,681
2007	188,199	31,913	9,146	24,308	81,781	33,650	7,401
2008	187,538	31,563	8,852	23,189	82,551	33,233	8,150
2009	192,994	31,130	8,627	22,334	89,017	32,900	8,986
2010	198,164	30,867	8,446	21,739	95,194	32,262	9,656
2011	201,180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012. 재구성

숙박업과 목욕장업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용업은 매년 1천여개 업소가 감소하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미용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은 미미하나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기타(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 등) 분야

<표 2-3>에는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연도별 증감세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2002년부터 변화 추이를 보면 세척제 제조업과 위생용품 제조업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생처리업의 경우는 200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3> 연도별 위생처리업, 세척제, 위생용품제조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2002	875	403	154	318
2003	975	421	183	371
2004	1,045	446	203	396
2005	1,052	458	211	383
2006	1,083	450	218	415
2007	1,078	465	234	379
2008	1,101	459	248	394
2009	1,129	455	267	407
2010	1,169	455	287	427
2011	1,185	442	303	440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012. 제구성

제2절 지역별 현황

1. 공중위생관련업

<표 2-4>에는 2011년 현재 5종의 공중위생업과 3종의 기타 공중위생업의 업소 현황이 지역별로 제시되어있다.

〈표 2-4〉 전국의 공중위생업 등 총괄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 관리 용역업	위생 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합 계	202,365	30,651	8,252	20,835	99,136	31,683	10,623	442	303	440
서 울	35,915	3,470	1,226	3,298	18,728	6,443	2,689	33	4	24
부 산	16,006	2,382	1,150	1,767	7,618	2,306	725	29	15	14
대 구	10,573	1,055	437	1,229	5,522	1,861	428	13	14	14
인 천	9,674	1,345	297	872	5,017	1,675	427	14	14	13
광 주	6,987	893	260	661	3,469	1,324	346	12	4	18
대 전	6,374	918	184	577	3,190	1,048	426	16	1	14
울 산	4,815	769	238	484	2,451	606	249	13	2	3
경 기	38,937	4,753	1,137	3,497	20,600	6,407	2,122	82	124	215
강 원	8,376	2,306	339	792	3,494	1,024	377	22	9	13
충 북	6,580	1,101	224	706	3,150	1,037	275	33	30	24
충 남	9,283	2,255	294	1,096	3,870	1,326	380	29	19	14
전 북	8,544	1,478	324	994	3,994	1,258	454	24	11	7
전 남	9,312	1,787	406	1,300	3,983	1,360	431	26	10	9
경 북	13,077	2,493	607	1,589	5,932	1,789	570	45	19	33
경 남	14,618	2,849	966	1,665	6,761	1,682	613	42	21	19
제 주	3,294	797	163	308	1,357	537	111	9	6	6

자료: 보건복지부,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2012. 재구성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202,365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고, 미용업소 수가 99,1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세탁업, 숙박업, 이용업, 위생관리용역업, 목욕장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용업의 경우 피부미용업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 이미 자격이 분리된 상태에서 업소도 분리하여 시장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위생처리업과 세척제 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은 비슷한 규모로 업소 수가 400여개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숙박업은 경기도가 4,753개소로 그 다음순인 서울보다 월등 많았고, 목욕장업은 서울시와 부산시, 경기도가 거의 차이없이 많았고, 이용업은 경기도와 서울시, 미용업도 역시 경기도와 서울시, 세탁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업소가 주로 서울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체의 30% 이상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활숙박업

<표 2-5>에는 지역별 생활숙박업 업소 현황이 2012년 5월 기준으로 정리되어있다.

숙박업소가 전국적으로 30,447개소인데 반해 취사시설 설치 숙박업소는 총 1,176개소로 숙박업소의 3.9%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전체의 1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 제주도가 10.9%, 부산시가 8.3%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공중위생업종별 업소 수가 전국에서 1, 2위를 기록하던 서울시의 경우에 생활숙박업은 지리적 여건에 의해 전체의 0.4%만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생활숙박업 현황 (2012년 5월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숙박업소	취사시설 설치 숙박업소	비율(%)
합계	30,447	1,176	3.9
서울	3,440	14	0.4
부산	2,372	199	8.3
대구	992	2	0.2
인천	1,331	14	1.0
광주	884	14	1.4
대전	896	7	0.7
울산	764	22	2.8
경기	4,742	74	1.5
강원	2,247	372	16.5
충북	1,097	13	1.1
충남	2,251	21	0.9
전북	1,477	136	9.2
전남	1,790	67	3.7
경북	2,503	22	0.8
경남	2,859	111	3.8
제주	802	88	10.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05.

3. 이·미용업

가. 면적별 업소 현황

<표 2-6>에는 2012년 3월 기준 지역별 이·미용업소의 현황이 면적별로 제시되어 있다. 구분된 면적기준은 66㎡였다.

〈표 2-6〉 전국 이·미용업소 영업장면적 현황 (2012년 3월 기준)

(단위: 개소, %)

시도	업소수			66㎡ 이상			66㎡ 미만			미입력
	합계	이용	미용	합계	이용	미용	합계	이용	미용	
합계	118,690	19,848	98,842	15,928 (13)	1,070 (5)	14,858 (15)	95,462 (80)	16,594 (84)	78,868 (80)	7,300 (6)
서울	21,542	3,226	18,316	3,588	127	3,461	17,446	2,953	14,493	508
부산	8,737	1,398	7,339	1,117	72	1,045	7,110	1,283	5,827	510
대구	6,822	1,219	5,603	830	155	675	5,736	1,031	4,705	256
인천	5,979	812	5,167	694	27	667	4,822	687	4,135	463
광주	3,676	663	3,013	592	79	513	2,941	505	2,436	143
대전	3,839	570	3,269	507	27	480	3,272	538	2,734	60
울산	2,965	480	2,485	391	22	369	2,198	343	1,855	376
경기	24,284	3,426	20,858	3,366	165	3,201	19,480	2,840	16,640	1,438
강원	4,302	778	3,524	442	17	425	3,470	620	2,850	390
충북	3,876	690	3,186	436	15	421	3,176	550	2,626	264
충남	4,928	999	3,929	497	11	486	3,867	802	3,065	564
전북	5,025	984	4,041	500	36	464	4,145	848	3,297	380
전남	5,284	1,287	3,991	633	106	527	4,408	1,097	3,311	237
경북	7,542	1,567	5,975	738	101	637	6,140	1,202	4,938	664
경남	8,204	1,443	6,761	1,324	92	1,232	6,036	1,061	4,975	844
제주	1,691	306	1,385	273	18	255	1,215	234	981	20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05

이·미용업소수는 미용업소가 98,842개, 이용업이 19,848개소로 미용업소가 이용업소의 약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7,399개 업소를 제외하고 면적별로 구분해 보면 66㎡ 이상의 대형업소는 미용업이 15%, 이용업이 5%인 것으로 나타나 업소수와 더불어 규모면에서도 미용업소가 이용업소보다 현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미용업소가 많은 지역은 역시 서울시, 경기도였고, 그 다음이 경남으로 나타났다. 이용업의 경우는 경기도, 서울시의 순이었고 다음은 대구시로 분석되었다.

나. 면허발급 현황

1) 미용사

〈표 2-7〉에는 미용사 면허발급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2-7〉 전국 미용사 면허발급 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C=(A+B)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련학교 졸업자(B)
		소계 A=(1+2+3)	미용사(일반) ¹	미용사(피부) ²	미용사 ³	
합계	15,259	12,325	4,239	4,895	3,191	2,934
서울	2,931	2,423	783	1,002	638	508
부산	1,240	884	297	331	256	356
대구	857	692	239	260	193	165
인천	1,046	743	250	290	203	303
광주	584	450	119	204	127	134
대전	497	412	145	154	113	85
울산	309	249	76	107	66	60
경기	3,664	3,134	1,094	1,303	737	530
강원	390	330	107	113	110	60
충북	556	419	158	149	112	137
충남	562	490	220	169	101	72
전북	477	406	108	153	145	71
전남	450	335	142	127	66	115
경북	679	507	221	174	112	172
경남	851	710	243	270	197	141
제주	166	141	37	89	15	25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05.

현재 미용사 면허는 타 분야와는 달리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취득 절차는 국가자격기술시험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전국의 지자체의 민원부서에 방문하여 면허로 교체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법에 명시된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무시험으로 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고, 업소 개설을 할 수 있는 면허만 발급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원화되어있고, 무시험으로 면허를 받는 자의 자격에 대한 검증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현재 미용사 자격증은 피부, 일반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면허는 미용사로 통일되어 있어 이의 개선도 필요한데 현재 자격시험 없이 면허를 발급받는 비율은 전체의 1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타 공중위생업종 현황과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도 부산 등 대도시권에 취득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용사

<표 2-8>에는 이용사 면허 취득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이용사의 경우는 미용사와 달리 국가자격기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소 개설시 지자체에서 면허로 교체 발급받으면 되게 되어있다. 즉,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면허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2011년말 현재 전국에 이용사 면허가 371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8〉 전국 이용사 면허발급 현황 (2011년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국가자격기술취득자	관련학교졸업자
합계	371	367	4
서울	88	87	1
부산	36	36	0
대구	27	27	0
인천	28	28	0
광주	6	6	0
대전	12	12	0
울산	10	10	0
경기도	57	57	0
강원도	10	10	0
충북	7	7	0
충남	16	14	2
전북	9	9	0
전남	17	17	0
경북	26	26	0
경남	19	18	1
제주	3	3	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05

4. 세탁업

가. 자격증

<표 2-9>에는 세탁기능사 취득 현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992년부터 세탁기능사가 배출되기 시작하여 2005, 2006년 가장 응시인력이 많다가 점차 감소하면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배출된 세탁기능사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활용이 없는 것도 세탁기능사 지원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한가지 이유라 사료

된다.

세탁기능사 시험의 합격률은 필기의 경우 연도별 특이한 추세는 보이지 않으나 실기의 경우는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탁업 발전방안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생산한 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호주 등 외국처럼 서비스업에도 소정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해당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더불어 소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격증 소지자만 업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규제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소지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표 2-9〉 세탁기능사 현황

(단위: 명, %)

연도	필기			실기		
	응시	합격	합격률	응시	합격	합격률
1992-2000	42,585	17,017	40.0	24,256	10,504	43.3
2001	253	186	73.5	188	147	78.2
2002	293	179	61.1	197	153	77.7
2003	393	228	58.0	226	210	92.9
2004	626	388	62.0	388	309	79.6
2005	2,272	1,231	54.2	1,213	874	72.1
2006	1,819	1,164	64.0	1,419	982	69.2
2007	1,418	885	62.4	1,095	658	60.1
2008	1,442	720	49.9	1,004	612	61.0
2009	1,026	563	54.9	699	537	76.8
2010	1,241	606	48.8	694	534	76.9
2011	1,258	439	34.9	539	391	72.5
누적계	54,626	23,606	43.2	31,918	15,911	49.8

자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홈페이지 자료 채구성(<http://www.q-net.or.kr/main.jsp>), 2012.10 접속기준

제2절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 연도별 현황

1. 총괄현황

<표 2-10>에는 각 지역별, 연도별, 업소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경우 해가 거듭할수록 업소 수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미하나마 2001년 대비 2011년 업소 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도 외에 대전, 울산, 충남, 경북, 경북 정도로 나타났다.

<표 2-10> 각 지역별 공중위생관련 업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213,641	207,901	206,450	204,979	204,577	201,691	203,834	209,518	215,703	219,068
서울	44,767	39,980	40,210	40,218	40,028	38,570	39,965	41,391	42,565	43,365
부산	18,103	17,248	17,608	17,224	16,949	16,507	16,222	16,380	16,637	16,771
대구	11,839	11,963	11,592	11,098	10,877	10,338	10,442	10,550	10,874	11,022
인천	11,293	11,900	11,240	10,586	10,369	10,354	10,248	10,259	10,573	9,749
광주	7,521	7,389	6,868	7,398	7,393	7,106	7,020	7,178	7,348	7,497
대전	6,830	6,834	6,694	6,871	6,564	6,672	6,670	6,867	7,085	7,299
울산	4,897	4,994	5,011	4,648	4,567	4,434	4,498	4,703	4,845	5,012
경기	35,542	35,947	36,696	36,127	36,214	36,945	37,655	39,560	41,673	42,637
강원	8,270	8,091	8,191	8,132	8,358	8,098	8,151	8,348	8,593	8,728
충북	6,536	6,335	6,278	6,138	5,987	6,044	6,044	6,300	6,526	6,697
충남	8,670	8,473	8,661	8,703	8,737	8,882	8,944	9,038	9,280	9,479
전북	9,498	9,276	7,556	8,300	8,701	8,542	8,697	8,892	8,937	8,973
전남	9,577	9,525	9,492	9,377	9,246	9,170	9,089	9,339	9,431	9,458
경북	12,557	12,376	12,727	12,643	12,871	12,637	12,677	12,838	13,064	13,188
경남	14,543	14,343	14,370	14,339	14,431	14,244	14,361	14,650	15,029	15,243
제주	3,198	3,227	3,256	3,177	3,285	3,148	3,148	3,225	3,243	3,320

주: 공중위생관련 업종은 공중위생업, 위생처리업 등과 공중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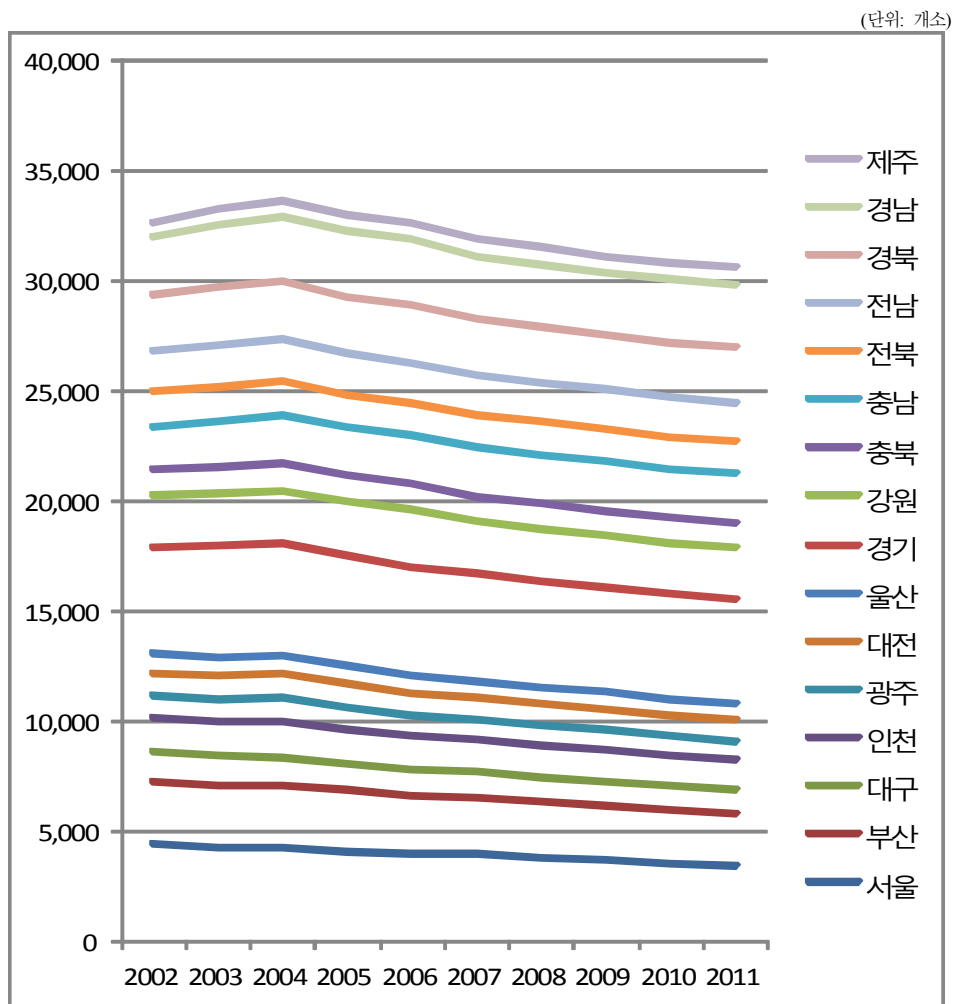
2. 업종별 현황

가. 숙박업

[그림 2-1]에는 숙박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 모든 지자체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1>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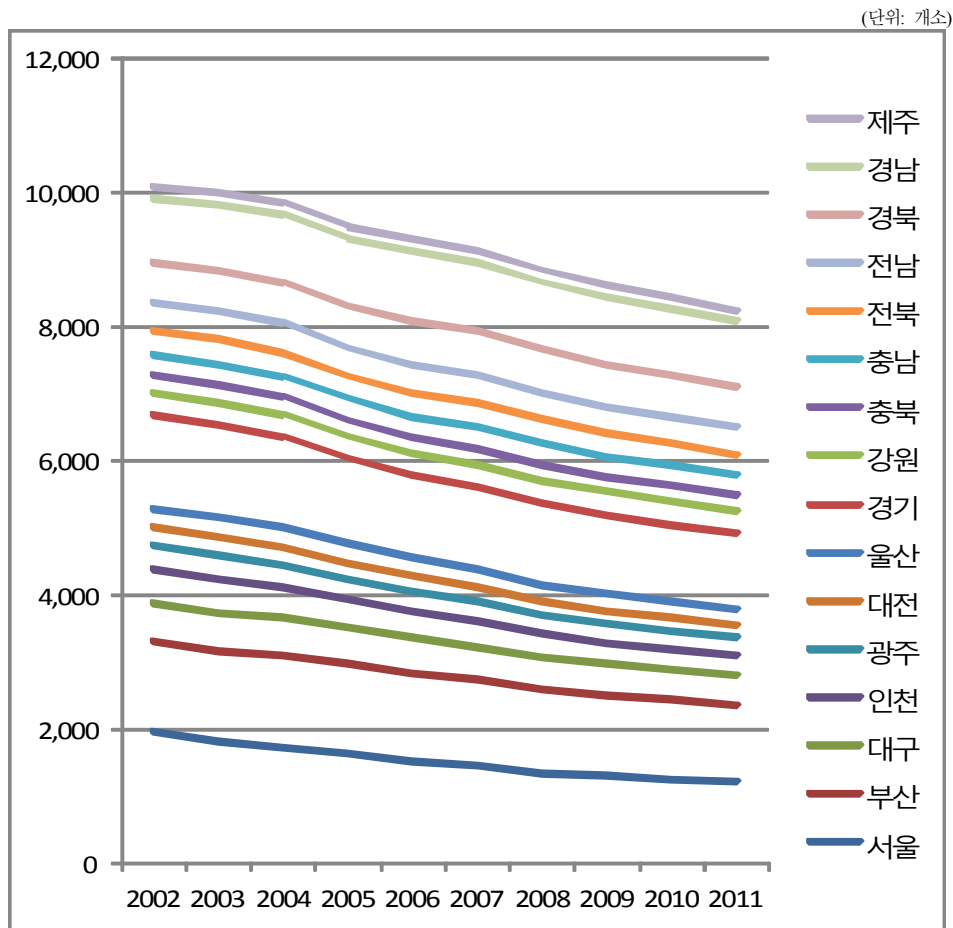


나. 목욕장업

[그림 2-2]에는 목욕장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 모든 지자체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2>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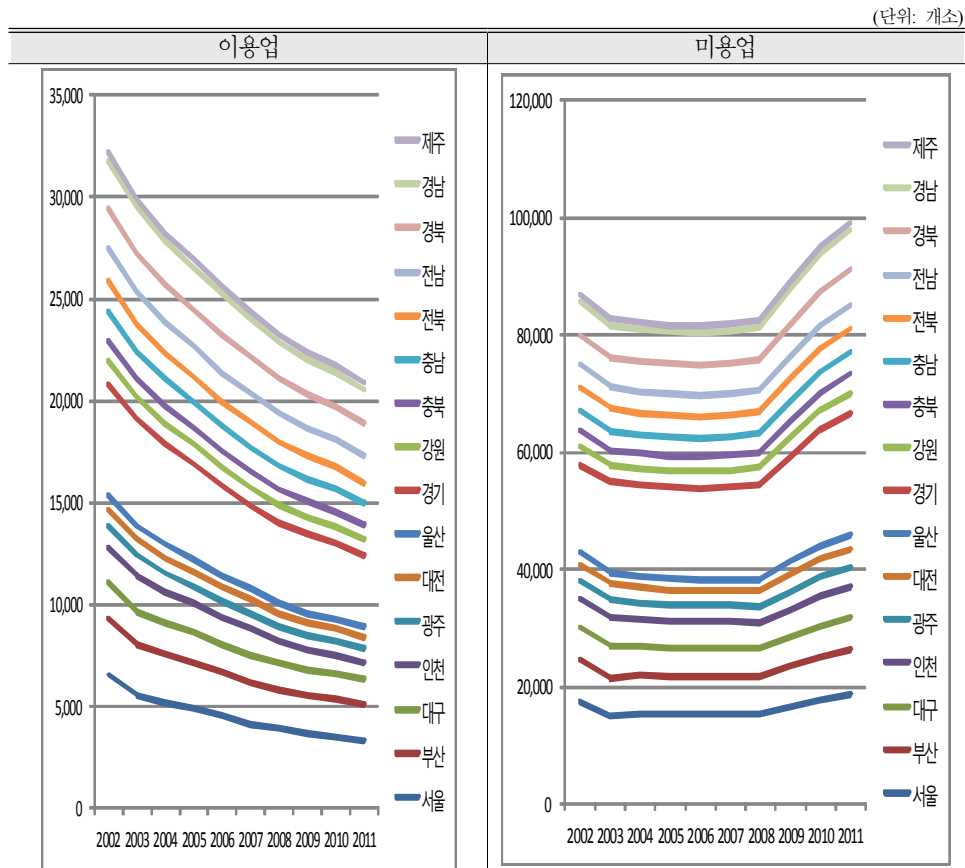
다. 이·미용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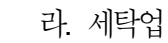
[그림 2-3]에는 이·미용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이용업의 경우 연도별로 모든 지자체에서 감소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미용업은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008년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3, 부표 4-4>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3] 각 지역별 이·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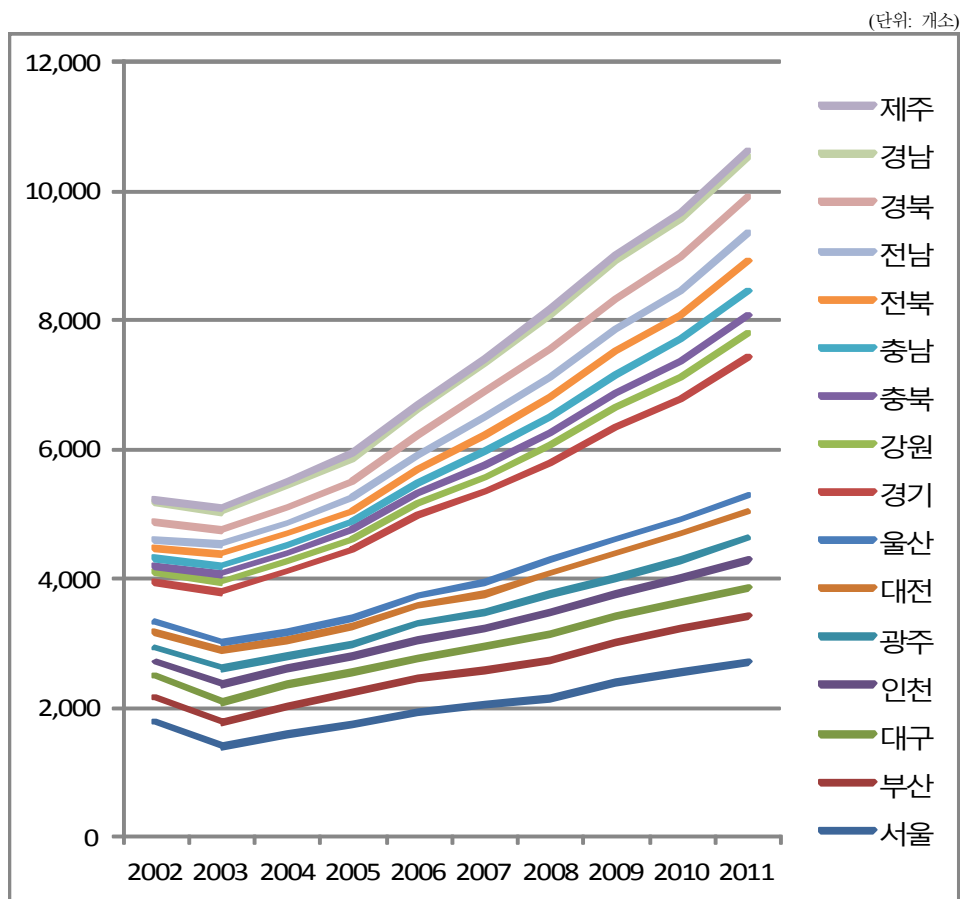
마. 위생관리용역업

[그림 2-5]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다.

연도별로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다른 공중위생업종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6>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5]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3. 위생처리업 등

<표 2-11>에는 지역별, 연도별 위생처리업 등의 업소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2-11>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소 등의 연도별 총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875	975	1,045	1,052	1,083	1,078	1,101	1,129	1,169	1,185
서울	88	88	90	84	75	73	68	69	66	61
부산	56	48	53	59	54	50	54	54	57	58
대구	32	38	39	43	35	32	27	28	37	41
인천	49	54	49	51	55	49	41	39	43	41
광주	32	31	24	24	27	30	28	29	32	34
대전	38	35	35	36	32	30	28	31	30	31
울산	16	14	14	13	19	17	16	17	17	18
경기	236	296	332	329	360	348	370	395	404	421
강원	29	33	39	41	41	48	44	42	44	44
충북	49	51	53	60	64	66	75	81	88	87
충남	51	54	58	57	50	63	66	61	63	62
전북	30	46	50	45	52	50	50	47	45	42
전남	33	39	40	44	47	47	46	47	49	45
경북	53	59	74	68	71	73	84	90	93	97
경남	70	72	80	83	85	85	86	80	81	82
제주	13	17	15	15	16	17	18	19	20	21

주: 위생처리업소 등은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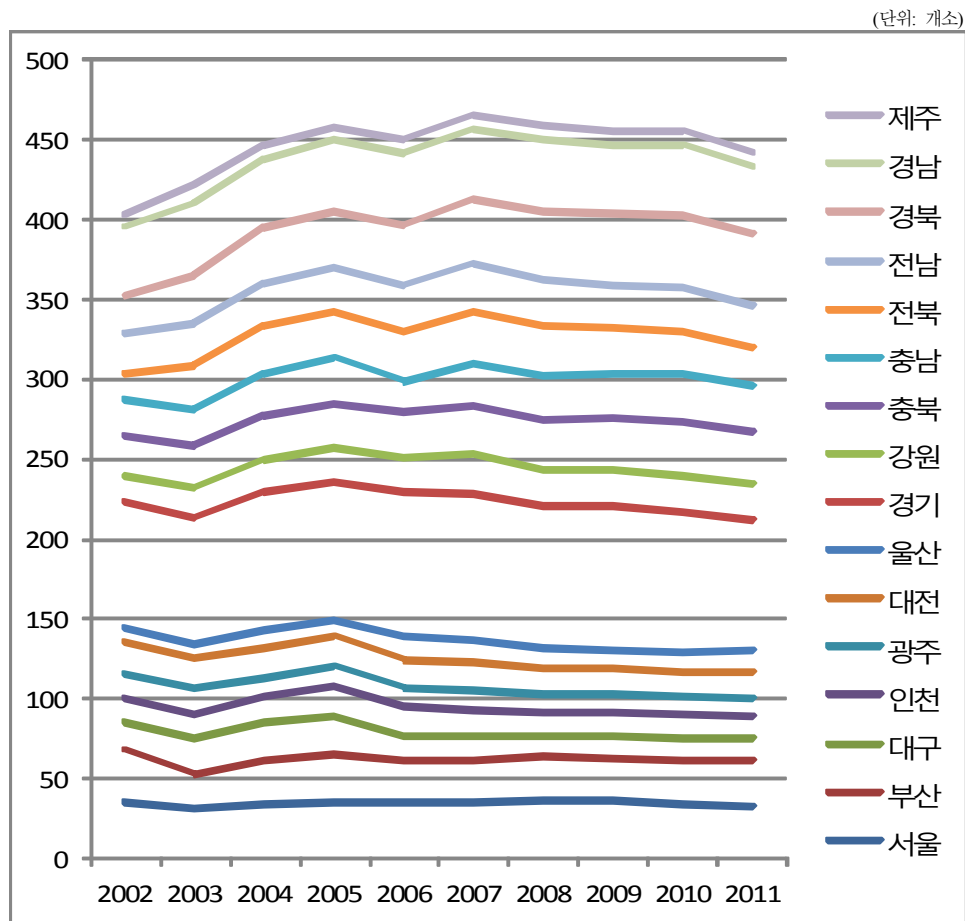
가. 위생처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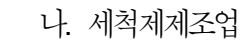
[그림 2-6]에는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 16개 시도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은 중간의 부침이 있기 하지만 2002년 대비 2011년 증가한 상태를 보이는 반면에 광주, 인천, 대구 등은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7>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6]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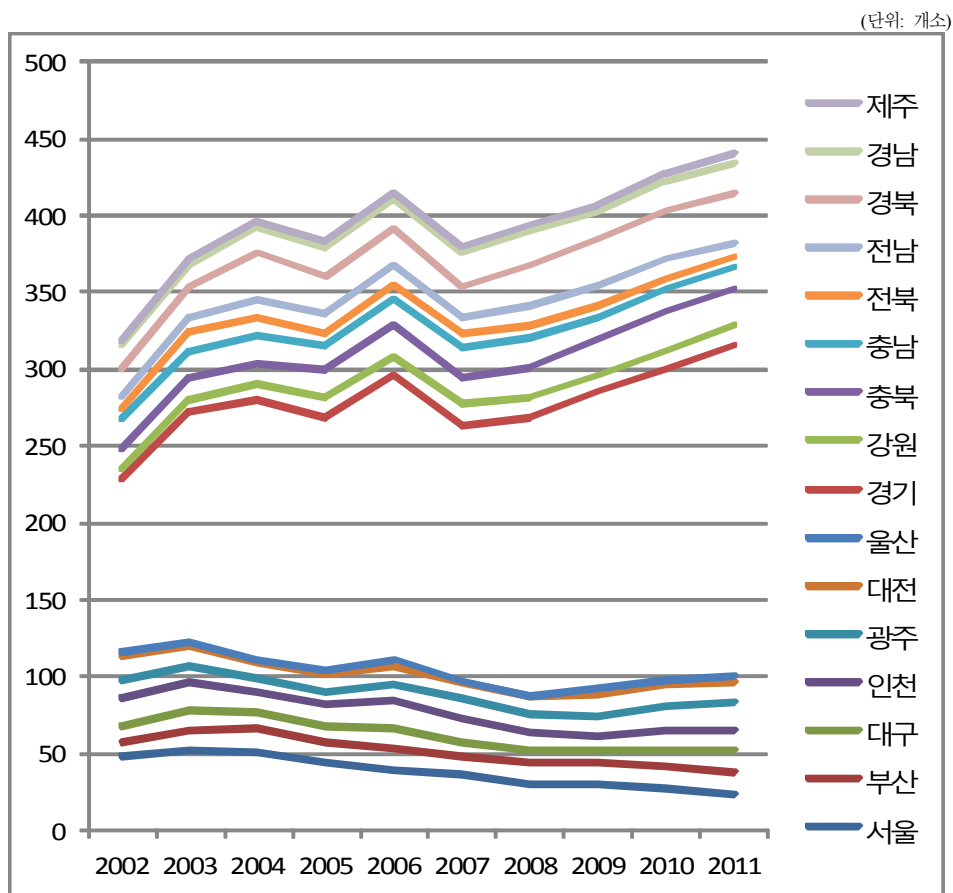
다.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그림 2-8]에는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그래프로 제시되어있다.

이 업종도 세척제제조업과 거의 동일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주로 6대 광역시에서는 2002년 대비 2011년 거의 증감현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업소수별로는 <부표 4-9>에 상세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그림 2-8]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4. 공중이용시설

<표 2-12>에는 공중이용시설의 연도별, 지역별 증감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2002년 대비 2011년에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북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산, 인천, 충북, 제주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2> 각 지역별 공중이용시설의 연도별 총괄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0,357	11,838	12,720	12,633	13,550	12,414	15,195	15,395	16,370	16,703
서울	4,920	5,031	5,175	5,434	5,744	4,781	6,677	6,929	7,244	7,450
부산	886	887	1,053	1,018	990	832	767	765	765	765
대구	191	633	633	657	720	342	442	448	449	449
인천	276	848	858	353	345	424	809	793	778	75
광주	255	255	305	893	895	661	665	553	498	510
대전	484	472	471	538	571	829	849	822	829	925
울산	155	247	256	148	142	125	142	142	143	197
경기	1,799	1,793	2,170	1,901	2,177	2,804	3,101	3,143	3,652	3,700
강원	182	278	310	307	305	304	289	289	346	352
충북	133	143	143	139	139	128	117	117	117	117
충남	133	90	131	131	174	127	120	164	195	196
전북	247	250	249	197	347	208	320	321	442	429
전남	141	174	182	176	176	137	123	148	150	146
경북	84	209	224	234	240	100	111	112	112	111
경남	441	405	429	454	453	587	641	623	624	625
제주	30	123	131	53	132	25	22	26	26	26

주: 공중이용시설은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도매시장, 지하상가, 결혼예식장, 실내체육시설의 현황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제3절 공중위생서비스분야 가계소비 지출현황

1. 공중위생분야

<표 2-13>에는 공중위생업종별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현황과 1990년 대비 2011년 증감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2-13〉 공중위생서비스 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90년 대비
가계지출(천원)	946.65	3,146.40	4,960.24	6,544.05	6,128.04	547.3%
소비지출(천원)	6,311.91	9,847.67	8,673.51	4,798.16	4,648.69	-26.4%
공중위생서비스 소계(원)	217,606.45	485,200.21	881,668.47	1,036,600.07	1,196,635.55	449.9%
- 숙박	100,475.12	151,085.10	209,861.98	101,912.36	115,325.91	14.8%
- 목욕	51,827.15	137,827.42	202,476.41	269,008.34	300,678.91	480.2%
- 이·미용	7,937.35	34,817.88	149,741.88	291,062.52	346,341.85	4,243.4%
- 기타 이·미용서비스	56,566.72	160,575.59	318,683.30	373,416.06	432,851.73	665.2%
- 세탁요금 등 (의복관련서비스)	800.11	894.22	904.91	1,200.79	1,437.15	79.6%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0-2011)』, 각 연도별 통계자료 재분석(가구별 연단위 지출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12.10).

전체 가계비가 1990년 대비 2011년에 547.3%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공중위생업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의 증가가 449.9% 포인트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이·미용 요금이 4,243.4%포인트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숙박비가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탁비도 증가폭이 79.6% 포인트로 낮게 나타났는데 숙박비의 경우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추세와 아니면 캠핑 등 새로운 숙박문화가 생기면서 기존 숙박업 사용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탁업의 경우는 신소재 섬유류의 탄생, 세탁세제의 발전 등으로 세탁업 이용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미용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는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 증대, 고가 화장품 판매 급증, 스파 등 신종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의 사회적 동향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가 판단되었다.

2. 외식 등 분야

<표 2-14>에는 공중위생업종별 가계소비 증감에 대한 결과를 타 분야와 비교하기 위하여 외식 등 식품분야 가계소비 지출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있다.

<표 2-14> 외식비 등 식품분야별 가계소비 지출현황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90년 대비
가계지출(천원)	946.65	3,146.40	4,960.24	6,544.05	6,128.04	547.3%
소비지출(천원)	6,311.91	9,847.67	8,673.51	4,798.16	4,648.69	-26.4%
식료품 및 외식비 등 소계(원)	7,557.65	96,576.09	197,997.70	339,436.65	369,942.96	4,794.9%
- 식료품비 및 비주류음료	1,239.53	3,013.92	3,277.21	2,235.32	2,054.73	65.8%
- 음식(외식비 등)	6,318.12	93,562.17	194,720.49	337,201.33	367,888.24	5722.8%

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90~2011)』, 각 연도별 통계자료 재분석(가구별 연단위 지출현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12.10).(데이터 분석예정)

공중위생업분야의 가계소비 증감비가 전체적으로 449.9% 포인트인데 비해 식료품 및 외식분야는 4,794.9% 포인트로 식품분야의 성장세가 공중위생분야에 약 10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제4절 외국의 공중위생분야 관리현황

1. 주요국의 관리 현황

이 절에서는 일본, 미국, 호주 등 주요국의 공중위생업종별 관리 현황에 대해 정리,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이·미용분야를 포함하여 주로 위생관리 측면의 현황 위주로 개진하고자 한다.

가. 일본

1) 숙박업 위생관리 매뉴얼

일본의 숙박업에 적용되는 위생관리 매뉴얼은 <표 2-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15〉 일본의 숙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업소내 모든 시설(접객실, 로비, 계단, 객실, 욕실, 물품창고 등)을 소독해야 하며, 영업을 하지 않은 시간에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은 살균소독, 살충소독, 구서 소독을 모두 실시한다.
- 소독약품은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소독에 대한 교육 및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위탁 소독을 하는 업소의 경우 외부 위탁 소독업체에게서 교육을 받거나 자체 교육하고, 자체소독을 하는 업소는 숙박업 중앙회를 통한 교육을 제공받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나 제품에 표기된 소독방법과 소독에 따른 주의사항을 숙지한다.
- 시트 및 타올 등은 비품 보관실에 보관하여 필요시 필요한 분량만 꺼내서 쓰도록 한다.
- 욕조수의 수질검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과 횟수에 맞춰 반드시 실시한다.
- 판매용 생수물과 정수기물을 사용하는 곳은 유통기한이 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업소내 실내 공간 청소시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 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하고 시설내 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 전에 비해 제품 사용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약 2~10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설에서 이러한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인다.
- 최대한 자주 환기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할 것을 권고한다.
- 중·장기적으로 실내 공간에 친환경 상품 사용과 신축건물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려 실내의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판매용 생수 물이나 정수기용 물에 대한 유통기한 규정이 있으며, 친환경 상품의 사용으로 실내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는 조항이 규정되어있으며, 환기, 전기시설에 누적된 먼지 제거 등과 실내의 스팀청소가 규정되어있다.

2) 목욕업 위생관리 매뉴얼

<표 2-16>에는 일본의 목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대여 의류관리 지침, 소독한 기구의 관리 방법, 피부질환자 관리 방법이 제시되어있다.

〈표 2-16〉 일본의 목욕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목욕장업내 전반 시설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화장실, 휴게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관리 한다.
- 소독약품은 보관창고에 반드시 보관해서 사용할 때마다 꺼내어 쓴다.
- 이·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는 기구를 반드시 분리 보관한다.
- 소독한 대의의류 및 수건은 전용보관 장소에 넣어 사용한 대의의류 및 수건과 분리 보관한다.
- 대의의류는 발판이나 걸레 등 불결한 세탁물과 분리하여 수거·세탁한다.
- 세탁을 할 때에는 9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삶아서 세탁한다.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건조되지 않은 눅눅한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쌓아두지 않는다.
- 세탁을 한 의류는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세탁한 의류는 장시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세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의류는 다시 세탁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한다.
- 세탁물을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 피부질환이 있는 이용자들의 대의의류 이용 자제를 위하여 찜질방 이용자들이 개인의류를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 업소내 실내 공간 청소시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하고 시설내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 전에 비해 제품 사용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약 2~10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설에서 이러한 전기·전자 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자주 환기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할 것을 권고한다.
- 소독에 대한 교육 및 건강상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은 목욕업 중앙회를 통한 교육

을 제공받거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실내 공간에 친환경 상품 사용과 신축건물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려 실내의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환기에 대한 주의사항,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상품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3) 세탁업 위생관리 매뉴얼

<표 2-17>에는 일본 세탁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업소환경 청결, 보호의복 및 장비, 개인위생, 유해물질 관리, 대체세탁 및 대체 세제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있다.

특히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식품종사자 못지 않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누 세척과 물기 제거 등을 꼼꼼이 권하고 있었다. 또한 향후 석유계 세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세탁과 대체 세제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규정되어있다.

<표 2-17> 일본 세탁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업소환경 청결

- 업소 내 실내 공간 청소시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 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하고 시설내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 현관문을 수시로 열어 최대한 자주 환기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

할 것을 권고한다.

- 유기용제, 세정제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제품은 업소내 보관을 자체하고 창고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호의복 및 보호장비

- 세탁작업을 할 때,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 제품 라벨에 있는 고무장갑 및 그 외 다른 보호장비를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작업장을 청소하거나 화학제품(약품)을 다룰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일회용 장갑과 앞치마는 물질이 쏟아지거나 흘러서 오염이 된 품목을 다룰 때 항상 착용해야 한다.
- 보호안경은 화학제품을 사용하거나 자동투입 용기를 교체할 때 반드시 착용한다.
- 마스크는 회전식 건조기에 달린 보푸라기 거들망을 청소하거나 경고문구 표지가 있는 화학제품(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착용한다.

○ 개인 위생

- 적정수준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세탁업 종사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 세탁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 * 장갑을 벗은 후에
 - * 청소를 마친 후에
 - * 사용했고, 오염됐거나 또는 악취가 나는 세탁물을 만진 후에
 - * 젖어있거나 건조된 깨끗한 세탁물을 만지기 전에
 - * 휴식을 취하기 전에
 - * 흐르는 물이 손을 씻는다.
- 가능한다면, 비누(물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약 10~15초 동안 손을 구석구석 씻고, 손의 모든 부위에 물을 묻히고 아래에

예시된 대로 여선 단계 방법으로 손을 씻는다.

- 일회용 페이퍼 타올이나 깨끗한 수건으로 구석구석 말린다.
- 티월을 버릴 때 손이 다시 더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 유해물질 관리

-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 사용한 용제는 유해 폐기물 처리소에 보내 회복, 처분한다.
- 석유용제는 인화점이 높거나 휘발성이 낮은 유기화합물(lower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 퍼크용제는 필터회복 기구를 설치하고, 반고체 처리기(muck cooker)를 설치해서 용제를 좀 더 회복한다.
- 카트리지 필터를 회전 디스크 필터로 대체하여 퍼크 용제에서 쉽게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줄인다.
- TCA 용제는 필터 회복 기구를 설치한다.
- TCA 용제는 카트리지 필터를 회전 디스크 필터(spin disk filters)로 대체하여 쉽게 방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인다.
-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장비 및 제품(약제)만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체 세탁 및 대체 세제

-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석유용제를 사용하는 세탁 방법을 대신하는 대체 세탁방법이나 석유 용제를 사용하지 않은 대체 세제제를 사용해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한다. 대체 세탁방법 및 대체세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습식 세탁 (Wet Cleaning): 습식 또는 물세탁은 통상적으로 “드라이크리닝 세탁”이 되는 의류를 세탁하기 위해 온도와 교반수치를 통제하는 정교하고 컴퓨터화된 기계에서 물과 특수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습식 세탁은 전문 세탁인

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습식세탁에 알맞은 의류는 면, 울, 실크, 가죽, 스웨이드, 웨딩드레스와 구슬과 금속으로 장식한 의류이다. 세탁업자와 고객 모두 기능할 때마다 이 세탁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습식 세탁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100% 습식세탁을 하는 업소에서는 습식 세탁과 관련된 규제 부담 또한 없다. 많은 세탁업자들이 나중에 전통 용제 세탁방식에서 탈피하길 바라며 퍼크나 석유 세탁법과 같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 이산화 탄소(Carbon Dioxide: CO₂): 이산화 탄소 드라이크리닝은 임계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한 세탁처리를 상업적 및 소매 드라이 크리닝 업자가 개발한 방법이다. 이산화탄소는 비가연성, 무독성, 무색, 무취, 무맛으로 압력을 받았을 때, 액화용제가 되는 기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의류 세탁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산화 탄소는 때때로 현재 운영되는 업소에서 나오는 산업 부산물이다. 이산화 탄소 세탁법과 관련된 규제 부담은 퍼크 세탁법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 reon Earth: 이 드라이크리닝 방법은 액상 실리콘 (decamethyl cyclopentasiloxane 또는 D5)을 사용한다. D5 용제는 화학적으로 비활성 상태라서 옷감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세탁과정 동안 염색이 된다. D5는 무취이며 옷감에 화학제품(약품) 냄새를 남기지 않는다. 표면장력이 낮아 섬유를 빠르게 적시게 한다. 물에 가까운 밀도와 결합되어 적절한 기계작용으로 용해되지 않는 오염물을 제거한다. 퍼크용제와 비교해, 규제 부담은 캔자스에서 낮고, 석유용제와
- 규제부담이 비슷하게 적용된다.
- DF-2000 (Dry-cleaning Fluid-2000): DF-2000은 140도 이상의 가연한점이 140도 이상의 인화점을 가진 탄화수소 용제이다. 이 용제는 안전하고 효과적 이고 무취의 세탁을 할 수 있고 세정력은 퍼크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한다.

4) 미용업 위생관리 지침

<표 2-18>에는 일본의 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피부에 접하는 기구의 소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으며, 그 외에 대기실과 작업실의 구분, 종사자 건강관리, 업소내 청결 및 소독약 교환 등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2-18〉 일본의 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시설내는 매일 청소하고 청결하게 정리정돈 상태
 - 바닥의 모발은 손님마다 청소하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수집
 - 화장실도 매일 청소하고 악취가 없도록 청결히 유지
 - 시설 안에는 함부로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들이지 않도록 함.
 - 적절한 채광·조명·환기 상태유지
 - 조명기구는 정기적으로 청소
- 소독약의 교환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매일, 에탄올 소독약은 증발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하고 희석해서 만든 소독약은 1일 1회 이상 그 외의 것은 1주일에 1회 이상 교환
 - 소독용 에탄올과 같이 화기를 염급하는 소독액도 있으니 취급, 보관에 주의하고 소독약은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꺼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
 -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 피부에 접하는 기구의 소독
 - 자외선조사 20분 이상
 - 끓기 시작한 후 2분 이상 끓임

- 8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쪄일 것
- 에탄올수용액 (76.9~81.4%)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함유 하는 솜(면 :綿)등으로 닦을 것
- 차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76.9~81.4%)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역성비누수용액 (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글루콘산 Chlorhexidine 수용액 (0.05%)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양성계면활성제수용액(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면도칼·가위·빗·머리술 등은 손님마다 세정하고 적정하게 소독된 것 사용함.
- 천류는 청결히 유지하고 손님 마다 교환
 - 타올, 넥크 페이퍼 등은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한 손님 마다 교환
- 작업실과 대기 장소의 구별
 - 작업실에 작업 중인 손님 이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않기 위하여 작업실과 작업 전 손님을 대기시키는 대기하는 장소는 명확히 구획할 것
- 청결한 작업복,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
 - 백색 기타 오염이 쉽게 눈에 띄는 색의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
 - 안면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
- 영업주 및 관리 미용사는 항상 종사자의 건강관리에 주의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시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전염할 위험이 있는 질환에 감염되어 있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주의
- 신고·종사자나 시설의 구조설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

5) 이·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표 2-19>에는 일본의 이·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화학제품 관리, 개인보호 장비, 환기, 위생, 도구 소독 등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위생관리 방법이 제시되어있다.

<표 2-19> 일본의 이·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화학제품(약품) 관리

- 포름알데히드,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루엔디아민, 글리세릴 모노티오글리콜레이트, 싸이오글리콜산 등과 같은 유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 사용하는 모든 화학제품(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직원의 화학제품(약품) 및 개인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적절한 안내, 교육 및 감독이 제공되어야 한다.
- 화학제품(약품)은 전기 차단기와 같은 에너지 장치, 화기, 고온 그리고 강한 조명이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가연성이 있는 화학제품(약품)은 안전 잠금 장치가 설치된 불연소성의 보관함에 넣어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화학제품(약품)에 대한 흡수력을 가진 도구가 구비되어 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화학제품(약품)을 쏟았을 때는 즉시 청소를 한다. 쏟아진 화학제품(약품)과 약품을 청소하는데 사용된 장비는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일정량을 덜어서 써야 하는 대용량의 화학제품(약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량 포장된 화학제품(약품)을 구매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장비 및 제품(약제)만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취급 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화학제품(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 중성(PH)의 비누로 손을 씻은 후, 음식을 섭취한다.

○ 개인용 보호 장비

- 암모니움 싸이클리콜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파마약을 사용할 때는 니켈로 도금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좋은 품질의 스틸 또는 플라스틱 장비를 사용한다.
- 시술 시, 장갑, 안경, 앞치마, 마스크 등의 안전 보호 장치 등을 착용한다.
- 개인용보호장비의 알맞은 착용, 유지 및 사용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 피부 자극이 있을 시, 노출된 피부에 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방수기능이 있는 붕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보호하도록 교육한다.
- 화학제품(약품)이 튈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안경과 신발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 환기

- 파마, 염색 등의 작업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환기시설을 잘 갖춘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냉, 난방 공기 조절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기 보다는 희석시키고, 또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을 순환시킨다.
- 가능하면 국부배기장치도 설치한다.
-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한다.

○ 위생

- 벽, 바닥, 마루갈래, 부속품, 가구와 도구들은 반드시 청결해야 하며 손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업소환경은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소 시 실내에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시설 내 가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

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 헤어핀이나 다른 폐기물들은 손님이 나간 후 가능하면 신속하게 딱 맞는 뚜껑이 있어 물이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통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 이·미용사와 다른 스텝들이 사용할 종이수건과 물비누를 항상 갖춰야 한다.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하기 전에 물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할 때는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깨끗한 의상을 입고 있어야 한다.
- 이·미용사는 손님이 떠난 후, 반드시 손님이 있었을 동안 사용한 오염된 모든 종이 수건을 폐기한다.
- 이·미용사는 손님에게 사용하는 용품은 반드시 세척했던 수건, 목 보호대, 또는 유사한 물건만 사용할 수 있다.
- 이·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이·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물비누, 면도용 크림이나 면도용 파우더만을 사용해야 한다.
- 이·미용사는 손님에게 회전식 빗을 사용해선 안 되며, 손님의 피부에 스펀지, 파우더 퍼프나를 사용해선 안 된다.
- 만약 한 사람이 출혈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출혈이 멈출 때까지 건조 살균한 1회용 붕대로 상처부위를 압박한다.
- 오염된 붕대나 도구를 다룬 사람은 반드시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한다.

○ 도구 소독

- 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는 개별 개수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영업 중에 사용했던 가장 큰 도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커야 한다.
- 영업시간 중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도구는 선반에 보관해둬선 절대로 안 된다.
- 도구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 도구는 이전의 세척 및 소독 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선 안 된다.
- 세척된 도구들은 자외선(UV) 보관함에 보관한다.
- 면도기는 칼날이 긴 재래식 면도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일반 면도기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 면도기를 해체한다.
 - * 면도날은 사용 후, 준수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 면도기 몸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 * 따뜻한 물에 행군다.
 - * 따뜻한 물에 씻는다.
 - * 뜨거운 물에 행군다. (최저 75°C)
 - * 철저히 건조시킨다
 - * 면도기 몸체를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닦는다.
 - * 건조보관한다.
- 붕대와 도구는 반드시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 도구는 반드시 폐기하거나 오염제거세척방식을 사용해 반드시 세척한다.

6) 네일업 위생관리 매뉴얼

<표 2-20>에는 일본의 네일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화학제품(약품) 사용 및 관리, 환기, 개인보호 장비, 업소청결 방법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매뉴얼이 제시되어있다.

<표 2-20> 일본의 네일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화학제품(약품) 사용 및 관리
 -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단위체 (액상)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 네일 제품은 매우 강한 휘발성 물질이므로 네일업소 내에선 반드시 금연한다.
 - 사용하는 모든 화학제품(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위험상황으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적어도 1년에 1번씩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가장 최신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없이 배달된 제품이 있다면 매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제조사에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한 사용 장비 및 제품(약제)만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취급 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휘발성 액체들의 적절한 보관과 취급방법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 및 훈련시킨다.
 - 제품용기에 쓰여있는 제조자 지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 따라 액체 쓰레기를 폐기한다.
 - 손톱 손질 시 일어날 수 있는 직원 및 손님의 눈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톱의 손질이 투명한 스크린과 같은 보호기구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입구의 크기가 작고(작업용 브러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네일 용액의 증발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압력에 민감한 마개가 달린 디스펜서 병을 사용한다.
- 냄새가 적은 또는 무향의 제품을 환기 시설을 갖춘 곳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 필요한 양만의 네일 용액을 닫혀있는 디스펜서 병에 덜어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 제품의 사용 후, 즉시 제품이 들어있는 용기를 닫는다.
- 이크릴 같은 휘발성이 있는 화학 약품은 뚜껑에 구멍이 있는 대폰디시(dappen dish)를 사용한다.
- 직원이 사용한 더러운 붓을 테이블용 타월을 사용해서 닦지 않고, 흡수력이 좋은 종이 타월을 사용해서 닦는다.
- 사용한 종이 타월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뚜껑이 있는 쓰레기 통에 버리도록 한다. 쓰레기통을 하루에 여러 번 자주 비움으로써 증기로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 가연성이 높은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직원 또는 손님이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지 않도록 지시한다.
- 오일 버너를 네일 제품 가까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직원의 화학제품(약품) 및 개인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적절한 안내, 교육 및 감독이 제공되어야 한다.
- 화학제품(약품)은 전기 차단기와 같은 에너지 장치, 화기, 고온 그리고 강한 조명이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는다.
- 가연성이 있는 화학제품(약품)은 안전 잠금 장치가 설치된 불연소성의 보관함에 넣어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화학제품(약품)을 쏟았을 때는 즉시 청소를 해야 하며, 쏟아진 화학제품(약품)과 약품을 청소하는데 사용된 장비는 적절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 일정량을 덜어서 써야 하는 대용량의 화학제품(약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량 포장된 화학제품(약품)을 구매한다.
- 화학제품(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 네일케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동안에는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한다.
- 작업시 내용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작업 테이블에선 내용물을 정확히 표기한 작은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 작업시 제품을 대형 용기에서 직접 덜어 사용하지 말고 내용물을 잘 표기한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아 사용한다. 제품을 작은 용기에 담을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눈 보호대나 장갑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엮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칼대거나 스포이드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 모든 쓰레기는 뚜껑이 자동으로 닫히는 철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준다.
- 종이타올, 거즈, 솜이나 그 외에 용매제를 닦은 쓰레기들은 먼저 밀폐된 용기 (빈 플라스틱, 우유통, 다시 봉할 수 있는 봉지)에 넣은 다음 쓰레기통에 버린다.
- 쓰레기통 안의 봉지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갈아야 한다.

○ 환기

- 작업 공간 가까이 배기 환풍 장치를 설치한다. 네일업소에서는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i. 외부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배기 환풍장치가 부착된 작업 테이블
 - ii. 배기구가 천정이나 벽에 고정되어 작업 테이블 위에 매달려 있는 배기장치
 - iii.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오존 발생 장치가 있는 공기청정제품은 피한다.
 - v. 숯이나 먼지 여과 장치(필터)는 생산자가 지시한 사용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교환한다. 제때 교환되지 않은 여과장치는 더 이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 환풍장치가 되어 있는 작업 테이블 위에는 수건과 같은 장애물을 두지 않는다.
- 제품을 옮기는 일은 바깥 또는 열려있는 창문이나 문 근처와 같이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 개인용 보호 장비

- 개인용보호장비의 알맞은 착용, 유지 및 사용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한다.
- 피부 자극이 있을 시, 노출된 피부에 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방수기능이 있는 붕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보호하도록 교육한다.
- 화학제품(약품)이 튈 경우를 대비하여, 안구 보호장치와 신발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 직원이 아크릴로 만들어진 인조 손톱을 다듬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쓰도록 지시한다. (단 이러한 마스크는 화학제품(약품)의 증기로부터는 보호하지 못한다)
- 화학제품(약품) 또는 손톱의 파편, 아크릴 먼지 및 조각 등이 눈에 튀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안구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한다.
- 콘택트 렌즈 착용 시, 안전 고글 또는 안경을 사용하거나, 콘택트 렌즈 대신 측면 보호장치가 있는 안전 안경을 사용하도록 한다.
- 특정한 제품을 다룰 때에는 일회용 니트릴 장갑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제시한 알맞은 장갑을 착용한다.
- 장갑이 찢리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흔적이 보이면 즉시 새것으로 바꾸어 착용한다.
- 옆지르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느슨하거나 험렁한 하지 않고 제품 성분에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피부를 적절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복장을 입는다. 예) 긴 소매 블라우스나 작업복(팔 보호), 앉았을 때 무릎아래까지 내려오는 바지나 치마(허벅지 보호)

○ 업소청결 방법

- 작업 전과 후, 식사 전, 제품을 다루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각 고객에게 새 수건을 사용한다.
- 자신의 손과 고객의 손과 발을 관리 때마다 씻는다.
- 건강한 네일과 상처가 없는 깨끗한 피부에만 네일관리를 한다. 감염 및 상처와 염증으로 피부가 건강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네일케어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 매 사용 후, 소독 전에 네일관리 용구들에 남아 있는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 각 고객에게 사용한 네일관리 용구들을 살균제로 소독한다.

- 고객의 발을 살균제가 들어있는 물에 담그지 않아야 하며 살균제와 피부의 접촉을 피한다.
- 일회용 용구는 한 고객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 장갑은 고객마다 다른 것으로 바꿔 착용한다.
-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네일 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은 자신의 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살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용구는 사용 전 네일 관리사들이 깨끗하게 살균해야 한다.
- 청소시, 실내공간에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하고 시설내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스팀 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7)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표 2-21>에는 일본의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대여 의류관리 지침, 소독한 기구의 관리 방법, 피부질환자 관리 방법이 제시되어있다.

<표 2-21> 일본의 피부미용업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

- 스파츨러, 화장용 브러쉬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한다.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 (최저 75℃)에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 소독한 도구들은 건조보관한다.

- 시술 전 후로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업소내 실내 공간 청소시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 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하고 시설내 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 벽이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제품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문이 있어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보관함 등의 누적된 먼지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 전가·전자 제품의 경우 제품 사용 전에 비해 제품 사용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이 약 2~10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설에서 이러한 전가·전자 제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자주 환기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 시간 가동할 것을 권고한다.
- 실내 공간에 친환경 상품 사용과 신축건물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 위해 물질 위험(위해성) 평가에 따라, 장갑, 안경, 앞치마 그리고 호흡기관 안전 보호 장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에서 찾을 수 있다.
- 개인용보호장비의 알맞은 착용, 유지 및 사용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한다.
- 피부 자극이 있을 시, 노출된 피부에 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직원을 교육한다.
-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방수기능이 있는 붕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보호하도록 교육한다.

나. 호주

1) 호주의 이·미용업과 네일업의 안전보건 지침서 (Health Safety Guide for the Hairdressing, Nail, and Beauty Industry)

가) 유해물질 및 보호 장비 관리지침

<표 2-22>에는 호주의 유해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 내용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화학약품의 보관 방법, 화학약품 보관 장소 관리 방법, 개인별 맞춤형 보호 장비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2-22> 호주의 유해물질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

- 직원의 화학약품 및 개인용보호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적절한 안내, 교육 및 감독이 제공되어야 함.
- 화학약품은 전기 차단기와 같은 에너지 장치, 화기, 고온 그리고 강한 조명과 같은 것에서 먼 장소에 보관해야 함.
- 가연성이 있는 화학약품은 안전 잠금 장치가 설치된 불연소성의 캐비닛에 넣어 시원한 곳에 보관해야 함.
- 화학약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함
- 화학약품을 쏟았을 때는 즉시 청소를 해야 함.
- 일정량을 덜어서 써야 하는 대용량의 화학약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량 포장된 화학약품을 구매 함.
- 화학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음.
- 개인용보호장비의 알맞은 착용, 유지 및 사용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 함.
- 피부 자극이 있을 시, 노출된 피부에 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직원을 교육함.
- 피부에 상처가 있을 시, 방수기능이 있는 붕대를 사용하여 상처를 보호하도록 교육함.

- 화학약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안구 보호장치와 신발 보호장치를 사용하도록 직원을 교육함.
- 위에 제시된 방법외, 다른 관리 방법 역시 각각의 산업에 맞게 적용되어야 함.

나) 위생

<표 2-23>에는 호주의 이·미용업의 위생관리 매뉴얼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위생적 측면에서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손과 의류의 청결, 미용사의 질병 관리, 면도용 물 및 비누 관리 등으로 이에 대해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표 2-23> 호주의 이·미용업의 위생분야 관리 지침

- 손과 의류의 청결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하기 전에 물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함.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할 때는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깨끗한 의상을 입고 있어야 함.
- 간염상태에 놓인 미용사
 - 아미용의 결과 (백선, 음, 이 및 농가진 포함) 다른 이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미용사는 전염시키지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정기 세척
 - 이·미용사는 손님이 떠난 후, 반드시 손님이 있었을 동안 사용한 오염된 모든 종이 수건을 폐기 함.
- 재사용할 수 있는 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용사는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세척했던 재사용 가능한 얼굴 수건, 목 보호대, 목도리 또는 유사한 물건만 사용할 수 있음. - 면도용 깨끗한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함. - 면도용 비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물비누, 면도용 크림이나 면도용 파우더만을 사용해야 함. - 회전식 빗, 스펀지, 파우더 퍼프, 네모난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손님에게 회전식 빗을 사용해선 안 되며, 손님의 피부에 스펀지, 파우더 퍼프나 사각형으로 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다) 도구

<표 2-24>에는 호주의 이·미용업분야의 도구 관리지침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미용사의 도구 세척과 오염제거 의무와 일반적 세척과 소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표 2-24> 호주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용사는 도구의 세척과 오염제거를 위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 - 일반적 세척과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완전히 담근 도구는 (가위, 고리, 솔 및 빗 포함한) 반드시 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물에 완전히 담그지 않은 도구는 (전자 면도기나 가위) 반드시 비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사용시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도구는 반드시 오염제거 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 이 규칙에 따라서, 도구는 이전의 세척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선 안 됨.
- 도구는 반드시 살균제에 보관되어선 안 됨.
- 자외선(UV) 캐비닛은 이 규칙에 따라 세척된 도구들 보관 장소로만 쓰임.

다. 미국

1) 미국 버지니아주의 이·미용 관리지침서 (Virginia Department of Professional and Occupational Regulation)

가) 기구 소독 및 보관

<표 2-25>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이·미용업 관리지침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이·미용사의 도구 세척과 오염제거 의무와 일반적 세척과 소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표 2-25> 미국 이·미용업의 도구 관리 지침

- 모든 이·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를 갖추어야 함.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 소독용액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것으로 반드시 결핵멸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독방법은 다음과 같음.
 - 소독할 물건에 붙은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함.
 - 뜨거운 물과 비누로 물건을 깨끗이 닦음.

- 맑은 물로 충분히 행구고 깨끗한 종이타월로 꼼꼼하게 말림.
- 용액에 기구를 완전히 담근 후, 기구를 행군 다음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꼼꼼하게 건조시키고 나서 미리 소독된 건조보관함이나 밀폐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 보관 함.
- 충전이 가능한 전자 도구 (클리퍼 등)는 밀폐된 보관함이 아닌 곳에 보관 함
- 보관 구역은 청결해야 하고 칼날부분은 소독해야 한다. 전자 클리퍼 칼날은 매 사용 전후로 소독해야 함.
- 소독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 함.
 - 칼날을 제거하고 칼날 아래에 있는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 함.
 - 칼날을 10분 정도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에 담가 놓음.
 - 클리퍼 칼날을 제거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 지시서에 따라서, 미국 환경 보호청에 등록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이라면 스프레이나 폼형태로 된 소독제를 사용함.

2. 주요국의 위생관리 행정처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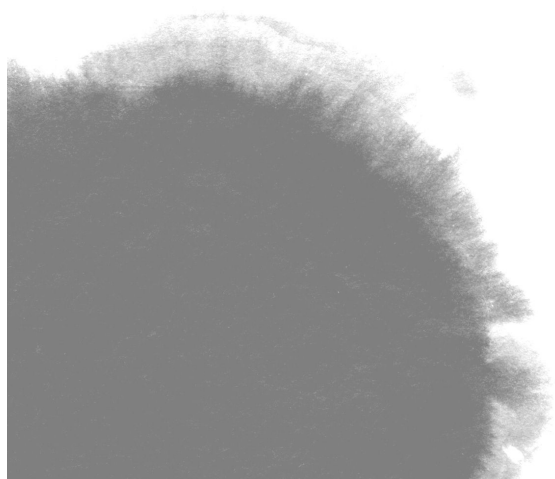
주요국,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우리나라와 같은 행정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업장폐쇄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업소폐쇄가 아니고 종사자의 전염병 보균시 소비자에게 전파위험이 있어 조치주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조치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업소폐쇄를 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업소, 공무원, 소비자는 위생지침 등에 명시된 규정은 상호 반드시 신의성실에 의해 지켜지고 있고, 법적처벌이 필요할때에는 사법부에 이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지 위생분야 공무원이 업소처벌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장

KI
HA
SA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



제3장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및 분석

제1 절 조사계획

1. 조사목적

2012년 현재 지자체의 공중위생 관리 능력을 분석하여 향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16개 시도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현재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가. 조사대상자

<표 3-1>에는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를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16개 시도와 263개 기초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를 조사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 대표 작성자 1인과 각 지자체에서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였다.

〈표 3-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인식조사 등 조사대상

구분		조사 대상	조사 목표
인프라	광역시(시도)	시·도 담당자 대표 1인	시·도 담당자 각 1인 (16명)
	기초(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대표 1인	시·군·구 담당자 각 1인 (약 263명)
만족도 및 인식조사		시·도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시·군·구 관련업무 담당자 전수	조사이전 목표대상 현황 파악불가

나. 조사대상 지역

〈표 3-2〉에는 2012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공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으로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지역이 제시되어있다.

16개 광역지자체와 263개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있다.

〈표 3-2〉 조사대상 행정구역

구분		계	시·군·구				행정시·자치구가 아닌구 ¹⁾	
			소계	시	군	구	시	구
계 (16개 시도)		263	228	74	85	69	2	33
특별시	서울	25	25	0	0	25	0	0
	부산	16	16	0	1	15	0	0
광역시	대구	8	8	0	1	7	0	0
	인천	10	10	0	2	8	0	0
	광주	5	5	0	0	5	0	0
	대전	5	5	0	0	5	0	0
	울산	5	5	0	1	4	0	0
	경기	51	31	27	4	0	0	20
도	강원	18	18	7	11	0	0	0
	충북	14	12	3	9	0	0	2
	충남	18	16	8	8	0	0	2
	전북	16	14	6	8	0	0	2
	전남	22	22	5	17	0	0	0
	경북	25	23	10	13	0	0	2
	경남	23	18	8	10	0	0	5
특별자치도	제주	2	0	0	0	0	2	0

주: 2012년 1월 1일자 전국 행정구역 현황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전 현황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자료(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2.03.08.)

3. 조사개요

<표 3-3>에는 이번 연구에서 조사된 지자체 인프라 실태 조사와 담당자 인식조사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7월 25일부터 9월 28일까 2개월간 인터넷의 온라인 웹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는 인프라 조사나 인식조사나 현재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프라 조사의 경우 광역지자체는 응답률 100%를 달성한 반면에 기초 지자체는 55개소만 조사에 참여하여 22.9%의 응답률을 보였다.(표 3-4 참조)

〈표 3-3〉 공중위생인프라 및 업무만족도 등 인식도 조사개요

조사구분	인프라 실태조사	업무만족도 등 인식조사
조사지역 및 대상	전국 16개 시도 및 263개 시군구 전수	전국 16개 시도 및 263개 시군구에서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 전수
조사기간	2012.07.25~2012.09.28 (약 2개월간)	2012.07.25~2012.09.28 (약2개월간)
조사기관	리서치중앙	리서치중앙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온라인 웹조사
표본추출	전수조사	전수조사
조사규모	16개 시·도 / 263개 시·군·구	사전 확인불가 (최소 279명 이상 대상)
응답규모 (응답율)	시·도: 16개 시도 (100.0%) 시·군·구: 28개소 (10.6%)	237명 (-)
조사내용	업소, 예산, 행정, 인력, 조직, 조직중복, 전문성, 직급별, 성별, 연령별, 학력, 근무기간, 공중위생업무담당기간, 업무중복, 담당업무 등	행정, 조직, 직위, 직급, 전문성,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업무중복, 담당업무, 전문성, 업무정도, 불만사항, 발전가능성, 관리필요성, 관리대상업종, 관리제외업종, 관리대상 신종업종, 민원, 최근현안, 애로사항, 기타의견 등

- 1) 행정시·자치구가 아닌구: 우리나라의 구(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 즉 자치구(自治區)와 자치구가 아닌 구, 즉 행정구(行政區)로 구분되는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이상의 시 (도시계획 관련 법규에서는 대도시라 칭하기도 함)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행정구는 흔히 '자치구를 아닌 구'라고 칭하며 행정상 자치권이 없고 다만 자치시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 있는 구는 모두 자치구가 아닌 구, 즉 행정구에 해당한다.

〈표 3-4〉 기초(시·군·구) 공중위생 인프라 실태조사 응답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조사대상 지자체	응답 지자체	응답율	시·군·구			
					소계	시	군	구
계		263	28	10.6	28	7	6	15
특별시	서 울	25	2	8.0	2	-	-	2
광역시	부 산	16	-	-	-	-	-	-
	대 구	8	1	12.5	1	-	1	-
	인 천	10	1	10.0	1	-	-	1
	광 주	5	4	80.0	4	-	-	4
	대 전	5	3	60.0	3	-	-	3
	울 산	5	2	40.0	2	-	-	2
도	경 기	51	3	5.9	3	-	-	3
	강 원	18	2	11.1	2	1	1	-
	충 북	14	-	-	-	-	-	-
	충 남	18	4	22.2	4	2	2	-
	전 북	16	1	6.3	1	-	1	-
	전 남	22	1	4.5	1	1	-	-
	경 북	25	2	8.0	2	1	1	-
	경 남	23	1	4.3	1	1	-	-
특별자치도	제 주	2	1	50.0	1	1	-	-

주: 2012년 1월 1일자 전국 행정구역 현황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전 분류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자료(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2.03.08)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하였으나 응답현황은 다소 저조하였음.

제2절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1. 광역지자체의 총괄 현황

가. 인구 및 업소

<표 3-5>에는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자, 지역인 우리나라 행정구분에 대한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3-5〉 광역 지자체의 인구, 면적 및 업소 현황

(단위: 명, km², 개소)

구분		주민등록 인구수	면적	업소 현황			
				계	공중위생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 시설
합계		50,734,284	100,221.78	219,068	190,557	11,808	16,703
특별시	서울	10,249,679	605.21	43,365	33,165	2,750	7,450
광역시	부산	3,550,963	768.43	16,771	15,223	783	765
	대구	2,507,271	883.68	11,022	10,104	469	449
	인천	2,801,274	1,032.41	10,379	9,206	468	705
	광주	1,463,464	501.24	7,497	6,607	380	510
	대전	1,515,603	539.97	7,299	5,917	457	925
	울산	1,135,494	1,060.00	5,012	4,548	267	197
광역시	평균	2,162,344.8	797.62	9,663.3	8,600.8	470.7	591.8
도	경기	11,937,415	10,170.01	42,637	36,394	2,543	3,700
	강원	1,536,448	16,866.39	8,728	7,955	421	352
	충북	1,562,903	7,433.26	6,697	6,218	362	117
	충남	2,101,284	8,629.92	9,479	8,841	442	196
	전북	1,874,031	8,067.23	8,973	8,048	496	429
	전남	1,914,339	12,252.46	9,458	8,836	476	146
	경북	2,699,195	19,029.56	13,188	12,410	667	111
	경남	3,308,765	10,533.16	15,243	13,923	695	625
특별 자치도	제주	576,156	1,848.85	3,320	3,162	132	26
도 평균		3,056,726.2	10,536.76	13,080.3	11,754.1	692.7	633.6

주: 인구, 면적 및 관련 업소수 현황은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입력의 오류가 많아서 행정안전부(2012.01.01자 기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2012년 1월 1일자 전국 행정구역 현황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전 현황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자료(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2.03.08)

주민등록인구수는 총 50,734,28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천백만명, 서울시가 천만명정도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업소별로 살펴봐도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서울시에 33,165개소, 경기도에 36,394개소가 있어 전체 190,557개소의 30% 이상이 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밀도보다는 업소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표 3-6>에는 16개 광역지자체별 조직, 예산과 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어디에도 공중위생이란 조직명은 없다. 서울시가 10월 조직개편 전까지는 공중위생과로 조직이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나마 해당과가 없어지고 말았다. 대부분 식품안전과나 보건위생과에 업무가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드물게는 사회복지과에 공중위생업무가 포함되어있었다.

공중위생분야 예산은 각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총 예산 대비 공중위생 예산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은 10.9%로 나타났다. 인력을 보면 평균 기초 지자체가 1.8명으로 3.3명의 광역지자체보다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세부적으로는 대구, 광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산도 인력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3-6〉 광역지자체의 인력, 조직 등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조직(부서명)	예산		인력	
			부서 총예산	공중 총예산	부서 총인력	공중 총인력
합계		-	1,361,842,621	52,433,308	348	38
특별시	서울	식품안전과	1,153,530,590	51,320,000	21	2
광역시	부산	보건위생과	24,760,563	107,784	42	3
	대구	식품안전과	862,835	146,400	19	5
	인천	위생정책과	3,363,949	100,370	22	4
	광주	식품안전과	465,407	195,405	15	5
	대전	식품안전과	481,379	154,329	12	2
	울산	보건위생과	18,589,622	65,650	25	1
광역시 평균		-	8,087,293	128,323	22.5	3.3
도	경기	식품안전과	1,083,650	50,000	15	1
	강원	식품의약과	20,925,659	30,000	19	1
	충북	식품의약품안전과	3,120,995	53,200	14	2
	충남	식의약안전과	17,043,257	7,556	38	2
	전북	건강안전과	54,707,266	30,480	18	3
	전남	사회복지과	33,718,514	63,034	28	4
	경북	식의약품안전과	1,017,000	94,100	17	1
	경남	식품의약과	19,881,606	0	25	1
특별자치 도	제주	보건위생과	8,290,329	15,000	18	1
도 평균		-	17,754,253	38,152	21.3	1.8

주: 인구, 면적 및 관련 업소수 현황은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입력의 오류가 많아서 행정안전부(2012.01.01자 기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2012년 1월 1일자 전국 행정구역 현황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전 현황임.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자료(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2012.03.08)

2. 광역지자체의 세부 현황

가. 예산

<표 3-7>에는 광역지자체별 예산 세부내역이 분석되어있다.

〈표 3-7〉 광역지자체의 예산 세부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총 예산	소속부서 예산	공중분야 예산	공중분야 예산비율(%)	
					전체대비	부서대비
합계		92,146,377,750	1,361,842,621	52,433,308	0.057	3.85
특별시	서울	20,230,417,677	1,153,530,590	51,320,000	0.254	4.45
광역시	부산	6,959,887,820	24,760,563	107,784	0.002	0.44
	대구	5,077,600,000	862,835	146,400	0.003	16.97
	인천	6,563,715,763	3,363,949	100,370	0.002	2.98
	광주	3,502,823,284	465,407	195,405	0.006	41.99
	대전	2,911,992,000	481,379	154,329	0.005	32.10
	울산	2,486,944,932	18,589,622	65,650	0.003	0.35
광역시 평균		4,583,827,300	8,087,293	128,323	0.003	1.59
도	경기	12,076,227,925	1,083,650	50,000	0.000	4.61
	강원	3,124,223,000	20,925,659	30,000	0.001	0.14
	충북	2,678,638,565	3,120,995	53,200	0.002	1.71
	충남	3,870,000,000	17,043,257	7,556	0.000	0.04
	전북	3,818,115,788	54,707,266	30,480	0.001	0.06
	전남	4,373,257,435	33,718,514	63,034	0.001	0.19
	경북	5,450,934,000	1,017,000	94,100	0.002	9.25
	경남	5,945,281,215	19,881,606	0	0.000	0.00
특별자치도	제주	3,076,318,346	8,290,329	15,000	0.000	0.18
도 평균		4,934,777,364	17,754,253	38,152	0.001	0.215

각 지자체 총 예산대비 공중분야 예산 비율은 전체의 0.057%, 부서예산 대비 공중분야 예산 비율은 3.85%로 나타났다.

가장 예산 상황이 좋은 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0.25%인 51,320,000천원인 서울시로 나타났고, 가장 열악한 곳은 경남으로 공중위생분야 예산이 한푼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울산, 부산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부서예산 대비 점유율이 높은 지자체는 광주의 41.99%, 32.10%인 대전으로 분석되었다.

나. 인력

<표 3-8>에는 각 지자체별 인력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3-8> 광역지자체의 인력 세부현황

구분		(단위: 명, %)				
		지자체 인력	소속부서 인력	공중분야 인력	공중분야 인력비율(%)	
					전체대비	부서대비
합계		61,723	348	38	0.062	10.92
특별시	서울	10,118	21	2	0.020	9.52
	부산	6,610	42	3	0.045	7.14
광역시	대구	1,434	19	5	0.349	26.32
	인천	3,609	22	4	0.111	18.18
	광주	3,086	15	5	0.162	33.33
	대전	3,304	12	2	0.061	16.67
	울산	5,286	25	1	0.019	4.00
광역시 평균		3,888.2	22.5	3.3	0.086	14.82
도	경기	8,860	15	1	0.011	6.67
	강원	4,119	19	1	0.024	5.26
	충북	1,009	14	2	0.198	14.27
	충남	1,222	38	2	0.164	5.26
	전북	3,710	18	3	0.081	16.67
	전남	3,885	28	4	0.103	14.29
	경북	1,278	17	1	0.078	5.88
	경남	1,274	25	1	0.078	4.00
특별자치도	제주	2,919	18	1	0.034	5.56
도 평균		3,141.8	21.3	1.8	0.057	8.33

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력확보 비율이 예산확보 비율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력 대비 공중위생분야 인력 비율은 0.062%, 부서 인력 대비 10.92%로 분석되었다. 인력 확보가 가장 우수한 곳은 광주, 대구, 대전으로 인력 확보 비율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반면에 가장 열악한 곳은 4.0%인 울산, 경남이었으며, 그 다음은 5%대인 강원, 경북, 제주로 나타났다.

다. 행정처분

<표 3-9>에는 광역지자체별 행정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총 지도점검회수 대비 위반비율은 0.66%이고, 위반대비 처분비율은 대부분 100.0%로 분석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점검대비 위반비율은 경기, 강원, 제주가 높게 나타나 점검업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충남, 대전, 울산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반업소가 적어 위반비율이 낮을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중위생업 현황에 비추어보면 위반비율이 낮은 것은 아직 점검활동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표 3-9〉 광역지자체의 행정점검 현황

(단위: 명, %)

구분		업소수	지도점검		위반 건수	행정처분 등 건수			점검 대비 위반 비율	위반 대비 처분 비율
			업소수	횟수		행정 처분	과태 료	고 발		
합계		219,068	256,779	122,222	1,692	1,699	122	37	0.66	100.41
특별시	서울	43,365	35,915	24,145	182	182	17	26	0.51	100.00
광역시	부산	16,771	16,006	3,953	124	123	1	0	0.77	99.19
	대구	11,022	10,573	3,735	53	53	4	0	0.50	100.00
	인천	10,379	9,674	4,290	72	72	3	2	0.74	100.00
	광주	7,497	6,987	3,156	44	44	0	1	0.63	100.00
	대전	7,299	6,374	2,534	23	23	0	0	0.36	100.00
	울산	5,012	4,815	1,674	17	17	2	0	0.35	100.00
광역시 소계		57,980	54,429	19,342	333	332	10	3	0.61	99.70
도	경기	42,637	38,937	13,926	379	381	62	2	0.97	100.53
	강원	8,728	8,376	15,337	75	74	7	0	0.90	98.67
	충북	6,697	6,565	1,710	22	28	0	0	0.34	127.27
	충남	9,479	9,283	2,638	8	9	0	0	0.09	112.50
	전북	8,973	8,544	5,386	72	72	3	0	0.84	100.00
	전남	9,458	9,312	7,612	81	81	10	0	0.87	100.00
	경북	13,188	13,077	3,790	72	72	0	0	0.55	100.00
	경남	15,243	14,618	8,167	104	105	2	3	0.71	100.96
특별 자치도	제주	3,320	3,294	827	31	31	1	0	0.94	100.00
도 소계		117,723	112,006	59,393	844	853	85	5	0.75	101.07

주: 점검, 위반, 행정처분 현황의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입력의 오류가 많아서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라. 업무

<표 3-10>에는 공중위생업무의 중복현황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공중위생업무만 단독으로 수행하는 지자체는 한곳도 없었고, 전체의 62.5%가 식품위생업무가 중복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단위: 명, %)

구분	응답	비율
합계	16	100.0
공중위생단독	-	-
공중위생+식품위생	10	62.5
공중위생+기타 (보건사업, 의약품, 화장실관리, 약무, 출산정책 등)	6	37.5

<표 3-11>에는 광역지자체의 공중위생업무 중복 세부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3-11〉 광역지자체 업무 중복 세부현황

구분		부서명	공중위생	식품위생	기타
특별시	서울	공중위생과 (식품안전과 변경)	○	○	○
광역시	부산	보건위생과	○	○	-
	대구	식품안전과	○	○	-
	인천	위생정책과	○	○	-
	광주	식품안전과	○	○	-
	대전	식품안전과	○	○	-
	울산	보건위생과	○	○	-
도	경기	식품안전과	○	○	-
	강원	식품의약과	○	○	-
	충북	식품의약품안전과	○	○	-
	충남	식의약안전과	○	○	-
	전북	건강안전과	○	-	○
	전남	사회복지과	○	-	○
	경북	식의약품안전과	○	○	-
	경남	식품의약과	○	○	-
특별자치도	제주	보건위생과	○	○	○

서울시와 제주도는 공중위생업무에 식품위생, 기타업무까지 중복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전북과 전남은 공중위생업무에 기타업무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지자체는 식품위생업무를 중복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인력

1) 자격증

<표 3-12>에는 광역지자체에 근무하는 348명 중 178명을 대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중복 소지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대상자 178명중 138명이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류별로 보면 약사가 4명, 의사 1명, 위생사가 54명, 영양사 18명, 조리사 2명, 의료기사 19명, 그리고 기타 자격증 소지자가 4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자격증 소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는 광주, 울산, 대전으로 조사되었고 반면에 제주도는 자격증 소지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조사결과가 근무 인력 348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지자체별 직접비교는 다소 무리하다.

〈표 3-12〉 광역지자체의 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명)

구분		부서 인력	자격소지 현황								
			계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의료 기사	기타
합계		348	138	-	4	1	54	18	2	19	40
특별시	서울	21	3	-	-	-	1	1	1	-	-
광역시	부산	42	3	-	-	-	-	-	-	-	3
	대구	19	12	-	-	-	10	1	1	-	-
	인천	22	3	-	-	-	-	2	-	-	1
	광주	15	15	-	1	-	8	-	-	2	4
	대전	12	12	-	-	-	5	3	-	2	2
	울산	25	25	-	-	-	10	-	-	8	7
광역시 평균		22.5	11.7	-	1.0	-	8.3	2.0	1.0	4.0	3.4
도	경기	15	5	-	-	-	4	1	-	-	-
	강원	19	3	-	-	-	2	-	-	-	1
	충북	14	2	-	-	-	2	-	-	-	0
	충남	38	5	-	-	-	2	1	-	2	-
	전북	18	13	-	-	-	4	-	-	3	6
	전남	28	4	-	-	-	3	1	-	-	-
	경북	17	8	-	3	-	2	2	-	-	1
	경남	25	25	-	-	1	1	6	-	2	15
특별 자치도	제주	18	0	-	-	-	-	-	-	-	-
도 평균		21.3	7.2	-	3.0	1.0	2.5	2.2	-	2.3	4.6

주: 기타에는 간호사 등이 있었음.

2. 기초지자체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

가. 기초 지자체의 인구, 업소 현황

<표 3-13>에는 총 263개 지자체 중 조사에 응한 28개 기초 지자체의 인구수, 업소수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3-13〉 기초 지자체 인구 및 업소수

(단위: 명, 개소)

구분			주민등록인구수	업소 현황			
				계	공중위생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시설
특별시	서울	서초구	436,305	2,437	1,714	-	723
		성북구	494,475	1,614	1,440	-	174
광역시	부산	-	-	0	-	-	-
		달성군	180,351	576	562	5	9
	인천	남동구	495,469	1,667	1,557	12	98
		남구	219,041	1,077	1,023	-	54
	광주	북구	444,483	2,213	2,075	5	133
		동구	106,495	989	943	3	43
		서구	317,936	1,690	1,547	2	141
	대전	유성구	294,353	1,018	980	3	35
		중구	265,502	1,726	1,507	2	217
		대덕구	205,339	935	868	13	54
	울산	동구	172,172	675	654	-	21
		중구	232,634	1,115	1,079	4	32
도	경기	고양시	961,239	2,846	2,700	37	109
		양주시	207,871	741	740	1	-
		부천시	889,500	3,733	3,602	131	-
	강원	고성군	30,112	163	159	1	3
		삼척시	72,312	336	322	1	13
	충북	-	-	-	-	-	-
		계룡시	42,942	135	135	-	-
	충남	태안군	62,747	695	693	2	-
		논산시	130,710	628	614	6	8
		금산군	55,893	248	247	1	-
	전북	무주군	25,578	235	234	-	1
	전남	여수시	295,538	1,572	1,508	5	59
	경북	상주시	104,685	475	454	2	19
		영덕군	40,794	228	224	4	-
	경남	김해시	507,062	1,846	1,806	18	22
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153,366	828	799	4	25

나. 인력, 조직, 예산 현황

<표 3-14>에는 조사대상 기초 지자체의 인력, 조직, 예산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울산 중구의 11명이 가장 많은 인력수였고, 대부분 공중위생분야 인력은 5명 이하로 조사되었다.

〈표 3-14〉 기초 지자체 인력, 조직, 예산 현황

구분			조직(부서명)	예산		인력	
				부서 총예산	공중 총예산	부서 총인력	공중 총인력
특별시	서울	서초구	보건위생과	73,430	15,102	34	1
		성북구	보건위생과	48,582	12,800	20	2
광역시	부산	-	-	-	-	-	-
		달성군	청소위생과	4,633,084	7,610	23	1
	인천	남동구	식품위생과	171,919	18,200	17	5
		남구	위생과	82,368	7,245	13	5
	광주	북구	위생과	92,535	2,765	21	5
		동구	관광위생과	645,239	4,800	18	4
		서구	보건위생과	105,507	18,000	18	5
	대전	유성구	위생과	208,841	4,950	15	4
		중구	위생과	236,475	0	18	5
		대덕구	청소위생팀	15,262,533	7,280	21	3
	울산 ²⁾	동구	환경위생과	646,199	5,652	20	10
		중구	환경위생과	460,595	6,480	19	11
도	경기	고양시	위생정책과	336,398	6,160	12	1
		양주시	민원해결과	180,224	4,000	3	1
		부천시	식품안전과	526,343	2,000	14	1
	강원	고성군	위생계	31,990	0	4	1
		삼척시	사회복지과	94,010	1,200	23	3
	충북	-	-	-	-	-	-
	충남	계룡시	보건소 위생계	41,376	2,000	4	1
		태안군	민원봉사과	1,144,519	800	3	1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64,205	1,600	7	1
		금산군	주민복지지원실	41,386,204	133,952	28	1
	전북	무주군	환경위생과	15,027,323	4,800	22	1
	전남	여수시	보건위생과	10,108,632	240	84	2
	경북	상주시	보건위생과	9,427,524	0	26	1
		영덕군	환경위생공원과	6,645,270	143,530	22	2
	경남	김해시	위생과	426,610	57,289	21	4
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	사회복지과	60,908,000	54,605	28	3

- 2) 응답 울산광역시의 동구, 중구의 담당인력현황의 경우 관련 공중위생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 업무를 중복담당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련 업무를 1가지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 수치임.

다. 기초 지자체의 세부 현황

1) 예산 세부 현황

<표 3-15>에는 조사대상 기초 지자체의 예산 세부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표 3-15〉 기초 지자체 예산 세부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지자체 예산	소속부서 예산	공중분야 예산	공중분야 예산비율(%)	
						전체대비	부서대비
특별시	서울	서초구	322,951,000	73,430	15,102	0.005	20.567
		성북구	346,797,030	48,582	12,800	0.004	26.347
광역시	부산	-	-	-	-	-	-
	대구	달성군	296,940,346	4,633,084	7,610	0.003	0.164
	인천	남동구	418,978,151	171,919	18,200	0.004	10.586
	광주	남구	218,062,119	82,368	7,245	0.003	8.796
		북구	338,142,625	92,535	2,765	0.001	2.988
		동구	158,605,428	645,239	4,800	0.003	0.744
		서구	306,791,554	105,507	18,000	0.006	17.060
	대전	유성구	241,400,000	208,841	4,950	0.002	2.370
		중구	246,029,901	236,475	0	0.000	0.000
		대덕구	200,496,000	15,262,533	7,280	0.004	0.048
	울산	동구	118,183,754	646,199	5,652	0.005	0.875
		중구	151,947,316	460,595	6,480	0.004	1.407
도	경기	고양시	1,171,165	336,398	6,160	0.526	1.831
		양주시	436,380,339	180,224	4,000	0.001	2.219
		부천시	1,100,518,747	526,343	2,000	0.000	0.380
	강원	고성군	201,188,521	31,990	0	0.000	0.000
		삼척시	361,654,200	94,010	1,200	0.000	1.276
	충북	-	-	-	-	-	-
	충남	계룡시	132,983,000	41,376	2,000	0.002	4.834
		태안군	370,499,505	1,144,519	800	0.000	0.070
		논산시	386,313,000	64,205	1,600	0.000	2.492
		금산군	287,517,000	41,386,204	133,952	0.047	0.324
	전북	무주군	256,934,310	15,027,323	4,800	0.002	0.032
	전남	여수시	550,078,044	10,108,632	240	-	-
	경북	상주시	570,300,000	9,427,524	0	0.000	0.000
		영덕군	281,246,000	6,645,270	143,530	0.051	2.160
	경남	김해시	958,291,316	426,610	57,289	0.006	13.429
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545,819,000	60,908,000	54,605	0.010	0.090

전체 예산대비 공중위생분야 예산 비율은 최고가 충남 금산군의 0.047%로 조사되었고, 부서내 비율은 서울 성북구가 26.35%로 높게 나타났다.

2) 세부 인력 현황

〈표 3-16〉 기초 지자체 세부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지자체 인력	소속부서 인력	공중분야 인력	공중분야 인력비율(%)	
						전체대비	부서대비
특별시	서울	서초구	1,295	34	1	0.077	2.941
		성북구	1,327	20	2	0.151	10.000
광역시	부산	-	-	-	-	-	-
	대구	달성군	382	23	1	0.262	4.348
	인천	남동구	794	17	5	0.630	29.412
	광주	남구	644	13	5	0.776	38.462
		북구	950	21	5	0.526	23.810
		동구	579	18	4	0.691	22.222
		서구	690	18	5	0.725	27.778
	대전	유성구	629	15	4	0.636	26.667
		중구	740	18	5	0.676	27.778
		대덕구	492	21	3	0.610	14.286
	울산	동구	476	20	10	2.101	50.000
		중구	540	19	11	2.037	57.895
도	경기	고양시	2,442	12	1	0.041	8.333
		양주시	761	3	1	0.131	33.333
		부천시	2,100	14	1	0.048	7.143
	강원	고성군	463	4	1	0.216	25.000
		삼척시	816	23	3	0.368	13.043
	충북	-	-	-	-	-	-
	충남	계룡시	321	4	1	0.312	25.000
		태안군	643	3	1	0.156	33.333
		논산시	893	7	1	0.112	14.286
		금산군	595	28	1	0.168	3.571
	전북	무주군	458	22	1	0.218	4.545
	전남	여수시	1,670	84	2	0.120	2.381
	경북	상주시	1,111	26	1	0.090	3.846
		영덕군	523	22	2	0.382	9.091
	경남	김해시	1,410	21	4	0.284	19.048
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1,014	28	3	0.296	10.714

<표 3-16>에는 조사대상 기초 지자체의 세부 인력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전체 인력 대비 공중위생분야 인력 수가 2명인 울산 동구, 중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조사대상 지자체는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서 내 인력 대비 비율을 보면 울산이 50명 이상으로 역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은 광주 서구, 대구 중구 및 유성구 등으로 20명대 인력 보유 현황을 보였다.

강원도 고성군은 공중위생분야 인력이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행정점검 현황

<표 3-17>에는 조사대상 기초 지자체의 행정점검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점검대비 위반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24.87%나타났고, 충남 태안군과 서귀포시가 낮게 나타났다. 위반대비 처분율은 부천시의 86.96%를 제외하고 모두 100%로 조사되었다.

위반비율이 높은 현상이 나쁜 실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무원의 점검 실적 차원에서 보면 위반한 업소를 적발한 실적이므로 높은 비율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위반업소가 여전히 있다는 상황에서 분석한 실적이라 하겠다.

〈표 3-17〉 기초지자체 행정점검 현황

(단위: 명, %)

구분			업소수	지도점검		위반건수	행정처분 업소수	점검대비 위반비율	위반대비 처분비율
				업소수	횟수				
특별 시	서울	서초구	2,437	1,695	-	29	29	1.71	100.00
		성북구	1,614	1,495	1,607	28	1,495	1.87	100.00
광역시	부산	-	-	-	-	-	-	-	-
		대구	달성군	576	587	-	5	0.85	100.00
	인천	남동구	1,667	1,619	1,619	23	23	1.42	100.00
		광주	남구	1,077	1,789	28	28	1.57	100.00
	광주	북구	2,213	2,373	2,373	54	56	2.28	103.70
		동구	989	1,055	1	12	12	1.14	100.00
		서구	1,690	1,690	15	307	307	18.17	100.00
	대전	유성구	1,018	952	804	57	57	5.99	100.00
		중구	1,726	1,510	1,628	32	32	2.12	100.00
		대덕구	935	1,090	112	25	25	2.29	100.00
	울산	동구	675	675	790	10	11	1.48	110.00
		중구	1,115	1,083	1,691	30	41	2.77	136.67
도	경기	고양시	2,846	1,042	70	27	27	2.59	100.00
		양주시	741	830	1	17	17	2.05	100.00
		부천시	3,733	3,783	1	69	60	1.82	86.96
	강원	고성군	163	1,310	205	18	18	1.37	100.00
		삼척시	336	554	36	3	3	0.54	100.00
	충북	-	-	-	-	-	-	-	-
	충남	계룡시	135	242	20	-	-	-	-
		태안군	695	960	240	2	2	0.21	100.00
		논산시	628	657	1	5	5	0.76	100.00
		금산군	248	248	350	-	-	-	-
	전북	무주군	235	424	55	-	-	-	-
	전남	여주시	1,572	1,572	4	391	391	24.87	100.00
	경북	상주시	475	632	12	1	1	0.16	100.00
		영덕군	228	773	32	-	-	-	-
	경남	김해시	1,846	2,414	230	52	52	2.15	100.00
특별 자치 도	제주	서귀포 시	828	1,071	1	4	4	0.37	100.00

주: 점검, 위반, 행정처분 현황의 온라인 설문조사 데이터입력의 오류가 많아서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음.

4) 업무 중복 현황

<표 3-18>에는 공중위생분야와 중복해서 추진되는 업무 분야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광역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식품위생업무와 중복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8〉 기초지자체 업무 중복현황

(단위: 명, %)

구분			부서명	공중위생	식품위생	기타
특별시	서울	서초구	보건위생과	○	○	-
		성북구	보건위생과	○	○	-
광역시	부산	-	-	-	-	-
	대구	달성군	청소위생과	○	-	○
	인천	남동구	식품위생과	○	○	-
		남구	위생과	○	○	-
	광주	북구	위생과	○	○	-
		동구	관광위생과	○	-	○
		서구	보건위생과	○	○	-
	대전	유성구	위생과	○	○	-
		중구	위생과	○	○	-
		대덕구	청소위생팀	○	-	○
	울산	동구	환경위생과	○	○	-
		중구	환경위생과	○	○	-
	도	경기	고양시	위생정책과	○	○
양주시			민원해결과	○	-	○
부천시			식품안전과	○	○	-
강원		고성군	위생계	○	○	-
		삼척시	사회복지과	○	○	○
충북		-	-	-	-	-
충남		계룡시	보건소 위생계	○	○	-
		태안군	민원봉사과	○	-	○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	-	○
		금산군	주민복지지원실	○	-	○
전북		무주군	환경위생과	○	○	-
전남		여수시	보건위생과	○	○	-
경북		상주시	보건위생과	○	○	-
		영덕군	환경위생공원과	○	○	○
경남		김해시	위생과	○	○	-
특별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	○

5) 자격증 소지

<표 3-19>에는 조사대상 기초지자체별 자격증 보유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위생사와 영양사, 의료기사 자격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9〉 기초지자체의 자격증 소지 현황

(단위: 명)

구분			부서 인력	자격소지 현황								
				계	의사	약사	수의	위생	영양	조리	의기	기타
특별시	서울	서초구	34	3	-	-	-	1	-	-	2	0
		성북구	20	1	-	-	-	-	-	-	1	0
광역시	부산	-	-	0	-	-	-	-	-	-	-	0
		달성군	23	1	-	-	-	-	-	-	1	0
	인천	남동구	17	5	-	-	-	2	-	-	2	1
		남구	13	3	-	-	-	-	3	-	-	0
	광주	북구	21	16	-	-	-	-	1	-	-	15
		동구	18	2	-	-	1	1	-	-	-	0
		서구	18	2	-	-	-	1	-	-	-	1
		유성구	15	2	-	-	-	-	1	-	1	0
	대전	중구	18	16	-	-	-	4	1	-	3	8
		대덕구	21	3	-	-	-	1	-	-	-	2
		동구	20	10	-	-	-	-	-	-	-	10
	울산	중구	19	11	-	-	-	3	1	-	2	5
		고양시	12	1	-	-	-	1	-	-	-	0
도	경기	양주시	3	3	-	-	-	-	2	-	1	0
		부천시	14	1	-	-	-	1	-	-	-	0
		고성군	4	3	-	-	-	-	-	-	-	3
	강원	삼척시	23	1	-	-	-	-	-	-	-	1
		충북	-	0	-	-	-	-	-	-	-	0
	충남	계룡시	4	1	-	-	-	-	-	-	1	0
		태안군	3	3	-	-	-	1	-	-	-	2
		논산시	7	5	-	-	-	4	-	-	1	0
		금산군	28	1	-	-	-	-	-	-	-	1
	전북	무주군	22	0	0	0	0	0	0	0	0	0
		여주시	84	2	-	-	-	-	-	-	-	2
	전남	상주시	26	0	-	-	-	-	-	-	-	0
		영덕군	22	1	-	-	-	-	-	-	-	1
	경북	김해시	21	3	-	-	-	2	-	-	-	1
		경남	-	-	-	-	-	-	-	-	-	-
특별 자치도	제주	서귀포시	28	0	-	-	-	-	-	-	-	0

주: 무응답자는 제외함.

제3절 공중위생 업무 만족도 등 인식조사 결과

광역시지자체에 근무하는 8명과 기초지자체에 근무하는 229명 등 총 237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응답기관 및 응답자 일반현황

<표 3-20>에는 총 237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현황이 정리되어있다.

현 조직체계상 광역시 근무자는 전원 본청에 근무하고 기초 지자체는 전체의 28.4%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하는 과명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보건위생, 환경위생, 생활위생, 위생정책, 위생과 등과 환경정책, 사회복지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7 (100.0)	8 (100.0)	229 (100.0)
조직 (N=237)	본청	172 (72.6)	8 (100.0)	164 (71.6)
	보건소	65 (27.4)	-	65 (28.4)
해당소속 부서명 (N=237)	보건위생과	28 (11.8)	8 (100.0)	229 (100.0)
	환경위생과	51 (21.5)	1 (12.5)	27 (11.8)
	공중위생과	1 (0.4)	2 (25.0)	49 (21.4)
	위생과	51 (21.5)	-	1 (0.4)
	생활위생과	-	-	51 (22.3)
	위생정책과	2 (0.8)	-	-
	사회복지과	7 (3.0)	1 (12.5)	1 (0.4)
	환경정책과	-	1 (12.5)	6 (2.6)
	기타*	94 (40.9)	3 (37.5)	94 (41.0)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계속)

구분		합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직위 (N=231)	소계	231 (100.0)	8 (100.0)	223 (100.0)
	4급	-	-	-
	5급	1 (0.4)	-	1 (0.4)
	6급	29 (12.6)	3 (37.5)	26 (11.4)
	7급	61 (26.4)	3 (37.5)	58 (26.0)
	8급	19 (8.2)	-	19 (8.5)
	9급	30 (13.0)	-	30 (13.5)
	10급	73 (31.6)	2 (25.0)	71 (31.8)
	기타	18 (7.2)	-	18 (8.0)
직급 (N=235)	소계	235 (100.0)	8 (100.0)	227 (100.0)
	일반직	31 (13.2)	-	31 (13.7)
	보건의직	174 (74.0)	7 (87.5)	167 (73.6)
	수의직	-	-	-
	환경직	1 (0.4)	1 (12.5)	-
	식품위생직	7 (3.0)	-	7 (3.1)
	의료직	-	-	-
	간호직	2 (0.9)	-	2 (0.9)
	의료기사직	5 (2.1)	-	5 (2.2)
	기능직	7 (3.0)	-	7 (3.1)
	별정직	7 (3.0)	-	7 (3.1)
	기타	1 (0.4)	-	1 (0.4)
전문자격 및 면허소지 (중복응답) (N=104)	소계	104 (100.0)	4 (100.0)	100 (100.0)
	의사	-	-	-
	약사	1 (1.0)	1 (25.0)	-
	수의사	1 (1.0)	-	1 (1.0)
	위생사	56 (53.8)	2 (50.0)	54 (54.0)
	영양사	20 (19.2)	1 (25.0)	19 (19.0)
	조리사	10 (9.6)	-	10 (10.0)
	의료기사	36 (34.6)	1 (25.0)	35 (35.0)
	식품기사	-	-	-
	기타	-	-	-

조사대상자의 직급을 살펴보면 전체의 74.0%가 보건의직으로 대다수였고, 그 다음
은 기능직, 별정직 등이 공중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자격이나 면허소지 현황을 보면 위생사가 전체의 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
료기사로 전체의 34.6%로 나타났다.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계속)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성별 (N=237)	남자	104 (43.9)	5 (62.5)	99 (43.2)
	여자	133 (56.1)	3 (37.5)	130 (56.8)
연령 (N=237)	20대	14 (5.9)	-	14 (6.1)
	30대	59 (24.9)	-	59 (25.8)
	40대	78 (32.9)	4 (50.0)	74 (32.3)
	50대	84 (35.4)	4 (50.0)	80 (34.9)
	60대 이상	2 (0.8)	-	2 (0.9)
최종학력 (N=232)	소계	232 (100.0)	7 (100.0)	225 (100.0)
	고졸 이하	25 (10.8)	-	25 (11.1)
	초대졸 이하	66 (28.4)	3 (42.9)	63 (28.0)
	대졸 이하	127 (54.7)	3 (42.9)	124 (55.1)
	대학원 이상	14 (6.0)	1 (14.3)	13 (5.8)
공무원 총근속기간 (N=235)	소계	235 (100.0)	7 (100.0)	228 (100.0)
	1년 이하	11 (4.7)	-	11 (4.8)
	5년 이하	34 (14.5)	-	34 (14.9)
	10년 이하	32 (13.6)	-	32 (14.9)
	20년 이하	36 (15.3)	4 (57.1)	32 (14.0)
	20년 초과	122 (51.9)	3 (42.9)	119 (52.2)
공중위생담당 근속기간 (N=235)	소계	235 (100.0)	7 (100.0)	228 (100.0)
	1년 이하	102 (43.4)	2 (28.6)	100 (43.9)
	5년 이하	105 (44.7)	5 (71.4)	100 (43.9)
	10년 이하	18 (7.7)	-	18 (7.9)
	20년 이하	8 (3.4)	-	8 (3.5)
	20년 초과	2 (0.9)	-	2 (0.9)

조사대상자의 성별 현황은 여성이 전체의 56.8%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30, 40, 50대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54.7%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전문대 졸업자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연령대와 비례하여 5년 이하,

10년 이하, 20년 이하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공중위생업무 담당 기간은 5년 이하가 전체의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년 이하가 43.4%로 나타났다. 타 업무와 중복은 식품위생업무가 대부분이었고, 기타 중복업무는 PC방 관리였다. 공중위생업무의 중복 현황을 보면 공용화장실 업무, 수질개선, 정수기 업무만 한자리 수였고 나머지 업무는 모두 비중있게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계속)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타업무 중복여부 (N=231)	소계	231 (100.0)	8 (100.0)	223 (100.0)
	공중위생	49 (21.2)	3 (37.5)	46 (20.6)
	공중위생+식품위생	174 (75.3)	4 (50.0)	170 (76.2)
	공중위생+기타	8 (3.5)	1 (12.5)	7 (3.1)
기타 중복업무 종류(N=8)	PC방 관련	3 (37.5)	-	3 (42.9)
	기타 행정	5 (62.5)	1 (100.0)	4 (57.1)
중복업무별 비중(평균 %)	식품관련	48.5	43.3	48.7
	PC방 관련	28.1	20.0	28.2
	기타 행정	18.4	20.0	18.3
공중위생관련 담당업종 (중복응답) (N=224)	소계	224 (100.0)	8 (100.0)	216 (100.0)
	민원접수	128 (57.1)	3 (37.5)	125 (57.9)
	먹는물	51 (22.8)	1 (12.5)	50 (23.1)
	실내공기질	42 (18.8)	2 (25.0)	40 (18.5)
	수질개선 및 수처리제조업	19 (8.5)	1 (12.5)	18 (8.3)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33 (14.7)	1 (12.5)	32 (14.8)
	숙박업	172 (76.8)	8 (100.0)	164 (75.9)
	목욕장업	171 (76.3)	6 (75.0)	165 (76.4)
	이용업	170 (75.9)	6 (75.0)	164 (75.9)
	미용업	177 (79.0)	7 (87.5)	170 (78.7)
	세탁업	171 (76.3)	6 (75.0)	165 (76.4)
	건물위생관리용역업	157 (70.1)	6 (75.0)	151 (69.9)
	위생처리업 등	132 (58.9)	6 (75.0)	126 (58.3)
	공중이용시설	118 (52.7)	5 (62.5)	113 (52.3)
	공용화장실	18 (8.0)	1 (12.5)	17 (7.9)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21 (54.0)	4 (50.0)	117 (54.2)
	공중위생업 총괄	97 (43.3)	5 (62.5)	92 (42.6)

〈표 3-20〉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현황(계속)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공중위생관련 담당업무 (중복응답) (N=233)	소계	233 (100.0)	8 (100.0)	225 (100.0)
	민원접수	138 (59.2)	3 (37.5)	135 (60.0)
	인허가	146 (62.7)	2 (25.0)	144 (64.0)
	지도단속 및 점검	160 (68.7)	6 (75.0)	154 (68.4)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145 (62.2)	3 (37.5)	142 (63.1)
	통계보고	99 (42.5)	4 (50.0)	95 (42.2)
	계획수립	119 (51.1)	5 (62.5)	114 (50.7)
	일반관리 및 행정전반	83 (35.6)	5 (62.5)	78 (34.7)
	세외수입관리	76 (32.6)	2 (25.0)	74 (32.9)
	소관문서심사 관리	45 (19.3)	2 (25.0)	43 (19.1)
	공중위생행정전산망관리	96 (41.2)	3 (37.5)	93 (41.3)
	명예공중위생감시원관리	120 (51.5)	4 (50.0)	116 (51.6)
	관련신종업종 관리	52 (22.3)	3 (37.5)	49 (21.8)
	공중위생교육	131 (56.2)	5 (62.5)	126 (56.0)
	각 공중위생업 업무 총괄	98 (42.1)	7 (87.5)	91 (40.4)
	공중위생업무 총괄	92 (39.5)	6 (75.0)	86 (38.2)

〈표 3-21〉 기초자치단체 소속부서 유형(기타부서의 분류 포함)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89 (100.0)	3 (100.0)	86 (100.0)
식품안전과	5 (5.6)	1 (33.3)	4 (4.7)
식품위생과	5 (5.6)	-	5 (5.8)
식품의약과	5 (5.6)	2 (66.7)	3 (3.5)
민원관리과(실)	21 (23.6)	-	21 (24.4)
보건과/건강관리과	14 (15.7)	-	14 (16.3)
기타	39 (43.8)	-	39 (45.3)

주: 기타 소속부서로는 환경위생공원과, 청소위생과, 주민복지과, 새마을관리과, 산업환경과, 관광레저과, 녹색관광과, 문화위생과 등으로 많은 부서들이 있었음.

2. 조사결과

가. 전문성(관련법규 이해도)

<표 3-22>에는 공중위생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리커르트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1점으로 나타났고, 조금 아는 편이다가 전체의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역시 공무원의 평균점수가 4.13점으로 기초 공무원의 3.7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2〉 관련법규 이해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6 (100.0)	8 (100.0)	228 (100.0)
전혀 모른다	-	-	-
잘 모르는 편이다	18 (7.6)	-	18 (7.9)
보통이다	75 (31.8)	1 (12.5)	74 (32.5)
조금 아는 편이다	100 (42.4)	5 (62.5)	95 (41.7)
매우 잘 아는 편이다	43 (18.2)	2 (25.0)	41 (18.0)
평균±표준편차	3.71±0.85	4.13±0.64	3.70±0.86

주: 전혀 모른다(1), 잘 모르는 편이다(2), 보통이다(3), 조금 아는편이다(4), 매우 잘 아는 편이다(5)

나. 업무과중

<표 3-23>에는 부서내 타업무 대비 공중위생업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가 2.88점으로 기초 공무원보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3〉 공중위생분야 업무 과중 정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4 (100.0)	8 (100.0)	226 (100.0)
전혀 과중하지 않다	10 (4.3)	-	10 (4.4)
과중하지 않은 편이다	28 (12.0)	1 (12.5)	27 (11.9)
보통이다	145 (62.0)	7 (87.5)	138 (61.1)
과중한 편이다	41 (17.5)	-	41 (18.1)
매우 과중한 편이다	10 (4.3)	-	10 (4.4)
평균±표준편차	3.06±0.80	2.88±3.54	3.06±0.81

주: 전혀 과중하지 않다(1), 과중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과중한 편이다(4), 매우 과중한 편이다(5)

다. 업무만족

<표 3-24>에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현 업무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2.96점으로 업무 과중정도 보다도 낮게 나타났고, 광역시 공무원의 만족도가 2.88점으로 2.96점인 기초 공무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24〉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6 (100.0)	8 (100.0)	228 (100.0)
전혀 불만족하다	11 (4.7)	1 (12.5)	10 (4.4)
조금 불만족하다	47 (19.9)	1 (12.5)	46 (20.2)
보통이다	119 (50.4)	4 (50.0)	115 (50.4)
대체로 만족한다	58 (24.6)	2 (25.0)	56 (24.6)
매우 만족한다	1 (0.4)	-	1 (0.4)
평균±표준편차	2.96±0.81	2.88±0.99	2.96±0.80

주: 전혀 불만족하다(1), 조금 불만족하다(2), 보통이다(3), 대체로 만족한다(4), 매우 만족한다(5)

라. 불만사항

<표 3-25>에는 공중위생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가장 응답률이 높은 불만사항은 인력부족으로 전체의 28.9%가 응답하였는데 광역시 공무원은 1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은 예산부족, 낮은 업무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공무원의 경우 예산부족이 전체의 50.0%, 전담 조직 부재, 낮은 업무 중요성 순으로 조사된 반면에 기초 공무원은 인력부족, 낮은 업무 중요성, 예산부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25> 공중위생분야 업무 불만사항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5 (100.0)	8 (100.0)	227 (100.0)
인력부족	68 (28.9)	-	68 (30.0)
예산부족	35 (14.9)	4 (50.0)	31 (13.7)
낮은 업무 중요성	33 (14.0)	1 (12.5)	32 (14.1)
전담조직 부재	31 (13.2)	3 (37.5)	28 (12.3)
전문성 부재	24 (10.2)	-	24 (10.6)
담당업소수 과다	11 (4.7)	-	11 (4.8)
기본업무 과중	8 (3.4)	-	8 (3.5)
민원업무 과다	7 (3.0)	-	7 (3.1)
기타	18 (7.7)	-	18 (7.9)

마. 발전 가능성

<표 3-26>에는 공중위생분야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 5점 만점에 2.90점으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광역과 기초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이는데 광역시는 3.38점을 보인 반면에 기초 지자체는 2.88점으로 평균점수보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3-26〉 공중위생분야 업무 발전가능성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6 (100.0)	8 (100.0)	228 (100.0)
매우 낮다	19 (8.1)	-	19 (8.3)
낮은 편이다	57 (24.2)	2 (25.0)	55 (24.1)
보통이다	92 (39.0)	1 (12.5)	91 (39.9)
높은 편이다	65 (27.5)	5 (62.5)	60 (26.3)
매우 높은 편이다	3 (1.3)	-	3 (1.3)
평균±표준편차	2.90±0.94	3.38±0.92	2.88±0.94

주: 매우 낮다(1), 낮은 편이다(2), 보통이다(3), 높은 편이다(4), 매우 높은 편이다(5)

바. 관리 필요성

<표 3-27>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평균 3.6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업무 만족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광역시 공무원의 인식이 기초 지자체 공무원 인식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7〉 공중위생분야 업무 관리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5 (100.0)	8 (100.0)	227 (100.0)
전혀 불필요하다	4 (1.7)	-	4 (1.8)
불필요한 편이다	26 (11.1)	1 (12.5)	25 (11.0)
보통이다	57 (24.3)	1 (12.5)	56 (24.7)
필요한 편이다	111 (47.2)	5 (62.5)	106 (46.7)
매우 필요한 편이다	37 (15.7)	1 (12.5)	36 (15.9)
평균±표준편차	3.64±0.93	3.75±0.89	3.64±0.94

주: 전혀 불필요하다(1), 불필요한 편이다(2), 보통이다(3), 필요한 편이다(4), 매우 필요한 편이다(5)

사. 관리대상 업종

최근 공중위생분야에도 여러 기존 업종과 더불어 신종 업종이 출현하고 있다. <표 3-28>에는 기존 업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업종과 여러 이유로 관리가 필요없는 업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가장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숙박업, 미용업, 전업종 순으로 조사되었고, 지속적인 관리가 불필요한 업종은 건물위생관리용역업, 공중이용시설, 세탁업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3-28> 관리대상 업종

구분	지속관리 필요업종			지속관리 불필요 업종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31 (100.0)	8 (100.0)	223 (100.0)	226 (100.0)	8 (100.0)	218 (100.0)
숙박업	77 (33.3)	5 (62.5)	72 (32.3)	4 (1.8)	-	4 (1.8)
목욕장업	18 (7.8)	1 (12.5)	17 (7.6)	1 (0.4)	-	1 (0.5)
이용업	2 (0.9)	-	2 (0.9)	16 (7.1)	1 (12.5)	15 (6.9)
미용업	70 (30.3)	1 (12.5)	69 (30.9)	15 (6.6)	-	15 (6.9)
세탁업	5 (2.2)	-	5 (2.2)	25 (11.1)	-	25 (11.5)
건물위생관리용역업	3 (1.3)	-	3 (1.3)	76 (33.6)	2 (25.0)	74 (33.9)
위생처리업 등	19 (8.3)	-	19 (8.5)	14 (6.2)	1 (12.5)	13 (5.9)
공중이용시설	6 (2.6)	-	6 (2.7)	61 (27.0)	4 (50.0)	57 (26.1)
전업종	31 (13.4)	1 (12.5)	30 (13.5)	14 (6.2)	-	14 (6.4)

<표 3-29>에는 지속적 관리 여부에 대한 사유를 조사한 결과가 정리되어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건강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없는 이유로는 풍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종 세분화 및 그에 따른 관리 필요, 세탁업 경우 회수건조기 관리, 수질 관리 등이었으며 다수 의견은 위생관리는 업주 자율적 관리가 좋다는 견해였다.

〈표 3-29〉 공중위생업종 향후 지속관리 필요, 불필요 이유

구분	주요 지속관리 필요 의견	주요 지속관리 불필요 의견
숙박업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신종유사업종 방지차원 등	풍속관련법규정에서 관리 필요, 위생관리는 영업주 자율관리화
목욕장업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등	수질관련규정에서 관리 필요, 위생관리는 영업주 자율관리화
이용업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폐영업방지 등	업종 세분화하여 구분관리 필요 등
미용업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등	업종 세분화하여 구분관리 필요 등
세탁업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등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선진국 사업영역	1인사업장이 다수로 관리효율성 문제
위생처리업 등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수질 및 환경관련 법규정 관리필요 등
공중이용시설	국민보건위생과 밀접 등	자유업종 관리 등

아. 신종 관리대상 업종

<표 3-30>에는 현재 신종업종인 업종의 관리 필요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고시원과 고시텔에 대한 향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9.4%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게스트하우스로 나타났다. 휴게텔, 레지던스 등도 두 자리수 응답의 관리 필요성을 보였다.

〈표 3-30〉 신종 관리대상 업종

(단위: 명, %)			
구분	합계	광역시(시도)	기초(시군구)
합계	221 (100.0)	6 (100.0)	205 (100.0)
고시원, 고시텔	62 (29.4)	-	62 (30.2)
휴게텔	26 (12.3)	2 (33.3)	24 (11.7)
독서실	6 (2.8)	-	6 (2.9)
레지던스	23 (10.9)	1 (16.7)	22 (10.7)
게스트하우스	53 (25.1)	2 (33.3)	51 (24.9)
기타	41 (19.4)	1 (16.7)	40 (19.5)

자. 민원

<표 3-31>에는 다빈도로 제기되고 있는 공중위생분야 민원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의 경우 유사숙박업 관리, 숙박요금, 숙박거부, 수질관리 등으로 조사되었고, 목욕장업은 수질관리, 이용업은 퇴폐영업과 위생관리 미흡, 미용업의 경우 기술 수준, 무신고 영업 등이 제기되었으며, 세탁업은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에 따른 사항 등이 민원 내용으로 나타났으나 법적으로 설치의무가 제정되어 향후 민원제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기된 민원 내용은 향후 공중위생업종별 발전 방안 등에서 검토되었다.

〈표 3-31〉 공중위생업종별 민원

구분	다빈도 민원 내용
숙박업	숙박거부, 주간숙박, 수질관리, 유사숙박업 영업관리, 숙박요금(바가지 등)
목욕장업	수질관리 등
이용업	퇴폐영업, 위생관리 미흡 등
미용업	퇴폐영업,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지 않음, 무신고영업(네일 등)행위, 염색방 관리문제
세탁업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 관련 사항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시설 등 기타	건물용도변경 문제, 상업지구, 국토이용관리법 등 중복규제 등

차. 최근 현안

<표 3-32>에는 각 업종별 현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제기된 민원내용과 대동소이한데 특히 미용업의 경우 셀프 염색방 등 관리 문제,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종 세분화 등 이었으며, 위생처리업, 건물관리용역업 등은 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체계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옥외가격표 시제도도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표 3-32〉 공중위생분야 현안

구분	최근 담당업무 관련 주요 현안
숙박업	유시숙박영업 관리, 용도변경
목욕장업	수질관리(입욕수, 먹는물 등), 쏘가마찜질방 등 관리부재, 실내공기질
이용업	일부 퇴폐업소 관리, 사양업종 육성화 방안 등
미용업	셀프염색방 관리방안,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업종분리 등) 등
세탁업	회수건조기 미설치업소 처벌한계, 실내공기질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시설 등 기타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 현실성 부족(예산, 인력부족),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카. 애로사항

<표 3-33>에는 업무 추진 상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즉,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결국 민원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일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의 경우 성매매, 대실위주의 영업 등이고, 목욕장업은 수질관리, 쏘가마로 조사되었다. 이용업은 사양업종으로 육성방안 부재가 애로사항이고, 세탁업의 경우 회수건조 설치 위한 비용지원이 가장 업무 추진 상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표 3-33〉 공중위생분야 업무 추진상 애로사항

구분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
숙박업	건물용도변경, 타 법 적용의 한계(국도관리관련, 풍속영업관련, 미성년자관련, 성매매관련 등), 주간숙박 문제(대실영업위주 영업),
목욕장업	수질관리의 부처간 관리 통일(욕조수, 먹는물 등), 쏘가마의 현실적 관리미흡
이용업	사양업종에 대한 육성방안 부재
미용업	염색방에 대한 관리규정 부재, 뷰티산업선진화 관련 지원방안, 종합미용범위에 대한 전문성 부재의 해결책 등
세탁업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 지원문제 등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위생처리업 등 공중이용시설 등 기타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예산, 인력확보 등) 지속성, 폐업업소 등 행정관리 불가

타. 기타 개선방향

<표 3-34>에는 공중위생업종별 발전을 위한 개진된 기타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건축법, 환경법 등 타 법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신종업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위생처리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기준 통합관리, 대형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및 주류판매 금지, 이용업의 경우 1회용 면도날 사용 의무화 등이 조사되었다.

〈표 3-34〉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단위: 명, %)

구분	내용
숙박업	종합숙박업(일반 및 생활숙박 등 포함) 검토, 영업장 객실수별 규제관리 차별화, 유사숙박업소 관리 강화(소독필증 의무화라도 하여 위생관리는 해야 한다고 봄), 국민의식 향상을 통한 자율규제화, 휴업제도 필요(휴폐업 업소 행정관리 필요 등),
목욕장업	수질관리 강화(욕수, 먹는물 등), 대형찜질방 위생관리 강화, 청소년 출입제한의 현실적 관리 필요, 새로운 업종(효소방 등), 영업장내 주류판매 금지, 휴업제도 필요(휴폐업 업소 행정관리 필요 등) 등
이용업	1회용 면도날 사용의무화, 사양업종의 재정비(이·미용 통합함), 합리적 요금징수제도 도입, 퇴폐영업 관리강화 등
미용업	합리적 요금징수제도 도입,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피부미용업	합리적 요금징수제도 도입,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자격전문화(업종세분화 등), 마사지업 등 유사업종과의 문제점 해결 등
세탁업	세탁기능사 활성화, 회수건조기 설치에 따른 재정 지원 등 방안 마련, 자유업종화,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안전규정(로프, 안전모 등 설치규정) 강화, 타 관련법(건축법, 환경법 등)으로 통합관리,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제외, 현실적으로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불가능(제외검토), 시설기준의 모호 등
위생처리업 등	대다수 영세업소, 환경관련법 및 식품위생법 등과의 관리 재정비 등
공중이용시설	타 관련법(건축법, 환경법 등)으로 통합관리, 다중이용시설과 중복, 자유업화 등 업종관리 전체적인 합리적인 재정비 검토 필요.
기타	네일아트업 등 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전반	과태료 부과수준 조정(강화), 공중위생서비스평가의 현실적 애로사항 해결책 마련(예산, 인력) 등

제4절 시사점

1.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현황 실태조사

가.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률이 낮아 이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지자체의 공중위생 인프라 현황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나.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나 예산, 인력 등 인프라가 타 분야에 비해 열악하므로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데 광역은 인력, 기초는 예산 부족을 최우선 해결사항으로 지적

다. 공중위생업무 과중정도, 만족도, 향후 발전가능성에 있어 기초 지자체 공무원이 광역지자체 공무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특히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라. 대부분의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담당자는 고유 업무외에 식품위생, 산불관리 등 기타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향후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2.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조사

가. 총 237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업무에 대한 만족도 등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점으로 높지 않게 나타나 향후 사기진작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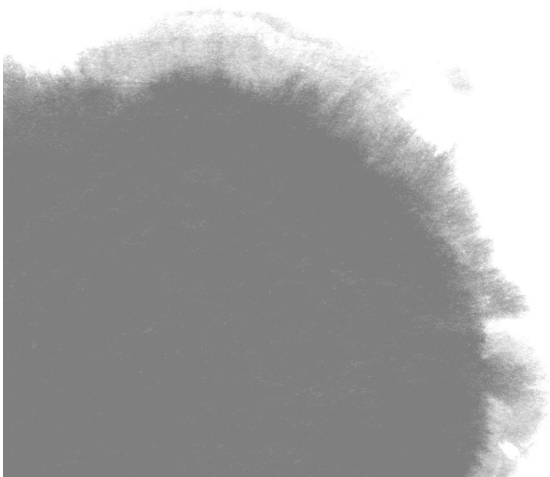
나. 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 1) 숙박업의 경우 유사업소 관리, 성매매 단속, 대실위주의 영업 행태 만연 등으로 나타났고,
- 2) 목욕장업은 수질기준 현실화, 대형 찜질방의 관리(청소년 심야 출입, 주류 판매 등) 등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조사되었다.
- 3) 이용업은 사양업종화 하고 있어 이·미용업 통폐합 등 관리 방안 마련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며
- 4) 미용업은 미용업 일반, 피부미용 등으로 나뉘는 현 자격구분 및 면허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 5) 세탁업은 세탁기능사제도 도입 검토와 더불어 세탁 편의점, 드라이크리닝 등 세탁업종의 세분화가 지적되었다. 아무리 세탁편의점이라도 일반 유통업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 6) 위생처리업, 건물위생관리용역업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타 법과 함께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4장

KI
H
S
A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 방향



제4장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 방향

제1 절 공중위생분야 현안

이번 절에서는 지난 6월 28일~29일(2일간) 개최되었던 공중위생분야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개선된 각 공중위생분야별 현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연구 진행기간 동안 일부 현안³⁾의 경우 관련 법규정 등이 개정된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1.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

가. 개요 및 현황

옥외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소 외부에 가격을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업소에서 가격을 실내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업소 입장 전 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실정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가 가능해 진다. 2013년 1월부터 이·미용업소에 우선 적용

3) 예로, 세탁기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 제도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였음.

한 후 다른 업종으로 순차적 적용할 예정이며 우선 영업신고면적이 66㎡ 이상인 업소는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옥외 요금 게시 항목은 이용업이 3종 이상, 미용업이 5종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행정처분이 가해지게 되는데 1차는 개선명령, 2차는 과태료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을 징수케 된다.

<표 4-1>에는 전국 이·미용업소의 면적 현황이 제시되어있는데 결국 이용업소의 5%, 미용업소의 15%가 우선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4-1> 전국 면적별 이·미용업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이용	미용
합계	118,690 (100%)	19,848 (100%)	98,842 (100%)
66㎡ 이상	15,928 (13%)	1,070 (5%)	14,858 (15%)
66㎡ 미만	95,462 (80%)	16,594 (84%)	78,868 (80%)
미입력	7,300 (6%)	2,184 (11%)	5,116 (5%)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옥외가격표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제기한 문제점은 허위가격표시로 인한 민원 야기, 업소 간 가격경쟁 야기로 서비스질 저하, 소규모 업소들의 도태 우려, 가격 표시시 항목 선정 어려움 및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업소 반발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표시방법 다양성 확보(지자체 홈페이지에 세부가격 고시 등),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관련 단체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확보), 행정처분 완화(과태료 50만원→20만원),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만 적용(인센티브 부여)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4-2〉 옥외 가격표시제도 도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가격표시로 인한 민원 야기 ○ 업소간 가격경쟁 야기로 서비스질 저하 ○ 소규모 업소들의 도태 우려 ○ 가격 표시 항목 선정 어려움 ○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업소반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표시방법 다양성확보 (지자체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실효성 확보) ○ 행정처분 완화 (과태료 50만원→20만원) ○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업소만 적용 (인센티브 부여)

2. 공중위생서비스평가제도

가. 개요 및 현황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근거하여 2007년 평가항목 및 평가매뉴얼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지자체별로 평가를 시작하였다. 또한 매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통합평가의 보건위생분야에 1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애당초 지자체에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일정액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예산확보 불발로 지원이 없다보니 지자체에 해마다 실시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업종별로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어 업종별로는 거의 2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문제점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법 및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여부이다.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최우수업소로 평가받은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는 결과 공표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평가가 평가요원의 전문성 미흡 등으로 위생서비스보다는 시설평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민원 발생업소, 행정처벌 업소 등에 대한 감점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표 4-3>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이 제시되어있다.

〈표 4-3〉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서비스평가 대상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서비스평가 실시 실효성 없음 - 서비스평가보다는 시설평가에 치우치는 경향 (신규업소에 유리) ○ 평가주기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위생서비스평가 시행연도 불규칙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활용 및 효과적인 지원 방법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실시에 따른 자체 예산 확보 애로 - 위생서비스평가 배점 형평성 ○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서비스평가결과를 전 업소를 대상으로 공표할 경우 최우수업소를 제외한 업주들의 반발 및 민원발생 우려 ○ 서비스평가 항목에 민원발생업소, 횡수 등에 대한 평가 감점제도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영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 위생서비스평가 주기를 2년으로 유지하되 평가 요원 전문성 확보 ○ 자체예산 확보로 최우수업소의 인센티브 제공 (표지판제작, 홍보물 등) ○ 점수 배점 조정(시설, 서비스 등) 및 위생관리용역업은 평가업종에서 제외 ○ 최우수 업소만 공표하여 업주들의 자율적 개선 의지 유도 및 업주들의 반발 최소화 ○ 서비스평가 항목에 감점제도 신설 및 감점 점수 표기화

3. 생활숙박업 등 관리

가. 개요 및 현황

2012년 1월 장기 투숙하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생활숙박업’업종이 신설되었다.

2012년말 현재 전국 숙박업소 30,447개소 중 3.9%인 1,176개소가 취사시설을 갖추어 놓은 생활숙박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생활숙박업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 동 업종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 되었다.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표 4-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생활숙박업에 대한 정의, 영업범위 등이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현재 일반 숙박업, 고시원 등과 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취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어 화재 발생 등에 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영업 신고시 반드시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필증’, 및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 투숙에 따른 요금정산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가격에 대한 사전 공지가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첫 계약시 제시되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표 4-4〉 생활숙박업 등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중 일부만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 일반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생활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구분 모호 ○ 생활숙박업소에서 장기(1월 이상)투숙하는 손님 의 경우 자유업인 원룸, 고시원 등과 차별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고로 대법원은 1월미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숙박업의 특징으로 보고있으며, '생활숙박' 용어 자체가 장기투숙의 가능성을 내포 ○ 현행 생활숙박업 위생관리 기준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 법에는 (숙박업)영업신고서 제출서류에 가스 등 관련설비 신고서 제출 규정이 없음 ○ '생활숙박업'은 요금표 게시를 함에 있어 1일 0원, 2일 0원, ...30일 금액 등 일자마다 각각 표시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현상 발생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중 일부만 취사시설을 설치한 경우 '생활숙박', '일반숙박' 업종구분에 혼동을 초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혼합숙박' 업종을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생활숙박업 업종을 폐지하고 숙박영업자 위생관리기준[별표4]를 다음과 같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그 밖의 준수사항 “영업장 또는 객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 ○ 생활숙박업종 폐지가 곤란한 경우 업종 명칭을 ‘취사 숙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용어 자체가 장기 체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취사가 가능함을 뜻하는 ‘취사숙박’으로 명칭 변경 ○ 숙박업 포함 공중위생영업과 요금표 게시의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에는 요금표 게시의무만 있고 게시된 요금보다 더받거나 덜받았을 경우 처분조항이 없으므로 실제 받는 요금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행정처분 과태료) 규정 신설 ○ (생활숙박업)영업신고서 [별지1호서식]중 신고자 제출서류 보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시설이 있는 생활숙박은 대형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음식점 신고할 때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

4.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

가. 면허제도 관련 개요 및 현황

현재 미용업 면허증은 학교 졸업장이나 국가기술자격증 확인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즉, 국가자격없이도 면허를 받아 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증이 타분야처럼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타 분야와 달

리 자격증없이 면허자의 감독이 있는 경우 업에 종사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 분야의 질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격검증을 위한 소정의 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표 4-5〉 이·미용사 자격 및 면허 취득현황

(단위: 명)

구분	이용사		미용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자격증	면허증
합계	4,261	2,736	27,524	38,527	51,318	14,699	100,418	18,917
2006	803	527	14,252	7,813	—	—	—	—
2007	615	610	13,272	10,355	—	—	—	—
2008	653	205	—	6,489	11,967	2,751	23,173	93
2009	747	515	—	5,392	12,996	3,664	32,379	7,456
2010	699	508	—	5,287	13,231	4,045	24,862	6,473
2011	744	371	—	3,191	13,124	4,239	20,004	4,895

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표 4-6>에 공중위생면허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자격과 면허의 이원화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어렵고,

〈표 4-6〉 공중위생분야 면허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제도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자격관리의 어려움 ○ 기존 면허증 발급시 검토사항 (금치산자 조회 및 건강진단서) 확인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면허자에 대한 처분을 갈음하여 자격소지자 관련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영업신고시 금치산자 조회, 건강진단서첨부 등의 규정을 법으로 명시

5.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가. 개요 및 현황

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에는 “매년 3시간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공중위생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개시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사정으로 1개월 또는 2개월에 1회 실시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사후교육이 인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7〉 2012년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종합/일반)	미용업(피부)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인원수	202,365	30,651	8,252	20,835	87,975	11,161	31,683	10,623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05)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표 4-8>에는 현 위생교육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있다.

미용분야 위생교육의 경우 전문화가 미비하여 피교육자의 불만거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네일분야에 대한 교육내용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위생교육 제도 개선시 마다 매번 지적되지만 위생교육시 당초 목적 외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교육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물품의 선전과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개선방안 또는 의견으로 폐업주가 동일한 업종에서 재영업을 개시할 경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교육을 과거 위생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폐업일로부터 2년이내의 경우에는 신규교육으로 인정하여 면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미용분야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내용을 세분화시켜 피교육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향후 미용이라는 단일자격을 폐지하고 피부와 일반으로 면허 등을 세부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인터넷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터넷 교육은 이동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현장교육시 이루어지는 물품판매 등을 피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도 여럿 지적된다.

즉, 인터넷 교육은 교육내용, 대상에 따라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인터넷 교육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문제점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신고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신고 할 경우 위생교육 중복이수 발생 ○ 위생교육 시간 내 물품판매로 인한 교육취지 저해 ○ 신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교육일정상 6개월 이내 이수가 어려움 ○ 네일 위주의 미용업(일반)은 위생교육 참여시 네일 관련 교육 내용이 없어 항의 있음. ○ 미용업(종합) 영업주의 경우 피부와 일반 중 어느 교육을 받아야할지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영업한 신고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신규위생교육 제외 (단, 폐업일로 부터 2년 이내) ○ 인터넷 교육활성화를 통하여 물품판매 등 현장 교육에서의 문제점 해결 ○ 신규교육을 폐지하고 기존 영업주교육으로 대체 ○ 사이버교육과목에 피부/일반/네일로 세분화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불만 해소 ○ 미용업(종합)을 폐지하고 일반/피부로 업종을 조정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향

1. 조사개요

숙박업, 목욕장업 등 각 업종별 현안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 중앙회에 서면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9>에는 이 조사의 개요가 정리되어있다.

〈표 4-9〉 공중위생 단체별 의견수렴 조사개요

조사구분	내용
조사대상분야	전국 공중위생분야 단체(협회, 연합회, 중앙회 등)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물수건처리업
조사대상기관	[인가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장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민간단체] 한국메이크업중앙회, 한국네일미용사회, 한국네일협회 등
응답기관	[인가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장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민간단체] 한국메이크업협회, 한국네일미용사회, 한국네일협회, 한국네일지식서비스협회 등
조사기간	2012.06.11~2012.6.30 (약 20일간)
조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조사방법	이메일조사 및 팩스조사 병행 / 이메일회신 및 팩스회신 병행
표본추출	전수조사
조사내용	각 업종별 주요 현안(문제점), 각 업종별 주요 현안별 개선방향
비고	보건복지부 인가법인 및 민간단체 등 포함한 전체 의견수렴

20일에 걸쳐 인가법인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공중위생관련 단체와 민간단체인 한국메이크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각 업종별

현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이메일조사와 사안에 따라 팩스 조사를 병행하였다.

2. 조사결과

가. 숙박업

<표 4-10>에는 숙박업의 현안과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우선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대실위주의 영업으로 일부 업소에서의 숙박 거부이며, 위생관리적인 측면에서 침대보 등의 위생관리, 수질관리, 정수기 관리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한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는 유사숙박업 인지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즉, 이런 업소의 영업신고, 관리부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관리근거를 만들어야 하겠다.

〈표 4-10〉 숙박업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영업 목표로 숙박거주 등 발생 ○ 찜질방 등의 숙박기능으로 인한 유사 숙박영업형태 업소와의 영업범위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신고와 위생관리에 법령적용상의 체계적 정비 ○ 업종간 영업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개정 및 법 적용

나. 이용업

<표 4-11>에는 이용업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표 4-11〉 이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이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업에서의 남성에 대한 미용행위로 인한 영업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손실 피해 - 사양산업화 - 일자리 감소 ○ 영세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복지비용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범위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업소 현황에서 기 분석되었지만 이용업의 경우 해마다 천여개의 업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 공중위생업종 중 가장 뚜렷하게 시장세가 감소하는 업종이다.

이용업 고유의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미용업의 통합, 이용업만의 독자 발전방안 마련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미용업

<표 4-12>에는 피부미용 등 포함한 미용업 전반에 대한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가장 오래된 현안은 미용업소내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불허로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미용기기라는 산업분류가 없는 실정으로 각 학교급별로 학교내에서 학습한 기기의 사용이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은 미용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 미용사 자격에서 피부분야가 분리됨에 따라 네일, 메이크업 등 타 분야의 자격분리 요구가 있고, 최근에는 두피관리, 손 및 발관리 분야도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2〉 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사용 불허 ○ 업종 및 자격 세분화 필요 ○ 미용사면허 분리신설 필요 ○ 신성장 산업으로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기기 관련법 신설 (고·저주파 미용기기의 미용실내 사용허가) ○ 미용업 각 업무에 맞는 면허의 세분화 필요 ○ 종합미용(헤어 등 전반적 미용관리) ○ 기존 종합미용업의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미용(헤어) - 피부관리 - 네일아트 - 메이크업 - 손관리 - 두피관리 등 자격 세분화

〈표 4-12〉 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계속)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미용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사용 불허 ○ 업종 및 자격 세부화 대두 ○ 미용사 면허 분리신설 필요 ○ 신성장 산업으로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뷰티 전문인력 재교육과 양성 및 소규모 뷰티숍 경영지원 등 뷰티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2년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을 추진 -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사업기간: 2012년 2월~2012년 12월(11개월) ·예산규모: 8억 5천백만원 ·사업내용: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소규모 뷰티숍 경쟁력 강화 및 공동브랜드 활성화, 뷰티관광 활성화 지원, 뷰티인의 밤 등 관련행사 개최 ○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뷰티산업 선진화 지원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 설치 - 기존 해외환자 유치산업 및 화장품 산업육성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세업자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관련기관과 기업간의 협력체계 구축 - 영세업자 프랜차이즈 모델개발, 뷰티 e-러닝시스템 구축, 해외진출 전략국가 시장분석 및 해외진출 매뉴얼 작성, 미용관광 활성화 등 세부사업 추진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뷰티산업 선진화 사업은 화장품 분야와 더불어 미용업 분야를 묶어 뷰티산업을 지정하고 국가의 신성장 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사업이라 하겠다. 2012년의 경우 예산은 8억 5천만원으로 뷰티산업 전문인력 양성, 소규모 뷰티숍 경영지원 등의 사업 내용이 있다.

1) 네일아트

<표 4-13>에는 미용업의 한 분야인 네일아트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네일아트의 경우 메이크업과 마찬가지로 직무 세분화를 통한 자격 분리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외에 네일아트의 무허가 영업에 대한 대응, 네일아트 시장규모 미추정, 1회 용품과다 사용, 서비스 특성상 먼지 및 오취물질 배출, 그리고 종사자의 위생복 관리 미흡이 해당 협회가 기타 현안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방안으로는 네일아트 자격 신설, 업장의 환기시설 등 세부 관리기준 마련 및 위생복장에 대한 규정 신설과 1회용품 사용 제한 목록 작성 및 규제 등을 개선하였다.

<표 4-13> 네일아트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네일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아트업 무허가 영업 ○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생산 부재 ○ 1회용품 과다사용의 문제 ○ 위생복의 위생관리 미흡 ○ 먼지 및 오취물질 배출 ○ 기존 미용업 업무범위인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에 대한 직무세분화와 수요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아트 국가자격체계화 (자격증 신설) ○ 통계생산 등 법제화 ○ 1회용품 사용제한목록 검토 및 규제방안 모색 ○ 위생복장에 대한 규정 신설 검토 ○ 환기시설 등 세부 관리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시설, 실내공기질, 소독방법, 시술시 위생기준, 화학물질 취급방법 등 기준마련 ○ 기본 미용업(일반)의 직무세분화 및 자격분리 검토(네일면허제 등)

2) 메이크업

<표 4-14>에는 미용업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분야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메이크업 분야의 현안은 피부미용업처럼 메이크업분야가 미용업에서 직무가 세분화되어 피부미용업처럼 자격분리 혹은 독립 면허를 신설하는 것이다. 메이크업 업무의 특성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 보다는 타 미용업과 연계성이 강한 업종으로 특히 미용업에서 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4〉 메이크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메이크업	○ 기존 미용업 업무범위인 얼굴손질 및 화장행위영역에 대한 직무세분화와 수요 증가	○ 기본 미용업(일반)의 직무세분화 및 자격분리 검토 (메이크업 면허제 등)

다. 피부 미용업

<표 4-15>에는 피부미용업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기 자격은 미용업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에 피부미용업종에 대한 정의가 없고, 업무범위에 ‘마사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업의 특성을 특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피부미용기기가 인정안되 사용할 수 없음과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위생교육 방법 도입을 원하고 있었으며, 위생교육시 실시되는 기술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즉, 현재 실시되는 기술교육의 수준이 업소차원에서 새롭게 배울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기존 안마사와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분야인 피부과와의 업무 마찰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마지막으로 미용실내에서의 미용기기 사용 허가 및 위생교육의 내실화 및 기술교육의 최신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표 4-15〉 피부미용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피부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미용업 업종정의 없음 ○ “마사지”용어사용의 제한 ○ 의료기기 사용 불허 ○ 위생교육의 질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피부미용업” 면허 분리 ○ 기존 안마사 영업범위 등과의 관련 규정의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허용시 장애인단체 반발우려 등) ○ 미용기기 관련법 신설 (교·저주파 미용기기의 미용실내 사용 허가) ○ 위생교육 필요성은 있으나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의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 필요 (인터넷교육, 기술교육 강화 등)

라. 세탁업

<표 4-16>에는 세탁업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1991년에 자격 신설이 되어 현재까지 배출하고 있는 세탁기능사에 대한 활용이 미비하며, 최근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영세업자 부담과 안전기준 마련 미흡, 오취물질 배출, 그리고 일본처럼 세탁업의 업종 세분화 요구 등이 세탁업의 현안으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안전기준 마련, 예산지원 및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는 행정조치 유보와 환기시설 설치기준 마련, 세탁기능사 자격증 활용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 영업개설 허가 및 일본처럼 일반 드라이클리닝, 물세탁, 세탁 편의점, 세탁공장, 기계자동코인영업 등으로 세분화하면 세탁편의점, 기계자동코인영업 등은 세탁기능사 자격이 없어도 영업 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6〉 세탁업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세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업의 세부분류 수요증가(일본 등) ○ 오취물질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드라이크리닝), 린넨(물세탁), 공장식대형(체인공장), 중개점(편의점), 기계자동교인영업(셀프빨래방) 등으로 업종 세분화 검토 필요 ○ 환기시설 설치기준 마련 ○ 세탁기능사 자격증의 활용을 위한 법제화 검토 필요

바. 공중이용시설

<표 4-17>에는 공중이용시설의 현안과 개선방향이 제시되어있다.

현재 지자체의 인프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음이 현안으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의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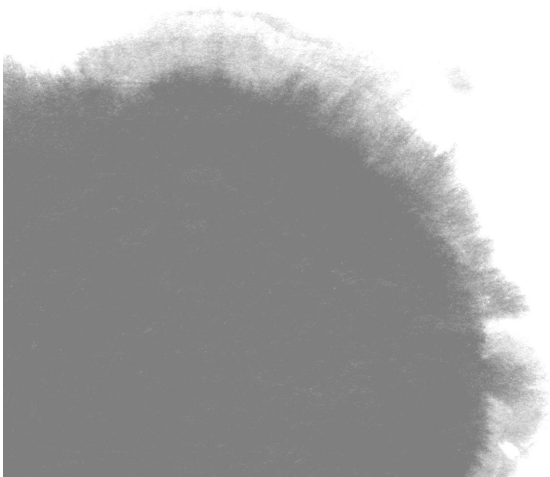
〈표 4-17〉 공중이용시설의 현안 및 개선방향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공중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강화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 (조직, 인력, 예산 등)

5장

KI
H
S
A

이 . 미용 위생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제5장 이·미용 위생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제1 절 이·미용분야 위생관리규정 등 평가

1. 공중위생법상 이·미용분야 위생관리 규정

가. 시설 및 설비기준

<표 5-1>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이·미용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현 시설 및 설비기준은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풍속에 관한 시설 및 설비기준으로 구성되어있어 향후 이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표 5-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관련)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4의2. 미용업(일반)

-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 가. 세탁용악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생관리용역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아·미용분야 기구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별표 3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즉, 일반기준으로 소독방법별 내용이 정리되어있고, 개별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따로 규정되어있다. 향후 좀 더 정치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5-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아·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별표3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I. 일반기준

1. 자외선소독 : 1㎡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준다.
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준다.
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준다.
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
5. 석탄산수소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
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

II.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아·미용분야 등 위생관리기준

<표 5-3>에는 아·미용분야 등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기준이 정리되어있다.

호주 등과는 달리 미용분야에서 점빠기, 쌍꺼풀수술, 문식, 박피 등 유사의료행위를 못하게 규정되어있고, 또한 피부미용분야에서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약품,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되어있다.

미용분야의 무자격자에 의한 유사의료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피부미용분야 등에서 학교 교육시부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일부 의료

기기에 대한 사용 허용은 향후 검토사안이라 하겠다.

〈표 5-3〉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별표 7

<p>1. 숙박업자</p> <p>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p> <p>(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p> <p>(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p> <p>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p> <p>욕조수는 별표 2의 I.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다. 환기 및 조명</p> <p>(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p> <p>라. 그 밖의 준수사항</p> <p>(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p> <p>(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p> <p>2. 목욕장업자</p> <p>가. 목욕실 등의 청결</p> <p>(1) 목욕실은 해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p> <p>(2) 탈의실·옷장·목욕실·발한실·물통·궤관·휴게실·휴식실·현관 및 화장실 등은 매월 1회 이상, 배수시설 및 오수조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p> <p>(3) 수건·가운 및 대여복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세탁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p> <p>(4) 이용기구 또는 미용기구를 비치할 경우에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p> <p>(5) 부대설비로 좌욕기 및 훈증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님 1인이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p> <p>(6) 욕수는 별표 2의 I.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p> <p>나.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p> <p>발한실 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발한실 안과 밖에 이용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p> <p>다. 조명 및 환기</p> <p>(1) 발한실·휴게실·탈의실·접객대·복도·계단·현관 및 화장실 그 밖에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 (2) 휴식실·목욕실 및 세면시설의 조명도는 40룩스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목욕실·편의시설·휴게실 및 휴식실 등에는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에 맞는 환풍시설 및 정화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기용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 (가)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온천수 또는 해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으로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입욕시설에서 입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 (다) 음주 등으로 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3)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목욕실·탈의실 및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5) 영업소 안에 목욕업신고증, 접객대에 목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6) 발한실 입구에 아래 해당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을 붙여 게시하여야 한다.
- (가) 감기에 걸렸거나 만 5세 미만 또는 전신 쇠약 증세 어린이
- (나)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자
- (다) 백내장이 우려되거나 안면홍조증 환자인 자
- (라) 노약자·임산부·고열환자 및 중증심장병 환자
- (마)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
- (바) 출혈을 많이 한 자
- (7)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의 영업자가 남녀공용 발한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한복을 착용한 뒤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8) 숙박에 이용되는 침구류 등을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일시적 수면이나 휴식을 위한 대형타월 및 베개 등은 비치할 수 있다.
- (9)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한다.
- (10)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10) 단서에 따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 (나) 출입 사유 및 출입 허용 일시
- (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 (라) 영업자의 확인 여부
- (12) 영업소의 표시는 신고된 명칭(상호) 및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용업자
-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영업소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라.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미용업자
- 가. 점빠기·킷블쥬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마.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 바.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5. 세탁업자
 - 가.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는 유기용제의 누출이 없도록 항상 점검하여야 하고, 사용 중에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세탁물에는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세탁업자는 업소에 보관 중인 세탁물에 곰팡이 등이 생성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6. 위생관리용역업자
 - 가.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나.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삭제 <2011.2.10>

2. 국내 식품위생법 등의 종사자 위생관리규정

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분야에서도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복장 등의 위생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 실시 등 질병과 관련된 규정이다.

<표 5-4>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규정되어있는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종사자는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표 5-4〉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p>제40조(건강진단)</p> <p>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p> <p>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p>
--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표 5-5>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건강진단관련 조항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5-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건강진단 규정

<p>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p> <p>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p> <p>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열거되어있는데 근거 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5-6, 5-7>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표 5-6>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2)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정기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4조 관련))

<표 5-7>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별표 1 제4조 관련)

대상	건강진단 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1회/년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 5-8>에는 「식품위생법」에 제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이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제1군감염병, 결핵 등에 이환되어있는 자는 공중위생분야에서도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표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동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痘)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찰진가무시증
- 카. 랩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炭疽)
- 하. 공수병(恐水病)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 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5. "제4군감염병"이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6. "제5군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7.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8.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9.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0.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1.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2.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6.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및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17.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1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9.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이·미용 위생지침 국제비교

1.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이용업

<표 5-9>에는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과거 퇴폐영업이 성행하였던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는 이런 퇴폐영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는 없는 영업장외의 유사시설 설치 및 칸막이 등 장애물 설치를 금하고 있는데 이런 풍속관련 규정은 위생과는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타 법령(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처럼 소독실 및 소독대 설치를 의무화함이 요망된다.

〈표 5-9〉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현규정	국외현황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본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 -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있지 않도록 주의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	- 모든 아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를 갖추어야 함.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미용업

<표 5-10>에는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5-10>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현규정	국외현황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본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 -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	모든 아·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를 갖추어야 함.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보관은 당연한 규정이고 일본은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에 대한 위생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습식소독대의 크기와 소독액의 오염방지를 위한 덮개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으며 미용업과 마찬가지로 칸막이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 미용 및 피부미용

<표 5-11>에는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규정은 의례적인 소독한 기구, 아니한 기구 등의 분리 보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규정에는 스파츨러, 화장용 브러쉬 등은 1회용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힘들 경우 1회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있다.

〈표 5-11〉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현규정	국외현황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파츨러, 화장용 브러쉬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한다.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 (최저 75°C)에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를 갖추어야 함.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2.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표 5-12>에는 아미용업 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표 5-12〉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우리나라 현황	국외현황	
<p>○ 일반기준</p> <p>1. 자외선소독 : 1cm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쬌어준다.</p> <p>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쬌어준다.</p> <p>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쬌어준다.</p> <p>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p> <p>5. 석탄산수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p> <p>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p> <p>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p> <p>○ 개별기준</p> <p>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일본	<p>○ 피부에 접하는 기구의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외선조사 20분 이상 - 끓기 시작한 후 2분 이상 끓임 - 8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쬌일 것 - 에탄올수용액 (76.9~81.4%)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함유 하는 솜(면:綿)등으로 닦을 것 - 차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76.9~81.4%)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역성비누수용액 (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글루콘산 Chlorhexidine 수용액 (0.05%)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양성계면활성제수용액(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면도칼·가위·빗·머리솔 등은 손님마다 세정하고 적정하게 소독된 것 사용함
	호주	<p>○ 이·미용사는 도구의 세척과 오염제거를 위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p> <p>○ 일반적 세척과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완전히 담근 도구는 (가위, 고리, 솔 및 빗 포함) 반드시 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물에 완전히 담그지 않은 도구는 (전자 면도기나 가위) 반드시 비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사용시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도구는 반드시 오염제거 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미국	<p>○ 소독방법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할 물건에 붙은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함. - 뜨거운 물과 비누로 물건을 깨끗이 닦음. - 맑은 물로 충분히 행구고 깨끗한 종이타월로 꼼꼼하게 말림. - 용액에 기구를 완전히 담근 후, 기구를 행군 다음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꼼꼼하게 건조시키고 나서 미리 소독된 건조보관함이나 밀폐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 보관 함. <p>○ 보관 구역은 청결해야 하고 칼날부분은 소독해야 한다. 전자 클리퍼 칼날은 매 사용 전후로 소독해야 함.</p> <p>○ 소독방법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 함. - 칼날을 제거하고 칼날 아래에 있는 머리카락과 이

우리나라 현규정	국외현황
	<p>물질을 모두 제거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날을 10분 정도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결핵 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에 담가 놓음. - 클리퍼 칼날을 제거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 지시서에 따라서,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이라면 스프레이나 폼형태로 된 소독제를 사용함.
일본	<p>이·미용업</p> <p>○ 도구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를 세척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는 개별 개수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영업 중에 사용했던 가장 큰 도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커야 한다. - 영업시간 중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도구는 선반에 보관해둬선 절대로 안 된다. - 도구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 도구는 이전의 세척 및 소독 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선 안 된다. - 세척된 도구들은 자외선(UV) 보관함에 보관한다. - 면도기는 칼날이 긴 재래식 면도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붕대와 도구는 반드시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을 피해야 하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 도구는 반드시 폐기하거나 오염제거세척방식을 사용해 반드시 세척한다. <p>미용업</p> <p>○ 소독약의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매일, 에탄올 소독약은 증발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하고 희석해서 만든 소독약은 1일 1회 이상 그 외의 것은 1주일 1회 이상 교환 - 소독용 에탄올과 같이 화기를 염금하는 소독액도 있으니 취급, 보관에 주의하고 소독약은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꺼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 <p>피부미용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 (최저 75℃)에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 소독한 도구들은 건조보관한다.
미국	<p>○ 소독용액은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된 것으로 반드시 결핵멸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p>

3. 위생관리기준 등

가. 이용업

<표 5-13>에는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일본은 면도날에 대한 상세한 위생기준을 규정하고 있었다.

〈표 5-13〉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국제 비교

우리나라 현규정	국외현황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일본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 -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본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일반 면도기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면도기를 해체한다. * 면도날은 사용 후, 준수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면도기 몸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 따뜻한 물에 행군다. * 따뜻한 물에 씻는다. * 뜨거운 물에 행군다. (최저 75℃) * 철저히 건조시킨다 * 면도기 몸체를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닦는다. * 건조보관한다.
다.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

<표 5-14>에는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면도날에 대한 위생기준을 미용업에도 규정하고 있었다.

〈표 5-14〉 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국제 비교

우리나라 현규정	국외현황
가. 점빠기·킷블뿔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일본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 -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일본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일반 면도기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면도기를 해체한다. * 면도날은 사용 후, 준수한 “날카로운 것”을 담는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면도기 몸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 따뜻한 물에 행군다. * 따뜻한 물에 씻는다. * 뜨거운 물에 행군다. (최저 75℃) * 철저히 건조시킨다 * 면도기 몸체를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닦는다. * 건조보관한다. 피부미용업 -스페큘러, 화장용 브러쉬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한다.
마.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현규정	국외현황
<p>바.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p>	<p>○ 시설내는 매일 청소하고 청결하게 정리정돈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의 모발은 손님마다 청소하고 뚜껑이 있는 용기에 수집 - 화장실도 매일 청소하고 악취가 없도록 청결히 유지 - 시설 안에는 함부로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들이지 않도록 함. - 적절한 채광·조명·환기 상태유지 - 조명기구: 정기적으로 청소 <p>○ 천류는 청결히 유지하고 손님 마다 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올, 백크 페이퍼 등은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한 손님마다 교환 <p>○ 작업실과 대기 장소의 구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실에 작업 중인 손님 이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않기 위하여 작업실과 작업 전 손님을 대기시키는 대기하는 장소는 명확히 구획할 것 <p>○ 청결한 작업복, 마스크 등을 착용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색 기타 오염이 쉽게 눈에 띄는 색의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 - 안면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 <p>○ 영업주 및 관리 미용사는 항상 종사자의 건강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시하는 등 종사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전염할 위험이 있는 질환에 감염되어 있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주의 <p>○ 신고·종사자나 시설의 구조설비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보건소장에게 신고</p>
<p>일 본</p>	<p>이·미용업</p> <p>○ 화학제품(약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름알데히드,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루엔디아민, 글리세릴 모노티오글리콜레이트, 싸이오글리콜산 등과 같은 유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p>(중략)</p> <p>○ 개인용 보호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모니아 싸이글리콜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파마약을 사용할 때는 니켈로 도금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좋은 품질의 스틸 또는 플라스틱 장비를 사용한다. <p>(중략)</p> <p>○ 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마, 염색 등의 작업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환기 시설을 잘 갖춘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냉, 난방 공기 조절장치는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기 보다는 희석시키고, 또한 공기 중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을 순환시킨다.

우리나라 현규정	국외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하면 국부배기장치도 설치한다. -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한다. <p>○ 위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 바닥, 마루갈래, 부속품, 가구와 도구들은 반드시 청결해야 하며 손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업소환경은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소 시 실내에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시설 내 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p>(중략)</p>
	<p>이·미용업</p> <p>○ 손과 의류의 청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하기 전에 물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함. - 이·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할 때는 청결한 상태여야 하며 깨끗한 의상을 입고 있어야 함. <p>○ 간접상태에 놓인 미용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의 결과 (백선, 욕, 이 및 농가진 포함) 다른 이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이·미용사는 전염시키지 않도록 합당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p>○ 정기 세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사는 손님이 떠난 후, 반드시 손님이 있었을 동안 사용한 오염된 모든 종이 수건을 폐기 함. <p>○ 재사용할 수 있는 수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사는 손님에게 다른 손님이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세척했던 재사용가능한 얼굴 수건, 목보호대, 목도리 또는 유사한 물건만 사용할 수 있음. <p>○ 면도용 깨끗한 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함. <p>○ 면도용 비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물비누, 면도용 크림이나 면도용 파우더만을 사용해야 함.

그리고 일본에는 네일업분야로 화학제품 사용 및 관리, 환기, 개인보호 장비, 업소청결 방법, 피부미용업에서 의류관리 지침, 소독한 기구의 관리 방법, 피부질환자 관리, 그리고 호주의 유해물질 및 보호 장비 관리 지침 등의 규정이 있다.

제3절 이·미용 위생지침 등 개정안

1. 시설설비기준

가. 이용업

<표 5-15>에는 현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어있다.

〈표 5-15〉 이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국제비교

현규정	개정안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하며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모든 이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 소독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간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나 타법 이관 검토
영업소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나 타법 이관 검토

주: 타법 이관의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나. 미용업

<표 5-16>에는 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이 제시되어있다.

소독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에 덧붙여 용기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습식소독대의 경우 크기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

〈표 5-16〉 미용업(일반)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현규정	개정안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하고,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모든 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 소독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함.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준치

다.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

<표 5-17>에는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다.

미용업(일반)에서처럼 소독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에 덧붙여 용기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습식소독대의 경우 크기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스파출리, 화장용 브러시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현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다, 라의 두 가지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제안하나 향후 심층 검토는 필요해 보였다.

〈표 5-17〉 미용업(종합) 및 피부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개정안

현규정	개정안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하고,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 스크출러, 화장용 브러시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한다.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미용실에는 소독실 및 소독대, 소독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습식소독대는 기구가 완전히 담가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하며, - 소독액의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가 있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상담실·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및 타법 이관
라.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및 타법 이관

2.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

〈표 5-18〉에는 이·미용업의 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의 개정안이 제시되어있다.
현 규정을 세분화하였다.

〈표 5-18〉 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개정안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p>○ 일반기준</p> <p>1. 자외선소독 : 1cm당 85μ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쬔어준다.</p> <p>2. 건열멸균소독 : 섭씨 100℃ 이상의 건조한</p>	<p>○ 피부에 접하는 기구의 소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외선조사 20분 이상 - 끓기 시작한 후 2분 이상 끓임 - 80℃ 이상의 증기에 10분 이상 쬔 것 - 에탄올수용액 (76.9~81.4%)에 10분 이상 담그거나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p>열에 20분 이상 쬔어준다.</p> <p>3. 증기소독 : 섭씨 100℃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쬔어준다</p> <p>4. 열탕소독 : 섭씨 100℃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준다.</p> <p>5. 석탄산수소소독 : 석탄산수(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p> <p>6. 크레졸소독 : 크레졸수(크레졸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한다)에 10분 이상 담가둔다.</p> <p>7. 에탄올소독 : 에탄올수용액(에탄올이 70%인 수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준다.</p> <p>○ 개별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에탄올 수용액을 함유 하는 솜(면·綿)등으로 닦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아염소산나트륨수용액(76.9~81.4%)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역성비누수용액 (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글루콘산 Chlorhexidine 수용액 (0.05%)에 10분 이상 담글 것 - 양성계면활성제수용액(0.1%)에 10분 이상 담글 것 - 면도칼·가위·빗·머리솔 등은 손님마다 세정하고 적정하게 소독된 것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완전히 담근 도구는 (가위, 고리, 솔 및 빗 포함) 반드시 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 물에 완전히 담그지 않은 도구는 (전자 면도기나 가위) 반드시 비수중 세척 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함. - 사용시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도구는 반드시 오염제거 세척방식을 사용해 세척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할 물건에 붙은 머리카락과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 용액에 기구를 완전히 담근 후, 뜨거운 물과 비누로 물건을 깨끗이 닦은후, 맑은 물로 헹군 다음 깨끗한 종이수건으로 꼼꼼하게 건조시키고 나서 미리 소독된 건조보관함이나 밀폐되지 않는 용기에 넣어 보관 함. - 전자 클리퍼 등 칼날을 제거할 수 없다면, 제조업체 지시서에 따라서, 결핵멸균살성을 가진 용액이라면 스프레이나 폼형태로 된 소독제를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업 기구 소독은 기구를 세척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는 개별 개수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영업 중에 사용했던 가장 큰 기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반드시 커야 한다. - 영업시간 중에 더 이상 쓰지 않는 도구는 선반에 보관해둬선 절대로 안 된다. - 기구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세척 소독해야 한다. - 기구는 이전의 세척 및 소독 과정 없이 또는 젖어있을 때 살균제에 넣어선 안 된다. - 세척된 도구들은 자외선(UV) 보관함에 보관한다.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소독약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매일, 에탄올 소독약은 증발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7일 이내에 교환하고 희석해서 만든 소독약은 1일 1회 이상 그 외의 것은 1주일에 1회 이상 교환한다 - 소독용 에탄올과 같이 화기를 염급하는 소독액도 있으니 취급, 보관에 주의하고 소독약은 즉시 교환할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p>수 있도록 꺼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 (최저 75°C)에 소독하거나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3. 이·미용 위생관리기준

가. 이용업

<표 5-19>에는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이 제시되어있다.

〈표 5-19〉 이용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가. 이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하며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이용사는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손님을 면도해줄 때 반드시 물비누, 면도용 크림이나 면도용 파우더만을 사용해야 한다. - 일반 면도기는 매 사용 후 반드시 아래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 면도기를 해체한다. - 면도날은 사용 후, 준수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 면도기 몸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다. - 따뜻한 물에 씻고, 뜨거운 물(최저 75°C)에 행군다. - 철저히 건조시킨다 - 면도기 몸체를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닦는다. - 건조보관한다.
다. 업소내에 이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및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존치
라.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존치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에 대한 추가 규정과 특히 1회용 면도날 사용 후 처리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1회용 면도기가 아닌 일반면도기 사용시의 위생관리기준을 추가토록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나. 미용업

<표 5-20>에는 미용업의 위생관리기준 개정안이 제시되어있다.

유사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치함이 바람직하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조항은 추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미용업(일반)에서처럼 소독된 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기구의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에 덧붙여 용기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습식소독대의 경우 크기에 대해서도 추가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미용사의 일반적인 업무 종사 행태와 업소 관리에 대한 청소규정 등을 상세히 추가하였다.

향후 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네일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따로 검토되어 규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20〉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위생관리기준 등의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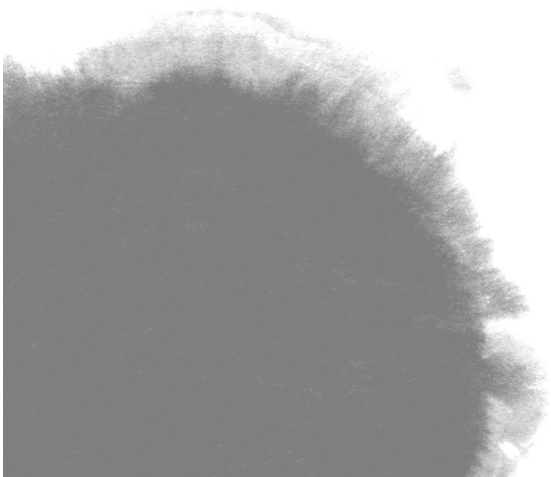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가. 점빠기·긱볼뽑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존치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후 검토
다.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한 기구는 사용한 것과 구분하여 청결히 보관하며 소독한 기구의 보관용기는 모발 등이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스파츨러, 화장용 브러쉬 등 가능하다면 1회용 도구로 교체해서 사용한다. 1회용 사용이 힘들다면, 1인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 사용하여 도구와 분리해서 보관한다. - 사용한 도구는 따뜻한 물 (최저 75℃)에 소독하거나

우리나라 현규정	개정안
	자외선 소독을 하거나 알콜이 70% 들어간 용액제로 소독한다.
라.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1회용 면도기는 손님 1인에 한 하여 1회 사용 후, 반드시 “날카로운 것”을 담은 용기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
마. 업소내에 미용업신고증, 개설자의 면허 증원본 및 미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존치
바.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존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는 반드시 손님을 대하기 전에 물비누와 깨끗한 물로 손을 철저히 씻어야 한다. - 미용사는 백색 기타 오염이 쉽게 눈에 띄는 색의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한다. - 안면작업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한다. - 시설 안에는 함부로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들이지 않도록 한다. - 적절한 환기 상태를 유지한다. - 조명기구는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 타올, 냅크 페이퍼 등 천류는 청결한 것을 사용하고 한 손님 마다 교환한다. - 작업실에 작업 중인 손님 이외의 사람을 함부로 출입시키지 않기 위하여 작업실과 작업 전 손님을 대기시키는 대기하는 장소는 명확히 구획한다. - 포르말데히드, 파라-페닐렌디아민, 파라톨루엔디아민, 글리세릴 모노티오글리콜레이트, 싸이오글리콜산 등과 같은 유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사용을 자제한다. - 암모니움 싸이글리콜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파마약을 사용할 때는 니켈로 도금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좋은 품질의 스틸 또는 플라스틱 장비를 사용한다. - 파마, 염색 등의 작업은 환기가 잘 되는 곳이나 환기시설을 잘 갖춘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환기가 어려운 경우,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한다. - 벽, 바닥, 마루 깔개, 부속품, 가구와 도구들은 반드시 청결해야 하며 손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업소환경은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소 시 실내에 먼지를 일으키는 진공청소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상시 물걸레를 통한 청소를 통해 부유먼지를 제거한다. 또한 시설 내 기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스팀청소가 필요하다.

6장

KI
H
A
S
A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 및 National Agenda 도출



제6장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 및 National Agenda 도출

제1 절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안

1. 이·미용업의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주는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사료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미용업소가 서비스 가격에 대한 게시가 매우 불량하여 서비스 후 소비자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은 채 요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옥외가격표시제 실시는 향후에도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옥외가격표시제가 추진되므로 인해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업소간 적정한 경쟁하에 업계의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 제도의 본격 시행 후 업주의 허위가격표시, 서비스 질 저하, 행정처벌 수위 등에 대한 민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제도의 원래 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므로 전국 확대하여 실행함이 요망된다.

2. 공중위생업소 평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는 없고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계속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즉,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평가성적이 우수한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표지판제작, 홍보물 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또한 최우수 업소만 공표하여 업주들의 자율적 개선의지 유도 및 업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별 심층 검토가 필요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지원방안 마련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겠다.

더불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평가 항목에 감점제도 신설 및 감점점수 표기화 및 감점의 사유를 작성토록 평가표를 개선토록 한다.

3. 위생교육 내실화

사이버교육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 하여 피교육자의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고, 또한 현장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판매와 회비 납부 강요 등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교육내용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현재 미용업의 경우에 위생교육 내용이 각 업태별로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네일 등에 대한 위생교육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각 분야별 교육내용을 세분화하여 위생교육을 정착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 위생교육을 6개월 이내 이수 못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6개월 이내의 교육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동종 업종을 재신고할 시 종전 영업한 신고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신규위생교육 제외하여 (단, 폐업일로 부터 2년 이내)하여 중복 위생교육을 해소하는 방안도 업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폐지함을 검토함이 필요하다.

<표 6-1>에는 업종별 현안과 개선방안이 정리되어 있다.

〈표 6-1〉 공중위생분야 각 업종별 주요 현안별 제도 개선방향

현안		개선방향
세탁업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제도	- 제도 존치 - 시설규정화하며 업주 위생교육 강화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 제도 도입 - 정치한 행정처벌 규정 마련
숙박업	생활숙박업 등 관리	- 제도 존치 -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필요 - 정의, 업무범위 등 세분화로 기존 업소와 차별화
공중위생업	위생서비스평가 사업	- 제도 존치 - 평가표 수정 및 보완,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 기재 등
	자격 및 면허제도	- 제도 개선 - 자격 및 면허 통합 - 자격시험 실시로 무시험 면허발급 제도 폐지
	위생교육제도 개선	- 제도 존치 - 교육내용 강화 및 교육방법 개선

제2절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안

1. 기본방향

<표 6-2>에는 공중위생업종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있다.

우선 공중위생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화되어야 하는데 삶의 질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치 설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새롭게 생겨나는 업종에 대한 안전 등 관리와 기존 업종에 대한 지원 등의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며, 각 업종별 중요성은 동일하다. 공중위생분야는 식품, 환경 등과 더불어 안전규제는 강화함이 필요하고, 절차적 규제 등은 완화함이 필요한 사회규제의 일종이다. 또한 뷰티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관심은 자칫 타 공중위생업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로 기존 업소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 더불어 지자체의 공중위생 분야 인프라 강화는 향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표 6-2〉 기본방향

○ 공중위생업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 위생 및 안전분야 규제 합리화
- 규제 강화, 완화, 신설, 폐지
○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강화(조직, 예산 및 인력 등)
○ 새로운 영업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
- 영업범위, 시설설비기준 및 위생관리지침 제개정
○ 전 공중위생업종의 균형적 발전
- 뷰티산업에 집중되어있는 지원을 전 공중위생업종에 균형적으로 확산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의 내실화
○ 기존 영업에 대한 지원 강화

2. 각 업종별 발전방안

가. 숙박업

2011년 가계지출 현황에서도 분석되어 있듯이(표 2-15 참조) 지난 10년간 숙박업의 영업 성장세가 공중위생업종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여기에는 관련되는 여러 법의 제개정 및 시행이 원인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숙박업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숙박업의 출현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공중위생법 상 한 업종인 찜질방이 숙박업의 숙박기능을 일정부분 대체하고 있고, 또한 펜션,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업으로 미신고 업소 등이 유사숙박업으로 숙박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숙박업이 신설되기도 하였는데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지만 유사숙박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숙박업의 업무행태도 지

켜주고, 소비자의 안전관리도 담보되어야 하겠다.

나. 목욕장업

췌가마 찜질방 등이 현재 목욕장업의 한 형태로 관리되고, 신고의무화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 업소가 미신고하고 있어 이럴 경우 불법영업이 되므로 이런 업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업종의 영업이익 등과도 직결되지만 나아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해당 업종의 현안이기도 할 수 있다.

다. 이용업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이용업의 시설 개보수가 필요해 보이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과거 퇴폐업소 등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건전한 업소 운영이 요망된다.

라. 미용업

피부분야가 미용업에서 자격분리되면서 메이크업, 네일 등 기존 미용분야의 분리가 요구되고 있고, 나아가 발관리, 두피관리 등도 세분화하지는 욕구가 미용업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분야는 자격이 분리되어 독립분야로 자격시험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 면허 등도 분리되어 미용의 한분야로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 분야의 세분화도 시장규모, 독립 여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안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미용업 전체적인 지적사항인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전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헤어 분야는 현재도 국제경쟁력이 있으므로 피부 등 타 분야에 대한 세 확장보다는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마. 피부미용업

자격이 분리된 상태에서 면허도 분리, 신설됨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야인 피부과와 업무 범위 등으로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이다. 그리고 현재 피부미용업의 전체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실태 자료가 없어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피부미용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업계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보다 정부 차원에서의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분야이다.

바. 세탁업

세탁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 배출된 인력의 적정 활용을 위해 세탁기능사 자격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즉, 배출된 인력의 활용을 법제화 하여 소비자에게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공장형 세탁소의 출현에 의한 세탁 편의점 등이 나타나 실제 업소에서 세탁을 하지 않는 업소와 세탁을 하는 업소의 관리 차별화를 위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

제3절 공중위생분야 발전을 위한 National Agenda 도출

1. 공중위생업 내부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가. 미용, 피부미용분야 자격 및 면허 통합

공중위생업 분야에서도 유독 미용분야만 자격과 면허가 이원화되어있다. 즉, 미용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자격증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영업을 개설하기 위한 소재 행정기관에 가선 면허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과거 6.25 등 국가 재난을 겪으면서 여성가장 우대 정책으로 타 분야와 달리 손쉽게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없이 면허를 발급하던 관행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더불어 미용분야의 국가자격시험이 신설되어 국가 자격증이 발급되면서 자격과 면허가 이원화되었다.

자격을 면허로 교체하기 위한 행정비용도 소요되고, 타 분야와는 다른 행정체계로 하대받고 있어 미용분야 자격과 면허를 통합하여 하나의 증만 있으면 업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미용, 피부미용 자격시험 실시

현재 미용관련 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무시험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격증없이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제도도 문제이고, 합격률 등을 고민하여 미용분야 발전과는 상관없이 현재처럼 계속 시험없이 면허 발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해당 학교 관련자도 문제이다.

소비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용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우리나라 미용, 피부미용 업소의 종사자의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 모든 공중위생업 업주 혹은 종사자 해당 자격증 소지

기 언급한 바와 같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얻어지는 자격증 없이 업소를 개설하고 있고, 세탁업분야에서는 세탁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있지만 자격증 소지가 업소 개설의 선수 조건이 아니라 활용이 유명무실하다.

현재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은 고유의 자격증이 있고, 숙박업, 목욕업 등은 전기, 소방 등 해당 분야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다.

이·미용, 세탁, 목욕, 숙박 등 모든 공중위생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소지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업종 종사를 금해야 한다. 이렇듯 필요한 자격증의 소지는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 해당 분야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할 수 있고, 향후 외국계 업소와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향후 신규 종사자는 물론 기존 종사자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소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영업 종사자는 그 자격을 유지시키거나, 유예기간을 주어 소지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라. 위생교육 내실화

교육은 모든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방법이다.

공중위생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 내실화된다면 여러 부분의 문제점을 교육을 통해 전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중위생분야 위생교육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교육내용에 대한 업주들의 만족도가 낮아 잦은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위생교육이 관련 협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내용, 시기, 방법 등을 다양화하여 업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시의성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위생교육을 내실화한다면 정부가 전달할 사항도 단체로 전달 가능하여 위생교육의 활용도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교육 수준을 제고하여 업주들의 위생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마. 이·미용업 업무 범위 통합 여부 심층 검토 및 사후조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고객의 성별에 관계없이 이미용 서비스를 원하는 업소에서 받고 있어서 굳이 이용업과 미용업을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 이용업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미용업소 이용자보다 적어져 이용업이 점점 더 사양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이 초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해당 업계에 있다. 미용업의 경우 꾸준한 기술 개발·연마로 지속적 방문 고객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반면에 이용업소는 퇴폐업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고객의 이용이 줄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미용업 영업 규정을 통폐합하여 이용사, 미용사 구별없이 이·미용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 업소 선택은 전적으로 고객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면 될 것이다.

2. 공중위생업 외부환경 변화를 유도하는 National Agenda

가. 지자체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강화

지자체의 공중위생 담당 부서의 인프라는 지자체 내에서도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중위생분야의 최종 집행업무는 지자체로 현장에서의 업무 비효율화는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나. 새로운 업소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사회의 변화와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업종의 출현과 기존 업종의 소멸 등 업종, 업소의 부침이 발생한다. 물론 사회의 변화에 정부 관리 정책이 같은 속도로 갈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숯가마 찜질방이 유행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새롭게 출현하는 모든 형태의 업소에 대해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다. 공중위생업소 인증 통합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대국민 서비스 중의 하나는 올바른 정보의 시기적절한 제공이다. 정부 조직의 감축화로 과거처럼 모든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도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정확한 많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업소 인증제도이다. 업소의 수준에 따른 인증을 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인데 통보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홈페이지 게재, 업소에 인증 결과 부착 등이며 공중위생분야는 특히 숙박업종에 여러 가

지 인증이 남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굿 스테이 등으로 지자체별로도 나름의 인증 사업을 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통일된 인증을 하여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정형화된 각 업종별 실태조사 실시 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일본은 각 공중위생업종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해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각 공중위생업종별로는 2년 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셈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업종을 달리 하여 공중위생업종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도 가능해 진다.

이런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근거중심적인 정책수립,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분야의 복지패널, 보건의료분야의 의료비 패널 등과 같이 패널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마. 유사업소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숙박업, 목욕장업 등 기존 법령에 규정된 합법적 영업 행태 외에 유사업소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해당 업종의 영업수지에도 타격을 가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생활 숙박업, 펜션 등 유사업소에 대한 정의, 업무범위, 관리 법령 등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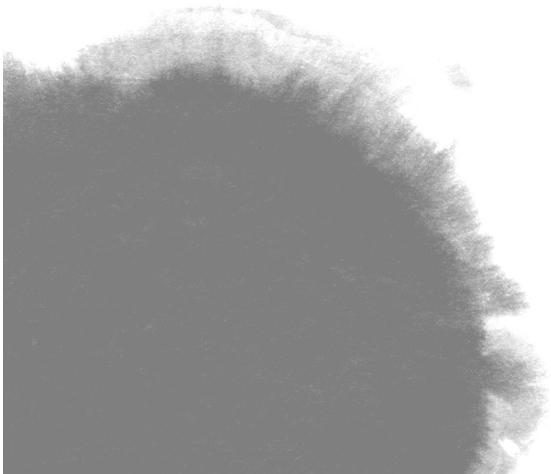
바. 의료 등 타 분야와 업무범위 조정

의료 등 타 분야와의 업무 갈등을 해소하여 업종별 고유한 업무 범위내의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즉, 피부미용 분야는 현재 마사지 등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 업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라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7장

KI
H
S
A

결론 및 정책제언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 절 결론

공중위생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미미하게나마 확산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이 제고되면서 공중위생 서비스의 안전관리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은 업종별로 발전과 퇴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미용업, 피부미용업 등은 자격 세분화와 더불어 뷰티산업이라는 신성장 산업으로 재가공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으나 이용업은 과거 퇴폐이발소라는 오명하에 지금은 이·미용업간의 통합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전한 업소 운영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할 수 있다.

1998년 WTO 출범이후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 간 우리나라에도 영국 등 외국계 미용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하여 곳곳에 외국계 업소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시장은 활짝 열려있는 실정이다.

기존 국내 업소도 고급화, 대형화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으로 업무 범위 확대와 서비스 차별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숯가마 찜질방 등 아주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물론 정부 제도가 사회적 변화를 바로 바로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국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새로운 업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업소 등에 적용되었던 위생지침 등은 시의성 있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업소 지원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세탁소에 회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미용업소의 서비스별 가격을 옥외에 제공하여 사전에 알 수 있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반면에 정부의 규제를 잘 준수하는 건전한 업소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업종별 시장현황과 특히 각 업종별 현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공중위생분야 인프라 실태조사, 분석을 하였고,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방안과 반드시 추진해야 할 National Agenda를 공중위생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환경과 내적환경의 두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과제 성격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추진 속도가 다르겠지만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National Agenda로 사료되며 이의 계획된 추진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 발전을 위한 안을 제시하였으나 명년에 바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정책제언을 개진하면 다음과 같다.

1. National Agenda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공중위생업종별 발전을 위한 총 11종의 National Agenda가 제 6장에서 제시되었다. 공중위생업종 내부 변화와 발전을 위한 5개 과제와 외부환경 변화를 위한 6개 과제로 구분되었는데 과제별 추진 시기 등이 단기, 중장기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제시된 National Agenda 추진 및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 등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하에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향후 공중위생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중위생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 구축 및 실태 조사 실시

일본은 각 공중위생업종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해마다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각 공중위생업종별로는 2년 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셈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년 업종을 달리 하여 공중위생업종별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 조사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형화된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도 가능해 진다.

이런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면 근거중심적인 정책수립,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복지 분야의 복지패널, 보건의료분야의 의료비 패널 등과 같이 패널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지침 개선

올해 연구에서 이·미용 분야의 위생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검토와 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 각 공중위생업종별 위생관리지침은 아직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어있지 않아 법 적용상의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미용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 마련과 더불어 기존 위생관리지침의 시의성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은정 외, 『이·미용관련 학교 학과 교과목 이수규정 연구』, 보건복지부. 2009.
- 양승인, 『유기용제회수기 안전기준 및 관리방안 연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0
- 정기혜 외,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기혜 외, 『이·미용 및 조리분야 자격·면허제도 통합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8.
- 정기혜 외, 『공중위생영업(숙박·이용업)위생서비스 평가』, 보건복지부. 2009.
- 정진욱 외,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시범평가 및 추진체계 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정진욱 외,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1.
- 원종욱, 『뷰티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2010.
- 황순욱 외,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 보건복지부. 2011.
- 보건복지부, 『2012년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령집』, 보건복지부. 2012.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소비자안전센터, 『찜질방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 소비자안전센터. 2010
- 일본동경도청, 『이용소 및 미용소에 있어서 위생관리요령』, 2007.

일본동경도청, 『이·미용사법시행규칙』, 2007.

일본동경도청, 『환경위생관계시설의 감시지도 등에 관해서』, 2007.

일본동경도청, 『2005년 환경위생관계 영업시설 감시보고집계』, 2006.

일본이타바시구보건소, 『이·미용소 개설신고서』, 2008.

일본에스테틱기구, 『에스테틱샤롱 인증기준 취지와 해석 운영규정』, 일본에스테틱
기구, 2009.

일본전국생활위생영업지도센터, 『미용업에 관한 표준영업약관규정집』, 전국생활위생
영업지도센터, 2009

일본전국생활위생영업지도센터, 『세탁업에 관한 표준영업약관규정집』, 전국생활위생
영업지도센터, 2009

일본 전국세탁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 『세탁업핸드북』, 전국세탁업생활위생동업
조합연합회, 2008.

환경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 2008.

ACT Government, Australia. Public Health (Hairdressing) Code of Practice.
2000.

EPA. Protecting the Health of nail Salon workers. EPA no. 744-F-07-001
March 2007

Hampshire Country Council, the United Kingdom. Laundry Manual. 2007.

Kansas State University. Kansas Dry Cleaner Manual Complying with
Kansas Environmental Regulations: Kansas SBEAP (Small Business
Environmental Assistance Program) the Latest Version: Feb. 2011

The State of Queensland, Australia. Health Safety Guide for the Hairdressing,
Nail, and Beauty Industry. Lasted updated June 2011.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Protecting the Health of
Nail Salon Workers. accessed at . 2007.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RCRA in Focus: Dry
Cleaning. 1999.

西岡和恵. 미용사·이용사의 피부미용질환과 그 예방대책, 2010.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kca.go.kr>

일본 전국생활위생영업지도센터 홈페이지 <http://www.seiei.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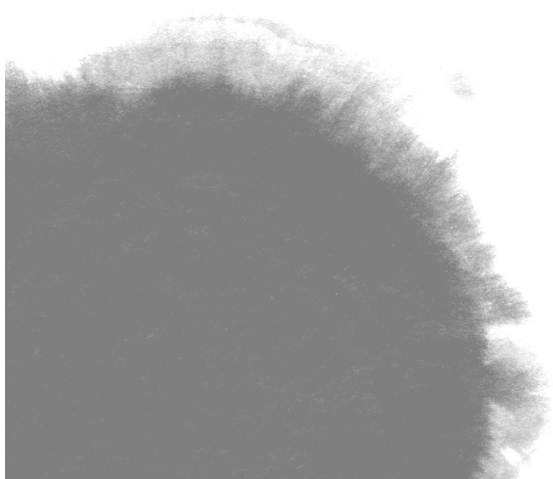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http://www.epa.gov/history/topics/caa90/08.htm>

<http://www.epa.gov/air/caa/>

<http://www.epa.gov/ttn/atw/dryperc/percguid.html>

2017



부록

부록 1.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광역자치단체)

구분	지역	ID	관리자 코드
① 시·도 인프라 취합용			

공중위생관리제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인프라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미용 등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제도의 효율성 확보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정책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절대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혜

전문연구원

윤시몬 ☎ 02)380-8213

전문원

조주연 ☎ 02)380-1679

Fax 02)353-0344

1.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인프라 조사

☐ 16개 각 시·도 광역자치체의 공중위생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1인 대표 작성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지역	시·도 명칭				
인구	주민등록 인구수			명	2011년말 통계청 보고기준
업소수	공중위생업			개소	
	위생처리업 등			개소	
	공중이용시설			개소	
	합계			개소	
예산	전체 지자체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회 계 연 도 2011년말기 준 세출총액 (사업예산)	
	부서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공중위생업무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행정	지도	업소수	개소		2011년말 최종통계보고 기준
	점검	회수	회		
	위반업소		개소		
	행정	업소수	개소		
	처분	회수	회		
	인력 (공무원)	지자체 총 인원	지자체 총 현원수		
	부서 인원	지자체 부서 현원수		명	
	업무담당 인원	공중위생업무담당 현원수		명	
조직	해당과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위생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위생과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생활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정책과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정책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직 중복	타 조직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 식품위생관련 조직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 기타 조직 (기타:)			
전문성	자격 및 면허증 소지현황	의사		명	
		약사		명	
		수의사		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위생사	명
		영양사	명
		조리사	명
		의료기사	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명
		기타1 ()	명
		기타2 ()	명
		기타3 ()	명
		소계	명
인력	직위	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
		10급	명
		기타	명
		소계	명
	직급별	일반직 (행정직)	명
		보건직	명
		수의직	명
		환경직	명
		식품위생직	명
		의료직	명
		간호직	명
		의료기사직	명
		기능직	명
		별정직	명
		기타	명
		소계	명
	성별	남자	명
		여자	명
		소계	명
	연령	10대	명
		20대	명
		30대	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60대 이상		명
		소계		명
	최종학력	고졸 이하		명
		초대졸 이하		명
		대졸 이하		명
		대학원 이상		명
		소계		명
	총 근속기간	임용일 이후 2012년 6월말 기준	1년 미만	명
			1~5년 미만	명
			5~10년 미만	명
			10~20년 미만	명
			20~30년 미만	명
			30~40년 미만	명
			40년 이상	명
			소계	명
	공중위생담당 근무기간	업무담당 총 경력 2012년 6월말 기준	1년 미만	명
			1~5년 미만	명
			5~10년 미만	명
			10~15년 미만	명
			15~20년 미만	명
			20~25년 미만	명
			25~30년 미만	명
			30년 이상	명
			합계	명
업무 중복	소속부서 수행업무	공중위생관련 업무		명
		공중위생관련 업무 + 식품위생관련 업무		명
		공중위생관련 업무 + 기타 업무		명
	중복업무 종류	중복업무 종류		중복률
				%
				%
				%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
대분류	공중위생관련 담당업종 (중복응답)	현황	공중위생관련 담당업무 내용 (중복응답)	현황
담당업무	민원접수	명	민원접수	명
	먹는물	명	인·허가	명
	실내공기질	명	지도단속 및 점검	명
	수질개선 및 수처리제업	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명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명	통계보고	명
	숙박업	명	계획수립	명
	목욕장	명	일반관리 및 전반적인 행정 운영	명
	이용업	명	세외수입 등 관리	명
	미용업	명	소관문서 심사/관리	명
	세탁업	명	공중위생행정전산망 관리	명
	건물위생용역업	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
	물수건처리업	명	관련 신종업종관리	명
	공중이용시설	명	공중위생교육	명
	공용화장실	명	담당 각 업종별 전반적인 업 무	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	공중위생관련 총괄업무	명
	공중위생업 총괄	명	기타	명
	기타	명	소계	명
	소계	명		

부록 2. 공중위생인프라 현황 조사표 (기초자치단체)

구분	지역			ID			관리자 코드	
② 시·군·구 인프라 취합용								

공중위생관리제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인프라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미용 등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제도의 효율성 확보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프라 분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정책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절대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혜

전문연구원 윤시몬 ☎ 02)380-8213

전문원 조주연 ☎ 02)380-1679

Fax 02)353-0344

2.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인프라 현황 조사표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공중위생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1인 대표 작성**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지역	시·도 명칭					
인구	주민등록 인구수			명	2011년말 통계청 보고기준	
업소수	공중위생업			개소		
	위생처리업 등			개소		
	공중이용시설			개소		
	합계			개소		
예산	전체 지자체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회 계 연 도
	부서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2011년말기준
	공중위생업무 예산	총:	천원	사업비:	천원	세출총액 (사업예산)
행정	지도	업소수			개소	2011년말 최종통계보고 기준
	점검	회수			회	
	위반업소				개소	
	행정	업소수			개소	
	처분	회수			회	
인력 (공무원)	지자체 총 인원	지자체 총 현원수			명	2012년 6월말 기준
	부서 인원	지자체 부서 현원수			명	
	업무담당 인원	공중위생업무담당 현원수			명	
조직	해당과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위생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위생과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생활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정책과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정책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직 중복	타 조직 중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 식품위생관련 조직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조직 + 기타 조직 (기타:)				
전문성	자격 및 면허증 소지현황	의사				명
		약사				명
		수의사				명
		위생사				명
		영양사				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인력		조리사	명
		의료기사	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명
		기타1 ()	명
		기타2 ()	명
		기타3 ()	명
		소계	명
	직위	4급	명
		5급	명
		6급	명
		7급	명
		8급	명
		9급	명
		10급	명
		기타	명
		소계	명
	직급별	일반직 (행정직)	명
		보건직	명
		수의직	명
		환경직	명
		식품위생직	명
		의료직	명
		간호직	명
		의료기사직	명
		기능직	명
		별정직	명
		기타	명
		소계	명
	성별	남자	명
		여자	명
		소계	명
	연령	10대	명
		20대	명
		30대	명
		40대	명
		50대	명
		60대	명
		60대 이상	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최종학력	소계		명		
		고졸 이하	명			
			초대졸 이하	명		
				대졸 이하	명	
					대학원 이상	명
			소계			명
	총 근속기간	임용일 이후 2012년 6월말 기준	1년 미만	명		
			1~5년 미만	명		
			5~10년 미만	명		
			10~20년 미만	명		
			20~30년 미만	명		
			30~40년 미만	명		
			40년 이상	명		
			소계	명		
	공중위생담당 근무기간	업무담당 총경력 2012년 6월말 기준	1년 미만	명		
			1~5년 미만	명		
			5~10년 미만	명		
			10~15년 미만	명		
			15~20년 미만	명		
			20~25년 미만	명		
			25~30년 미만	명		
			30년 이상	명		
	합계	명				
업무 중복	소속부서 수행업무	공중위생관련 업무		명		
		공중위생관련 업무 + 식품위생관련 업무		명		
		공중위생관련 업무 + 기타 업무		명		
	중복업무 종류	중복업무 종류		중복률		
				%		
				%		
				%		
		%				
대분류	공중위생관련 담당업종 (중복응답)		현황	공중위생관련 담당업무 내용 (중복응답)		현황
담당업무	민원접수		명	민원접수		명
	먹는물		명	인·허가		명
	실내공기질		명	지도단속 및 점검		명
	수질개선 및 수처리제업		명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명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명	통계보고		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숙박업	명	계획수립	명
	목욕장	명	일반관리 및 전반적인 행정운영	명
	이용업	명	세외수입 등 관리	명
	미용업	명	소관문서 심사/관리	명
	세탁업	명	공중위생행정전산망 관리	명
	건물위생용역업	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
	물수건처리업	명	관련 신종업종관리	명
	공중이용시설	명	공중위생교육	명
	공용화장실	명	담당 각 업종별 전반적인 업무	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	공중위생관련 총괄업무	명
	공중위생업 총괄	명	기타	명
	기타	명	소계	명
	소계	명		

부록 3. 공중위생분야 업무만족도 및 인식 조사표 (공무원용)

구분	지역	ID	관리자 코드
③ 광역 및 시·군·구 공무원 인식조사용			

공중위생관리제도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미용 등 위생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제도의 효율성 확보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중위생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정부정책을 정비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절대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내용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혜

전문연구원 윤시몬 ☎ 02)380-8213

전문원 조주연 ☎ 02)380-1679

Fax 02)353-0344

3.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인식도 조사용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공중위생분야 관련 업무 담당자 개인별 작성**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지역	시·도 명칭	예시) 경기도	2012년 1월기준 분류표 참조
	시·군·구 명칭	예시) 수원시	
행정구역	행정구역 명칭	예시) 권선구	
	행정구역 분류코드	예시) 31012** (7자리중 앞 5자리)	
조직	조직	<input type="checkbox"/> 본청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해당과명	<input type="checkbox"/> 보건위생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위생과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생활위생과 <input type="checkbox"/> 위생정책과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과 <input type="checkbox"/> 환경정책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직위	직위	<input type="checkbox"/> 4급 <input type="checkbox"/> 5급 <input type="checkbox"/> 6급 <input type="checkbox"/> 7급 <input type="checkbox"/> 9급 <input type="checkbox"/> 10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급	직급별	<input type="checkbox"/> 일반직 <input type="checkbox"/> 보건의직 <input type="checkbox"/> 수의직 <input type="checkbox"/> 환경직 <input type="checkbox"/> 식품직 <input type="checkbox"/> 의료직 <input type="checkbox"/> 간호직 <input type="checkbox"/> 의기직 <input type="checkbox"/> 기능직 <input type="checkbox"/> 별정직 <input type="checkbox"/> 기타	
전문성	자격 및 면허증 소지현황 (중복)	<input type="checkbox"/> 의사 <input type="checkbox"/> 약사 <input type="checkbox"/> 수의사 <input type="checkbox"/> 위생사 <input type="checkbox"/> 영양사 <input type="checkbox"/> 조리사 <input type="checkbox"/> 의료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별	남녀 구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연령	연령대	<input type="checkbox"/> ① 10대 <input type="checkbox"/> ② 20대 <input type="checkbox"/> ③ 30대 <input type="checkbox"/> ④ 40대 <input type="checkbox"/> ⑤ 50대 <input type="checkbox"/> ⑥ 60대 <input type="checkbox"/> ⑦ 60대 이상	
학력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고졸 <input type="checkbox"/> ② 초대졸 <input type="checkbox"/> ③ 대졸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원이상	
경력	총 근속기간	_____년 _____개월 (임용일 이후 2012년 6월말 기준)	
	공중위생담당 근무기간	_____년 _____개월 (2012년 6월말 기준 업무담당 총 경 력)	
업무중복	타업무 중복여부	<input type="checkbox"/> ① 공중위생업무 <input type="checkbox"/> ② 공중위생업무+식품위생업무 <input type="checkbox"/> ③ 공중위생업무 + 기타 업무(기타:)	
	중복업무 종류	중복업무 종류	중복률
			%
			%
			%
담당업무	공중위생관련 담당업종 (중복응답 가능)	공중위생관련 담당업무내용 (중복응답 가능)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input type="checkbox"/> 민원접수 <input type="checkbox"/> 먹는물 <input type="checkbox"/> 실내공기질 <input type="checkbox"/> 수질개선 및 수처리제업 <input type="checkbox"/> 정수기 및 냉온수기 등 <input type="checkbox"/> 숙박업 <input type="checkbox"/> 목욕장 <input type="checkbox"/> 이용업 <input type="checkbox"/> 미용업 <input type="checkbox"/> 세탁업 <input type="checkbox"/> 건물위생용역업 <input type="checkbox"/> 물수건처리업 <input type="checkbox"/> 공중이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용화장실 <input type="checkbox"/> 명예공중위생감시원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업 총괄	<input type="checkbox"/> 민원접수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input type="checkbox"/> 지도단속 및 점검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 <input type="checkbox"/> 통계보고 <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 <input type="checkbox"/> 일반관리 및 전반적인 행정운영 <input type="checkbox"/> 세외수입 등 관리 <input type="checkbox"/> 소관문서 심사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행정 전산망 관리 <input type="checkbox"/>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리 <input type="checkbox"/> 관련 신종업종 관리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교육 <input type="checkbox"/> 담당 각 업종별 전반적인 업무 총괄 <input type="checkbox"/> 공중위생관련 총괄업무
전문성	관련 법규 이해도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모른다 <input type="checkbox"/> ② 잘 모르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조금 아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잘 아는 편이다
업무정도	공중위생 업무정도 (부서내 타업무 대비)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과중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조금 과중하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조금 과중하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과중하다
업무만족	공중위생업무 만족도 (부서내 타업무 대비)	<input type="checkbox"/> ① 매우 불만족이다 <input type="checkbox"/> ② 조금 불만족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대체로 만족한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만족한다
불만사항	공중위생업무관련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① 인력 부족 <input type="checkbox"/> ② 예산 부족 <input type="checkbox"/> ③ 전담조직 부재 <input type="checkbox"/> ④ 전문성 부재 <input type="checkbox"/> ⑤ 기본업무 과중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input type="checkbox"/> ⑥ 낮은 업무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⑦ 담당업소수 과다 <input type="checkbox"/> ⑧ 민원업무 과다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발전 가능성	향후 공중위생업무 향후 발전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① 발전 가능성이 매우 낮다 <input type="checkbox"/> ② 발전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발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⑤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
관리 필요성	지속적인 공중위생관리의 필 요성	<input type="checkbox"/> ①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⑤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
관리대상 업종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종	<input type="checkbox"/> ① 숙박업 <input type="checkbox"/> ② 목욕장업 <input type="checkbox"/> ③ 이용업 <input type="checkbox"/> ④ 미용업(세부화:) <input type="checkbox"/> ⑤ 세탁업 <input type="checkbox"/> ⑥ 건물위생관리용역업 <input type="checkbox"/> ⑦ 세척제제조업 <input type="checkbox"/> ⑧ 물수건처리업 <input type="checkbox"/> ⑨ 공중이용시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
관리제외 업종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없는 업종	<input type="checkbox"/> ① 숙박업 <input type="checkbox"/> ② 목욕장업 <input type="checkbox"/> ③ 이용업 <input type="checkbox"/> ④ 미용업(세부화:) <input type="checkbox"/> ⑤ 세탁업 <input type="checkbox"/> ⑥ 건물위생관리용역업 <input type="checkbox"/> ⑦ 세척제제조업

대분류	구분	내용 및 현황
		<input type="checkbox"/> ⑧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빗길, 물종이류 등) <input type="checkbox"/> ⑨ 공중이용시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
관리대상 신종업종	향후 관리가 필요한 신종 업종	<input type="checkbox"/> ① 고시원, 고시텔 <input type="checkbox"/> ② 휴게텔 <input type="checkbox"/> ③ 독서실 <input type="checkbox"/> ④ 레지던스 <input type="checkbox"/> ⑤ 게스트하우스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민원	다수 민원제기 내용	
최근현안	최근 담당업무 관련된 주요 현안문제	
애로사항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	

※ 공중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담당 분야와 상관 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피부미용업

☐ 세탁업

☐ 건물위생관리용역업

☐ 물수건위생처리업

☐ 공중이용시설

☐ 기타 업종 ()

☐ 공중위생관리제도 전반

부록 4. 지역별 공중위생관련업 연도별 현황

1. 지역별 숙박업 연도별 현황

〈부표 4-1〉 각 지역별 숙박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2,680	33,270	33,642	33,031	32,658	31,913	31,563	31,130	30,867	30,651
서울	4,507	4,302	4,254	4,129	4,008	3,967	3,828	3,733	3,573	3,470
부산	2,762	2,814	2,830	2,763	2,648	2,584	2,529	2,470	2,417	2,382
대구	1,341	1,315	1,319	1,241	1,199	1,144	1,130	1,101	1,071	1,055
인천	1,591	1,539	1,642	1,551	1,497	1,471	1,446	1,402	1,373	1,345
광주	1,012	1,045	1,029	1,003	957	940	928	916	904	893
대전	1,028	1,109	1,095	1,056	1,012	988	959	948	934	918
울산	820	836	850	825	791	778	776	771	773	769
경기	4,883	5,027	5,106	5,026	4,919	4,860	4,814	4,793	4,781	4,753
강원	2,326	2,360	2,390	2,382	2,620	2,343	2,343	2,324	2,324	2,306
충북	1,227	1,239	1,229	1,200	1,158	1,151	1,131	1,124	1,112	1,101
충남	1,895	2,047	2,169	2,168	2,192	2,241	2,250	2,230	2,231	2,255
전북	1,618	1,607	1,589	1,532	1,513	1,478	1,493	1,490	1,473	1,478
전남	1,825	1,911	1,894	1,852	1,811	1,793	1,776	1,789	1,781	1,787
경북	2,555	2,572	2,605	2,566	2,608	2,525	2,518	2,486	2,501	2,493
경남	2,624	2,844	2,898	2,976	2,957	2,878	2,869	2,784	2,835	2,849
제주	666	703	743	761	768	772	773	769	784	79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2. 지역별 목욕장업 연도별 현황

〈부표 4-2〉 각 지역별 목욕장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0,087	9,997	9,845	9,502	9,315	9,146	8,852	8,627	8,446	8,252
서울	1,983	1,820	1,743	1,643	1,524	1,458	1,360	1,307	1,267	1,226
부산	1,332	1,359	1,363	1,343	1,318	1,278	1,235	1,210	1,187	1,150
대구	563	562	569	543	521	507	482	464	454	437
인천	503	501	454	409	402	385	353	321	302	297
광주	378	358	332	315	300	290	281	275	267	260
대전	262	277	259	223	228	210	200	198	191	184
울산	273	287	301	291	273	260	257	246	246	238
경기	1,397	1,378	1,333	1,279	1,228	1,215	1,197	1,174	1,151	1,137
강원	337	334	332	325	325	343	342	349	344	339
충북	272	274	275	241	238	230	228	228	232	224
충남	292	302	307	305	317	348	338	299	294	294
전북	359	373	364	355	356	356	364	351	331	324
전남	404	415	422	421	414	414	396	402	404	406
경북	601	604	615	619	643	639	635	625	624	607
경남	970	989	1,004	1,013	1,043	1,028	1,003	999	983	966
제주	161	164	172	177	185	185	181	179	169	163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3. 지역별 이용업 연도별 현황

〈부표 4-3〉 각 지역별 이용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2,180	29,845	28,196	26,904	25,566	24,308	23,189	22,334	21,739	20,835
서울	6,498	5,530	5,186	4,895	4,523	4,150	3,886	3,660	3,505	3,298
부산	2,790	2,467	2,397	2,253	2,133	2,030	1,950	1,860	1,825	1,767
대구	1,729	1,642	1,526	1,460	1,376	1,326	1,303	1,260	1,251	1,229
인천	1,778	1,813	1,540	1,462	1,361	1,292	1,039	982	929	872
광주	999	903	835	821	807	764	715	693	682	661
대전	855	820	774	731	691	662	637	617	613	577
울산	701	656	628	580	560	530	524	515	500	484
경기	5,452	5,257	4,962	4,654	4,286	4,045	3,931	3,841	3,706	3,497
강원	1,137	1,016	981	947	914	874	871	845	822	792
충북	983	902	858	828	792	791	759	754	731	706
충남	1,438	1,357	1,321	1,286	1,238	1,210	1,172	1,151	1,123	1,096
전북	1,457	1,385	1,266	1,252	1,203	1,181	1,127	1,087	1,046	994
전남	1,616	1,587	1,505	1,476	1,463	1,454	1,400	1,385	1,337	1,300
경북	1,990	1,861	1,878	1,813	1,827	1,759	1,692	1,642	1,623	1,589
경남	2,324	2,266	2,143	2,050	2,016	1,886	1,838	1,716	1,727	1,665
제주	433	383	396	396	376	354	345	326	319	30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4. 지역별 미용업 연도별 현황

〈부표 4-4〉 각 지역별 미용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2,180	29,845	28,196	26,904	25,566	24,308	23,189	22,334	21,739	20,835
서울	6,498	5,530	5,186	4,895	4,523	4,150	3,886	3,660	3,505	3,298
부산	2,790	2,467	2,397	2,253	2,133	2,030	1,950	1,860	1,825	1,767
대구	1,729	1,642	1,526	1,460	1,376	1,326	1,303	1,260	1,251	1,229
인천	1,778	1,813	1,540	1,462	1,361	1,292	1,039	982	929	872
광주	999	903	835	821	807	764	715	693	682	661
대전	855	820	774	731	691	662	637	617	613	577
울산	701	656	628	580	560	530	524	515	500	484
경기	5,452	5,257	4,962	4,654	4,286	4,045	3,931	3,841	3,706	3,497
강원	1,137	1,016	981	947	914	874	871	845	822	792
충북	983	902	858	828	792	791	759	754	731	706
충남	1,438	1,357	1,321	1,286	1,238	1,210	1,172	1,151	1,123	1,096
전북	1,457	1,385	1,266	1,252	1,203	1,181	1,127	1,087	1,046	994
전남	1,616	1,587	1,505	1,476	1,463	1,454	1,400	1,385	1,337	1,300
경북	1,990	1,861	1,878	1,813	1,827	1,759	1,692	1,642	1,623	1,589
경남	2,324	2,266	2,143	2,050	2,016	1,886	1,838	1,716	1,727	1,665
제주	433	383	396	396	376	354	345	326	319	308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5. 지역별 세탁업 연도별 현황

〈부표 4-5〉 각 지역별 세탁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5,360	33,998	33,311	34,279	34,139	33,650	33,233	32,900	32,262	31,683
서울	7,564	6,874	6,930	7,055	7,022	6,912	6,808	6,731	6,595	6,443
부산	2,975	2,678	2,769	2,691	2,635	2,513	2,469	2,409	2,366	2,306
대구	2,053	2,187	2,213	2,096	2,045	1,991	1,967	1,925	1,899	1,861
인천	2,032	1,893	1,808	1,888	1,840	1,843	1,792	1,698	1,693	1,675
광주	1,545	1,610	1,509	1,492	1,486	1,453	1,390	1,392	1,358	1,324
대전	1,128	1,141	1,149	1,392	1,138	1,116	1,104	1,092	1,068	1,048
울산	780	758	765	677	673	652	642	637	624	606
경기	6,015	6,004	6,390	6,393	6,442	6,465	6,501	6,539	6,519	6,407
강원	1,138	1,081	1,093	1,083	1,091	1,080	1,055	1,055	1,037	1,024
충북	1,087	1,026	1,015	1,021	993	1,004	993	1,004	1,028	1,037
충남	1,363	1,309	1,357	1,384	1,376	1,397	1,399	1,365	1,339	1,326
전북	1,399	1,421	182	1,110	1,426	1,416	1,400	1,392	1,278	1,258
전남	1,634	1,594	1,618	1,557	1,519	1,468	1,441	1,417	1,388	1,360
경북	1,970	1,836	1,916	1,895	1,897	1,907	1,900	1,885	1,805	1,789
경남	2,030	1,971	2,004	1,952	1,958	1,843	1,790	1,784	1,723	1,682
제주	647	615	593	593	598	590	582	575	542	537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6.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 연도별 현황

〈부표 4-6〉 각 지역별 위생관리용역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5,224	5,082	5,484	5,915	6,681	7,401	8,150	8,986	9,656	10,623
서울	1,776	1,392	1,600	1,755	1,939	2,053	2,156	2,401	2,546	2,689
부산	363	390	432	477	502	532	586	625	677	725
대구	342	312	337	303	316	351	393	399	410	428
인천	225	252	230	258	290	292	337	328	365	427
광주	202	267	197	198	230	250	271	266	297	346
대전	262	261	256	255	280	290	323	358	390	426
울산	142	146	120	133	179	181	206	219	219	249
경기	624	762	934	1,061	1,220	1,398	1,514	1,723	1,862	2,122
강원	155	154	153	167	184	223	264	311	346	377
충북	109	125	120	133	157	177	200	231	247	275
충남	105	117	129	144	158	204	244	287	326	380
전북	181	196	174	159	227	259	299	350	377	454
전남	121	149	172	189	213	279	314	350	378	431
경북	257	232	250	276	325	389	441	478	532	570
경남	309	270	318	337	382	447	513	566	585	613
제주	51	57	62	70	79	76	89	94	99	11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7. 지역별 위생처리업 연도별 현황

〈부표 4-7〉 각 지역별 위생처리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403	421	446	458	450	465	459	455	455	442
서울	35	31	34	35	35	35	36	36	34	33
부산	33	22	28	30	26	26	28	27	27	29
대구	17	22	23	24	16	15	12	13	14	13
인천	16	16	17	19	18	17	16	16	16	14
광주	15	16	11	12	12	12	11	11	11	12
대전	19	18	19	19	17	18	16	16	15	16
울산	9	9	11	10	15	14	13	12	12	13
경기	79	79	86	87	90	91	89	90	88	82
강원	16	19	21	21	22	25	22	22	23	22
충북	26	26	27	28	29	30	32	33	34	33
충남	22	23	27	29	19	27	27	27	29	29
전북	17	27	30	28	31	32	32	29	27	24
전남	24	27	26	28	29	30	28	27	27	26
경북	25	30	35	35	37	40	43	45	46	45
경남	42	45	43	45	45	44	45	42	43	42
제주	8	11	8	8	9	9	9	9	9	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8. 지역별 세척제제조업 연도별 현황

〈부표 4-8〉 각 지역별 세척제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54	183	203	211	218	234	248	267	287	303
서울	5	5	5	4	1	2	2	3	5	4
부산	14	13	10	17	13	12	12	12	15	15
대구	4	3	5	8	7	8	7	8	13	14
인천	15	20	19	18	18	16	13	13	14	14
광주	5	4	4	4	5	5	5	5	5	4
대전	4	4	5	5	3	2	1	1	1	1
울산	4	3	2	-	0	2	2	2	2	2
경기	45	66	77	78	85	91	101	112	114	124
강원	7	7	8	8	7	9	9	9	9	9
충북	9	11	12	13	15	19	23	25	29	30
충남	10	13	13	12	14	16	19	19	19	19
전북	6	7	8	10	11	9	10	10	11	11
전남	1	2	2	3	5	7	6	8	9	10
경북	10	10	10	9	11	13	14	15	16	19
경남	13	12	20	19	20	19	19	19	19	21
제주	2	3	3	3	3	4	5	6	6	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9.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연도별 현황

〈부표 4-9〉 각 지역별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연도별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18	371	396	383	415	379	394	407	427	440
서울	48	52	51	45	39	36	30	30	27	24
부산	9	13	15	12	15	12	14	15	15	14
대구	11	13	11	11	12	9	8	7	10	14
인천	18	18	13	14	19	16	12	10	13	13
광주	12	11	9	8	10	13	12	13	16	18
대전	15	13	11	12	12	10	11	14	14	14
울산	3	2	1	3	4	1	1	3	3	3
경기	112	151	169	164	185	166	180	193	202	215
강원	6	7	10	12	12	14	13	11	12	13
충북	14	14	14	19	20	17	20	23	25	24
충남	19	18	18	16	17	20	20	15	15	14
전북	7	12	12	7	10	9	8	8	7	7
전남	8	10	12	13	13	10	12	12	13	9
경북	18	19	29	24	23	20	27	30	31	33
경남	15	15	17	19	20	22	22	19	19	19
제주	3	3	4	4	4	4	4	4	5	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연도 및 내부자료

주 의

1.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정책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기밀유지에 필요한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